

3

주체103(2014)

문 학 예 술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3호

(루계 제797호)

## 차 례

경쟁은 전격로에 제신다(시)	서 봉 제(3)
최불리수지(시)	문 동 식(3)
로웅(시)	유 련 희(4)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올해를	
시대적명작창작의 자랑스런 성과로 빛내이자(머리글)	(5)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7)
<b>단편소설 일곱번째 상봉</b>	최 봉 무(8)
하나라도 더(혁명일화)	(16)
<b>주체문학의 대강</b>	(17)
형수동의 새벽(시)	함 영 근(7)
그속에 나도 한그루(시)	김 경 석(17)
가: 그이 품에서 알았네	문 기 창(17)
진념의 노래	조 영 사(30)
사: 너도나도 웃는 꽃	김 성 조(58)
아가야 너를 위해	원 영 욱(67)
우리네 《강릉》호엔 차고넘친다(시)	김 덕 선(43)
저울의 비극별에쉬(시)	성 연 일(44)
평범한 사람(시)	박 정 철(45)
〔수필〕 영웅의 어머니	리 준 호(31)
〔수필〕 룡흥강의 전설	손 광 수(46)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김 정 은

단편  
소설

푸른 호수 ..... 김 자 경(18)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 김 철 호(33)

선생님 믿으십시오 ..... 리 명 현(48)

덕지강의 주인들(실화) ..... 한 철 순(68)

현실은 보다 예리한 붓대를 요구한다(평론) ..... 김 학(62)

주인공을 이상화하지 않고 진실하고 참되게!(연단) ..... 김 청 송(77)

◇ 시 ◇

자강땅의 《창성》(편지) ..... 기 경 호(59)

세포비서의 심정 ..... 류 민 호(65)

우리 대의원 ..... 윤 희(65)

천리마동상앞을 지나며 ..... 최 향 실(66)

나의 안해여 ..... 리 명 학(67)

자동수예기앞에서 ..... 주 경(80)

△ 노래와 비단 ..... 리 명 옥(45)

벽 나의 기쁨 ..... 리 동 수(76)

시 미래앞에 우리가 서있다 ..... 조 영 일(78)

▽ 절약은 애국 ..... 박 정 애(78)

쏘베트작가 쏘프로노브와 희곡 《계승》(소개) ..... 리 종 국(79)

표지2면: 《우리 원수님》(노래)

3면: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선전화)

# 령장은 진격로에 계신다

## 서 봉 제

세월은 멀리 흘렀건만  
오늘도 대공에 백포자락 날리며  
밀림에 랑랑히 울려가는  
진격의 나팔수군상앞에  
경애하는 원수님 걸음을 멈추시었다

권총을 높이 추켜든 지휘관은  
멸적의 불을 쏘으며 내닫고  
순간도 손에서 나팔을 놓지 않은  
돌진하는 유격대나팔수 모습에서  
빨찌산대오가 넘고넘어온 그 세월 그려보시는가

년대와 년대들은 바뀌고  
멀리 흘러온 백두의 행군길우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이 펼쳐졌어도  
그날의 나팔소리 귀전에 들으시며  
원수님은 백두의 전장을 밝으시는듯

항일령장 우리 수령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공격전에 계신 숭고한 그 뜻을 받드시여  
아버이장군님 공격전의 나팔수를  
삼지연광장에 불굴의 전사로 세워주셨나니

승리는 언제나 공격전에 있고  
공격전엔 언제나 나팔수가 있어야 함을

세월의 언덕을 넘어  
삶과 투쟁의 철리로 전해주는  
피어린 항일전의 언덕에 선 공격의 나팔수여

조국과 민족이 생사를 맡긴  
혁명의 태양 수령님 헤쳐오신 길  
백두의 정신을 유산으로 남긴  
렬사들의 뉘 소중히 빛내주신  
장군님의 높은 뜻 새기시며  
원수님은 백두의 광야를 거니시는것인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 혁명의 피줄기를  
만대에 이어주시려  
백두에 대로천박물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그 업적  
빛나는 그 위업으로 백두의 무게를 더해주는  
령장의 거룩한 발걸음이어

아,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다 안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아버이장군님 더 높이 올리게 하신  
30년대의 저 나팔소리에 이어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더 높이 올리게 하시려  
백두산대국 총돌격의 진격로에  
백승의 선군령장 서계시여라!

# 해불져수지

## 문 동 식

장수원에 봄이 오니  
저수지의 맑은 물 출렁출렁 흘러가네  
아버이수령님 대한날 깊은 밤  
해불 추켜드시고 자리잡아주시던  
그 사랑 감회깊이 노래부르며

물이 없어  
대대로 조만 심던 이 고장  
여기 산골농민들도 흰쌀밥 들게 하려  
무릎치는 생눈길 앞장서 헤치시며

샘줄기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

이젠  
여기에도 논을 풀게 되었다고  
별방처럼 쌀낭가리 쌓아보게 되었다고  
그밤 눈덮인 바위우에 앉으시여  
그리도 호탕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내 오늘 찾아와 저수지를 바라보니  
해불로 이 산촌 앞길을 밝혀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에 꿰고있는 물인듯  
배미마다 이랑마다 풍작을 펼쳐갈  
태양의 봄빛같은 젖줄기인듯

고마워  
그 은덕 너무도 고마워  
한웅큼 떠들고 내 입술 대어보니  
이 물은 진정 물이 아닌 불  
방울방울 영원한 사랑의 불덩이

생각할수록 우리 수령님은  
불이 오탁백과와 생명수 되고  
물이 행복의 옥백미 되는  
주체농법 흥하는 새시대를 열어주신  
전무후무한 전설의 천출위인

아버이수령님의 그 은혜 노래하며  
혜불저수지의 사랑의 젖줄기  
물길따라 출렁출렁 활개쳐가네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조국찬가》 선물에  
부풀어오른 대지를 흥건히 적셔주며

아, 장수원의 생명수  
이 봄에도 수령님의 그 혜불 싣고  
넘실넘실 춤추며 가을향해 달려가네  
내 나라 인민들 부귀영화 누려갈  
만복의 쌀바다를 펼쳐려 가네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에서—

## 로 용

### 유 련 희

작별의 눈물이  
마를새없던 세월이었다  
망국의 피로움에  
초목도 몸부림치던 이 강토였다

태를 묻은 조상의 땅이건만  
송곳조차 박을 땅이 없어  
피나리보짐 둘러메고  
정처없이 고향을 떠나던 이들

누구는 압록강을 넘으며  
누구는 두만강을 건느며  
가슴 미여지는 피로움속에  
돌아보고돌아보던 눈물젖은 조국

허나  
오직 한분만은  
압록강을 건너 후창을 지나  
오가산의 눈길을 헤치시며  
조국으로 고향으로 나오셨거니

이역의 등잔불아래  
사랑하는 어머니님 밤새워 지어주신  
버선을 신으시고  
손에는 아버지뜻이 어린  
천리로정도 그려진 책을 꼭 쥐시고  
한낮에도 맹수들 우글거리는

무인지경 험한 령 넘어넘어 몇백리

걸음걸음  
먼길에 실리는 아픔보다도  
짓밟혀 신음하는 겨레의 아픔이  
더더욱 못 견디게 가슴저미시여

—일어나라 겨레여 짓밟힌 조선아  
내 기어이 놈들의 총칼을 빼앗아  
놈들의 숨통을 끊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리라!

오, 불같은 맹세로  
눈속에 얼어붙은 이 땅을 안아  
한치한치 녹이시며 녹이시며  
배움의 천리길 헤쳐오신 수령님

그립던 고향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에 들어서시여  
버선발로 나오신 할머니품에  
와락 달려가 안기실제

그날은 어찌 조부모님들뿐이라  
온 겨레 온 조국이 떨쳐나  
격정에 파도치며 설레이며  
그이를 뜨거이 포옹한 날이었다

# 원근로원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올해를 시대적 명작창작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자

새해 력사적진군이 시작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대오의 선두에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위대한 주체형의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는 크나큰 경사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향하여 구보로 내딛는 승리자들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의와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오늘 창조와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군민의 진두에서 주체의 조종간을 틀어잡으시고 강성부흥의 령마루에로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는 젊음으로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기상이 어려있고 우리 식의 창조방식, 창조본래로 세계를 향하여 더 빨리, 더 힘있게 내달리는 김정은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전례없이 거창한 총진군이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이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에술성이 높은 시대적명작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에술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문학은 마땅히 위대한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19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문학예술은 80년대,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수많은 내놓음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에도 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창작의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

한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올해창작전투의 성과는 작가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짜고들어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틀어쥐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올해에 시대적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올해에 무엇보다도 문학작품창작에서 백두산3대장군들을 형상한 총서작품들과 극문학, 소설문학, 시문학분야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보다 진실감있고 뜨겁게 형상한 주옥같은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 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시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시고 전설적인 기적들을 단숨에 안아오시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는 우리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작가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과 심오한 인간적세계를 다양하게 형상하고 창조하며 천만군민모두가 원수님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문학작품들도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고 칭송한 송가문학을 더 많이 창작하여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들어 창조와 혁신의 불꽃 날려가는 전투장마다에서 시대의 진군가, 승전가로 높이 올릴 작품들을 더 많이,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올해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을

비롯하여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들을 형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작품들,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우리 시대 영웅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일본새를 따라배워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훌륭히 만들어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당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심, 혁명적력량을 안겨주고 피가 끓게 하는 작품이라야 사상예술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로 될 올해 시대적명작창작성과로 빛내이자면 무엇보다먼저 모든 문학작품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문학작품창작에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현실물창작에 보다 커다란 힘을 넣는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이다.

특히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을 문학작품의 전형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어떻게 달라붙어 실천에 구현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들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할때만이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작가들은 작품에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일군을 형상하려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해나가는 과정을 밀접히 결부시켜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야 한다.

현시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문학작품창작에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다른 하나는 도식주의경향과 류사성을 없애는것이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것이다. 인간의 생활이 다양하고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이 서로 다른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문학작품도 다양하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문학작품은 특색있고 독창적이어야 볼 재미가 있고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강한 탐구정신, 창작적주견과 대담성을 가지고 당정책적안목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문학형상을 개척하고 창조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기억속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죽으나사나, 앓으나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작품창작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시대적명작창작성과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작가들속에서 혁명적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문학작품은 작가들의 높은 사색과 열정의 산물이다.

1970년대 우리 작가들은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창작전투를 긴장하게 벌렸기때문에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할수 있었다.

작가들속에서 혁명적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자면 우리 시대 영웅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이 키워주고 내세워준 우리 시대 영웅들, 선군시대 공로자들은 참다운 충신, 애국자의 전형으로서 그들은 문학작품의 형상원천일뿐아니라 우리모두의 삶과 투쟁의 거울이다.

우리 작가들이 시대의 영웅들처럼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투쟁한다면 올해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올해를 시대적명작창작성과로 맞이하게 될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혁명적진군의 나팔수라는 자각을 안고 창작전투의 1분1초를 이어나가야 할것이다.

작가들은 1970년대 일군들처럼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불타는 창작적열정과 순결한 량심을 남김없이 바쳐야 한다.

선군시대 번영기를 시대적명작창작성과로 빛내이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하다.

우리가 백두산에 앉아서 <3.1월간>이나 <서광> 같은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국을 잊지 말고 조국동포들을 잊지 말자고 호소하면 그 목소리를 남북만의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다 듣게 된다. 수백만 대중을 향해 동일한 사상과 투쟁구호를 일시에 신속히 선전하며 대중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출판물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선전선동수단은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흔히 구두선전은 <입대표>, 연예활동을 통한 선전은 <북대표>, 출판물을 통한 선전은 <붓대표> 또는 <글대표> 라는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곤 하였다.》

## 청수동의 새벽

함 영 근

11월의 찬바람 우수수  
선생님의 옷자락을 흔든다  
머지않아 동이 트려는가  
숲속에선 푸드득 푸드득  
깃을 펴는 산새들

잠초 무성한 언덕에 서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  
떠나가는 동지들을 바래우신다  
옥중에 계시던 긴긴 나날  
한시도 잊으신적 없으시던 그리운 동지들

출옥하신 선생님을 만나뵈오려  
선생님의 귀중한 가르치심 받으려  
앞을 다투어 찾아왔던 조선국민회 회원들  
선생님의 그 말씀 받아안고  
신심드높이 떠나간다  
황해도로 전라도로 먼 해외에도

앓지들 앓았는가  
생활형편은 어떤가  
친절히 물어도 주시며  
회원들과 다정히 말씀하실 때  
여기 청수동에 선생님이 오시니

새힘이 솟는다고 기뻐하던 동지들

아, 민족이 단합하여야 싸워이길수 있고  
싸우면 독립을 할수 있다는 진리를  
동지들의 가슴에 안겨주신 선생님  
떠나는 동지들을  
어둑새벽 찬바람 부는 길로 바래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이어

만경대에서 청수동  
천리 먼길 헤쳐오시였던만  
한몸 피로도 잊으시고  
새벽을 맞으시는 김형직선생님

창성으로 그리고 벽동으로...  
선생님 가셔야 할 길 그 몇천리더나  
동지 한사람한사람이 것처럼 귀중하시여  
선생님께서 천리만리라도 바래우시려는가

푸름푸름 동터오는 청수동의 새벽길로  
해발처럼 퍼져가는 동지들  
이제 답답하던 겨레의 가슴은 활 열리고  
삼천리조국강산에 어둠은 가셔지리라  
아, 청수동에 동이 튄다 동이 튄다

자면 다음으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실력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명작을 창작하는데서 기본열쇠이다.

작가들이 실력이 있어야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실할수 있고 인민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들의 실력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이다.

작가들은 모든것이 충실성과 실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정치적식견을 높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생활체험을 많이 쌓아 생활의 박식가, 창작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모두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올해를 시대적명작창작성과로 빛내어나가자.





최 봉 무

1

포병련대 3중대를 돌아보던 러단장 석운룡은 중대집집승우리앞에서 성이 독같이 올랐다. 봄철소독작업을 하던 몇명의 병사들이 하마트면 화재를 일으킬번 했던것이다. 깨끗하던 집집승우리바닥의 짚이 타고 벽체에는 시꺼먼 그늘음을 진하게 새겨놓았다.

러단참모부로부터 러단장이 중대에 온다는 전화를 받은 중대장은 부랴부랴 팔을 걷어붙이고 그늘음을 벗기다가 러단장과 맞다들게 되었다.

엄하기로 소문난 러단장은 중대장을 되게 꾸짖었다. 중대장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차렷자세로 서있었다. 바지가랭이가 흠뻑 젖어 서있는 중대장을 한참이나 쏘아보던 석운룡러단장은 저력있는 음성으로 물었다.

《누가 이런 모험적인 불소독을 궁리해냈소?》

《...》

대답이 없었다. 석운룡러단장이 버럭 어성을 높였다.

《누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가?》

《저... 황영진이라고...》

《뭐, 황영진?!...》 러단장은 너무 뜻밖인듯 눈만 껌벅거렸다.

《그는 지금 뭘하구 중대장이 이 역사질이요?》

중대장이 물렁팔죽이라고 불호령을 퍼부을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러단장의 목소리가 《황영진》이라는 한 병사의 이름앞에서 부드러워지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한해전이었다.

황영진은 중대에서 선발된 몇명의 대원들과 함께 러단의 포병련대판하 녀성중대에 나가 며칠간 병실작업을 도와준적이 있었다. 그때 영진은 잠시간을 리용하여 중대의 직관사업을 방조해주었다. 중학시절 광복거리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일떠서면서 첫 미술소조원으로 그림을 배운 영진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것이다.

그가 녀성중대에 나가 그린 그림은 적들의 침략음모를 폭로한 연필화 《빠라작전》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갑자기 철수명령을 받게 되었다. 뜻밖의 일에 어안이 빙빙해진 영진이네는 녀성중대가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서 휴식하고있었다. 그런데 녀성중대병영쪽에서 갑자기 만세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깜짝 놀란 영진이네는 벌떡 일어나 그리로 눈길을 주었다.

(아니? 장군님의 야전차가 아닌가?!...)

황영진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성중대를 찾아주신것이 분명하였다.

몇대의 야전차가 산기슭길을 지나 바다를 향하여 마주서있는 병영의 언덕을 넘어서고있었다.

(이 무더운 삼복철에...)

영진은 부지불식간에 눈앞이 흐려졌다. 어쩌면 이렇게 꿈결에도 그립던 아버지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를 멀리서나마 뵈을줄 어찌 알았으랴. 가슴속에서 세찬 파도가 이는듯 했다. 아, 녀성중대동무들은 얼마나 행복하랴!

가슴에 총잡고 조국보위초소에 나선 병사들이라

면 그 누구나 바라는 하나의 소원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들의 초소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는것이다.

황영진은 녀성중대 병사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이렇듯 멀지 않은 곳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야전차를 보게 되니 자기도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뵙는듯한 심정이였다.

인제는 군사복무의 나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대를 앞둔 병사여서 황영진은 아버지장군님이 더더욱 그리웠다. 특히 텔레비존화면에서 군부대들을 찾으시는 장군님께서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이 소개될 때마다 그리움은 더욱 간절하였다.

불현듯 영진이네 3중대에 나타난 석운룡려단장은 중대장과 함께 병실 한모퉁이에서 그림을 그리고있는 영진에게 다가와 녀성중대를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 적들의 침략음모를 폭로한 련속직관물 《빠라작전》을 보시고 높이 평가해주셨다는 꿈같은 소식을 전달해주었다.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영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하고 기운차게 답례인사를 했다.

영진은 녀성중대동무들을 도와준 그림이 그렇듯 파분한 치하를 받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석운룡려단장은 영진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에 나가보면 재간둥이들이 많다고 하시며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몇번이나 곱씹어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석운룡려단장의 뇌리에는 황영진이라는 병사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3중대에서 화재사고요소가 있었고 그 장본인들중에 황영진의 이름도 튀어나오자 려단장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가 지금 뭘하오?》

《그림을 그리고있습니다.》

《재구를 칠번 하고도 그림을 그린다?! 허허... 무사태평이구만, 피짜요! 가봅시다, 중대장.》

그때 황영진은 자기의 상관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화판을 펼쳐들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황영진을 보는 순간 려단장의 미간에 홍조가 어리였다. 어글어글한 눈가에 야릇한 미소가 떠오르고있었다.

《영진이, 뭘하나?》

중대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려단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묻는 파묵한 대좌의 물음이 아니였다.

이제 곧 제대명령을 받게 될 황영진은 요즘 생각

이 많았다. 과연 중대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갈것인가. 전우들의 추억속에 두고가는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람찬 병사생활이겠는가?

생각하고생각하던 끝에 영진은 군사복무의 나날 자신이 체험하고 목격하였던 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일들을 골라 그림으로 남기려고 마음먹었었다. 하여 그는 얼마전부터 복무의 갈피갈피를 번져가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려단장의 눈에까지 띄었다.

《대좌동지, 중사 황영진 그림을 그리고있습니다.》

영진은 연필과 화판을 천채 허리를 꼴꼴이 펴고 대답하였다.

보통키에 단정한 몸가짐을 한 영진은 언제보나 매우 감성적인 온순한 성격의 병사라는 인상을 준다. 그는 군관들은 물론 소대와 중대의 모든 전우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조금전까지 중대장을 다불러세우던 려단장도 순간에 인상을 바꾸었다.

《그래? 어디 좀 보자구.》 려단장은 영진에게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그가 그려놓은 그림을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하였다. 그림은 모두 연필로 그린 소묘들이였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의 슬하에서 자라다가 군대에 입대하여 잔뼈가 굳어진 려단장 석운룡은 군인으로서 체험할수 있는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겪어온 똑하면서도 다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말없이 그림을 번져가며 눈박아 들여다보았다. 려단장의 입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가 하고 황영진은 물론 중대장까지 마음을 조이었다.

《...》

석운룡이 시선을 박고있는것은 연필화 《우리 중대 막내의 꿈이야기 〈장군님 오셨다!〉》였다. 중대의 막내병사가 갱도공사장에서 함마를 베고 쪽잠을 자면서 장군님께서 부대에 오시는 꿈을 꾸는 장면을 그린 연필화이다. 함마우에 팔베개를 하고 쪽잠속에서 행복의 웃음을 짓는 병사, 꿈속에 《장군님 오셨다!》고 웨치는 병사들...

석운룡려단장은 퍼그나 시간이 흘렀지만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중대장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려단장이 아무 기척도 없이 그림을 들여다보는것이 놀라와 숨을 죽이었다. 사실 그 그림의 주인공은 입대한 첫날부터 자나깨나 최고사령관동지를 초소에 모시는 꿈을 꾸어온 황영진 그자신이였다.

석운룡려단장은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저물녘까지 중대사업을 료해하다가 아무랄

없이 돌아갔다.

그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난 화창한 봄날이었다.

야전군용전화로 3중대장을 급히 찾은 석운룡려단장은 중대장에게 환영진병사가 그리던 그림들을 어떻게 했는가고 물었다.

중대장은 그것들을 잘 보관하고있다고 보고했다.

《모두 몇장이더라?》

려단장이 의미심장한 어조로 물었다.

《모두 열세장이었는데 한장은 흙탕물에 떨어져 오손되고 〈우리 중대 막내의 꿈이야기〉와 〈우리 가족지원대〉를 비롯하여 열두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소? 잘 건사해두오.》

《알았습니다.》

중대장은 려단장이 특별히 당부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고 범상히 대답하였다.

석운룡려단장은 속생각이 따로 있었다. 사실 그날 중대에서 연필화를 보고 인상이 깊었지만 자기는 그저 싸움준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음악이나 미술에는 영 문외한이라고 말해왔으므로 아무 내색도 없이 돌아온 그였다.

그렇게 폐사로운 날들이 흘러가던 어느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시찰을 보좌하시기 위해 군단에 내려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들을 만나뵈은 기회에 려단관하의 한 중대에 그림을 잘 그리는 병사가 있는데 그가 그려준 여성중대의 직판물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고 높이 치하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병사가 그린 연필화들을 간수하고 있는데 꼭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것이 바로 병사생활을 생동하게 그린 작품들이라고, 그러면 자신께서 먼저 보아주시겠다면서 우정 시간을 내어 그 연필화들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였던것이다.

그러한 사연을 모르는 중대장은 폐의 그 청높은 소리로 《우리 환영진동무가 그린 그림은 우리 중대의 자랑입니다.》라고 하였다.

《자랑이라...》

《옳, 그렇습니다. 우리 중대 8대자랑중에서 일곱번째에 속합니다.》

중대의 8대자랑에는 어떤것들이 속한다는 말인지? 그리고 그 병사의 그림들은 왜 일곱번째에 속한다는것인지?... 이렇게 생각한 려단장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중대장이 축산이나 콩농사만 잘하는줄 알았더니 정신적재부의 진가도 잘 아누만.》

좀해서 웃지 않는것으로 알려져있는 석운룡려단장이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크게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2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을 눈앞에 둔 3중대는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그날 석운룡려단장은 군단 지휘부에서 내려온 여러 정치, 군사일군들과 같이 중대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정치군사훈련에서 모범으로 전군단적으로 알려진 중대답게 싸움준비에서 빈틈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려단으로 돌아와 려단의 건군절일정을 료해하던 석운룡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화로 찾으신다는 회소식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굳어져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인민군대의 한 려단장에 불과한 자기를 그이께서 찾으신다는것을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그가 송수화기를 받쳐들고 정중하게 보고드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려단장동무,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려단장동무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석운룡동무가 용맹한 싸움군답게 부대의 전투준비완성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데 이번엔 꼭 그를 찾아가 만나 보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잘 준비해주시오.》

석운룡은 가슴을 짝 펴고 힘차게 대답올렸다.

《알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장동지!》

《그런데... 내가 아직 려단장동무의 제기에 대답을 주지 못한것이 있는데...》

《?!...》

그가 미처 말씀드릴새도 없이 그이께서 계속하시었다. 《일전에 려단장동무가 보여준 그 그림들 말입니다. 그걸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중대에 가시면 꼭 보여드리는데 좋을것 같습니다.》

《예?》 석운룡은 너무도 큰 흥분에 목이 갈리는것을 느꼈다. 《그런것도 장군님께 보여드릴수 있습니까?》

《그건 단순한 속사나 소묘가 아닙니다. 아무때나 손에 잡을수 있는 간단한 연필로 즉석에서 교양적이고 선동적인 그림을 그린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전투적인 예술작품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병사의 참호에 심금을 울리는 시와 노래, 그림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그 병사의 그림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는 가슴이 벅찼다. 목소리도 갑절이나 더 크게

울리는듯 했다.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속하시였다.

《내가 오늘 그 그림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자는것은 거기에 피가 뛰는 병사생활이 있고 숨결이 있기때문입니다. 그 무슨 형식이나 기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은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리던간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것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녀성중대직관물을 보시고 높이 평가하신것도 군인생활을 참신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그림을 좋게 보셨기때문입니다.》

이런 전화가 있는 때로부터 얼마간 지나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3중대에 내려갔던 석운룡은 멀리 산기슭을 굽이도는 야전차 행렬을 띠여보았다.

행운에 대한 예감이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석운룡은 군복차림을 바로하고 황황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꿈만 같았다. 벌써 야전차는 오리나무 숲이 우거진 병영뒤 언덕길을 돌아 중대병영에 들어서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석운룡은 그이를 목메여부르며 허둥지둥 마주 달려나갔다. 아홉달만에 다시 만나뵈게 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며 려단장이 미처 인사도 올릴새없이 《잘있었소? 려단장동무!》하고 두손을 잡아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석운룡은 눈물이 글썽하여 울먹거렸다.

《다들 잘있었겠지.》

작년보다 펍 수척해지신 장군님의 모습을 뵈옵는 석운룡은 《저희들은 모두...》하며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이였다.

이어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인사를 드리고 려단장과 함께 장군님을 안내하였다. 그뒤로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따라섰다. 훈련장은 물론 병실과 식당, 세목장 등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중대가 싸움준비도 잘하고 생활도 알뜰하게 잘 꾸렸다고 만족해하시며 학습실에도 들리시였다.

마침이라고 생각한 석운룡은 준비해놓았던 환영진이 그린 연필화를 장군님께 보여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거의 10분나마 아무말씀없이 열두장이나 되는 수수한 연필화를 한장한장 다 번져보시였다.

《?!...》

수행원들모두가 그림에 눈길을 준채 긴장한 표정

으로 침묵을 지키였다.

이윽하여 석운룡려단장이 여덟번째에 놓인 연필화 《우리 중대 막내의 꿈이야기〈장군님 오셨다!〉》를 설명해드리려 하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오, 어데선가 본것 같은 그림이야!》라고 하시며 《이 그림을 누가 그렸소?》하고 물으시였다.

석운룡이 정중하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작년에 우리 부대 녀성중대에 오셨을 때 높이 평가하신 직관물을 그린 병사입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웁아, 작년에 그 녀성중대에 갔을 때 직관물을 보고 그림을 잘 그렸다고 평가했던 일이 생각나오. 그가 이곳 3중대 병사였는가? 그가 지금 어디에 있소? 만나보고싶구만.》

석운룡이 눈길을 떨구었다.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니?!...》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는 표정이시였다.

수원들중에서 누군가 장군님께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석달전에 소환되어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아쉽게 됐구만. 하지만 재간있는 미술가를 배출한건 이 부대의 자랑이요.》

그이께서는 다시 그림들을 보시였다.

《그림들을 참 잘 그렸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군인들의 생활세부와 사상감정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잘 반영되어있습니다. 연필화〈우리 중대 막내의 꿈이야기〉나〈우리 가족지원대〉와 같은 작품들은 현실속에서만 나올수 있습니다. 연필화〈정치위원동지와 1분대장동무의 합마경기요〉도 참 좋습니다. 황영진병사가 그린 그림들을 중대에만 두기는 아깝습니다.》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석운룡은 저도 모르게 한발 앞으로 나섰다.

《최고사령관동지! 이 그림들은 우리 려단의 재산입니다.》

실로 미옥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사실은 장군님께서 중대에만 두기엔 아깝다고 하신 말씀에 려단전체에 돌려가며 보이겠다고 말씀드리려 했던것이 그만 《려단의 재산》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 크게 웃으시였다.

《려단의 재산이란 말이지. ... 웁소. 석려단장이 보는 눈이 있거던. 수수한 연필화도 금덩이처럼 아낄줄 아니 말이요. 그래 이 그림들까지 내놓을 생각은 어떻게 했소?》



석운룡은 러질것 같은 기쁨에 청을 돌구어 말씀드리었다.

《사실 이 그림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먼저 보아주셨습니다. 그림을 보신 그이께서 이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중대에 오시면 꼭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소?》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시였다. 《그럼 그렇지. 우리 대장은 군사뿐아니라 첨단기술에도 정통하고 음악과 미술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 수재요. 그가 아니었다라면 이 그림들이 그냥 묻혀버릴번 했구만.》

그이께서는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였다. 이미 중대를 돌아본 군단지휘부의 일부 일군들은 얼굴이 벌거우리해진채 어쭙은 미소를 그리고있었다.

### 3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우에 퍼놓은 그림들을 다시 보고계시였다. 옆에는 총정치국의 한 일군이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열두장의 연필화를 예지가 번뜩이는 안광으로 일별하시며 손수 순서대로 번호까지 달아주시였다.

- ① 《정치위원동지와 1분대장동무의 합마경기요》
- ② 《보람찬 병사시절》
- ③ 《여기는 결전장이다!》
- ④ 《잊지 못할 전우》
- ⑤ 《7.27을 맞으며》
- ⑥ 《우리 가족지원대》
- ⑦ 《화선오락회》
- ⑧ 《우리 중대 막내의 꿈이야기 〈장군님 오셨다!〉》
- ⑨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 ⑩ 《그 어떤 원썬도 단매에 때려부시리》
- ⑪ 《병사시절! 〈장군님의 영원한 총대동지로 살리라〉》
- ⑫ 《명령만 내리시라!》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있는 총정치국일군에게 물으시였다.

《부부장동무, 그림이 어떻소?》

《예, 아주 좋습니다.》

《무엇이 좋다고 생각되오?》

《그림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였다.

《그림이 왜 재미있는가? 재미있다는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생활이 반영되어있기때문입니다. 병사생활을 랑만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했기때문에 이 그림을 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도 높이 평가하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이어 기억의 갈피를 더듬으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그림을 그린 병사는 입대전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언제인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는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기념 미술경연에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원들이 특별상과 금메달을 수여받았을 때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에 널리 소개되었는데 그때 그림공부를 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몇해전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때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이 국제미술경연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너무도 기뻐시여 사회주의제도가 좋으니 재간둥이들이 많이 난다고 하시며 그 그림들을 사진과 함께 신문에도 크게 내도록 하고 장자산소년단야영소에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제가 보기에 이 그림을 그린 병사가 자기의 생활체험을 그대로 반영한것 같습니다.》

부부장이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시였다.

《웁게 봤습니다. 병사생활을 체험한 군인만이 착상하고 그릴수 있는 화폭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대 막내의 꿈이야기〉는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군병사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사실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뵈고싶어하는 우리 인민군병사들의 꿈과 소원이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감동깊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다가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중대에 찾아가시였을 때 이 그림을 그린 병사를 찾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석달전에 소환되었다고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작년에 녀성중대 직관을 잘한 병사라면서 이번엔 꼭 만나시려고 했는데 참 아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장이 말씀드렸다.

《예, 그래서 말씀대로 그 병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동무를 새로 내오는 창작기관에 소환하자고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 반색하시였다.

《그 기관이야 총정치국 박부국장산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내 어제 최고사령관동지께 이 그림들을 가지고 전인민군적인 소묘열풍을 일으키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그림들을 다시 보면서 토론합시다.》

먼저 김정은동지께서는 관병일치의 질은 생활감정이 폭폭 안겨오는 연필화 《정치위원동지와 1분대장동무의 합마경기요》와 《화선오락회》를 가까이 당겨보시었다.

그것은 김정은동지께 류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킨 그림들이었다.

《감회가 깊습니다. 사람은 예술작품에서도 자신이 아는 생활을 볼 때 더 뜨겁게 받아들이게 되는 법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림의 주인공 병사가 부르는 노래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를 그림으로만 아니라 음악으로 듣고계시었다. 그 노래는 우리 병사들모두가 사랑하는 노래였다.

황영진병사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리는 병사화가의 소원이 더욱 절절하게 안겨오는것을 느끼시었다.

#### 4

키가 후리후리한 인민군총정치국 부국장이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철을 끼고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선것은 깊은 한밤중이었다. 그가 도착보고를 올리자 장군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었다.

부국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두분께서 서계시는 집무탁앞으로 다가갔다.

장군님께서 물으시었다.

《부국장동무, 석운룡소속부대에서 소환된 황영진병사라고 기억나오?》

부국장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기억납니다. 그 동무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 일한 경력도 가지고있습니다.》

《아, 그렇소? 그러니 적재적소에 왔구만. 잘 키워야겠소. 그가 중대에 기점으로 남겨놓은 이 그림들을 우리 대장이 가지고왔소. 신문에도 소개하고 화첩으로 만들어 중대들에 보내주려 한단데 그 병사미술가를 만날수 있소? 우리가 이번에 귀중한 싹을 발견했거든.》

부국장의 낯색이 줄지에 굳어졌다.

《지금은... 그가 없습니다.》

《없다니? 어딜 갔소?》

《아동미술이 발전한 나라에 가는 참관조에 망라시켰습니다.》

《그건 좋은 일인데... 허허, 내가 한발 늦어 또 꼬리잡이를 하는것 같구만.》

장군님께서 김정은동지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도 따라웃으시었다. 그러자 부국장이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면구스러운듯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장군님께서 혼연히 말씀을 이으시었다.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나 어린 녀학생의 서예솜씨를 보아주신 사실을 널리 보도하여 온 나라에 서예바람을 일구었었는데 이번에 이 그림들을 대대적으로 소개선전하면 연필화바람이 불게 할수 있소. 우리 대장이 제때에 아주 좋은 발기를 했소.》

김정은동지께서 말씀드리었다.

《이번에 인민군대는 물론 온 사회에 연필화바람이 일게 하고 그다음 연필화축전도 조직하자고 합니다. 연필화축전을 조직하면 선군시대의 사상정신 세계에 맞게 온 사회에 전투적인 분위기를 세우는데 한몫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미술도 사람들의 가슴에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울려주는 전투적예술로 될것입니다. 한편 대중의 창작적재능을 적극 조장계발시켜 많은 인재를 키워낼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군님께서 기뻐하시었다.

《그래, 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나팔소리처럼 울린단 말이지. 아주 좋소, 좋아!》

《그렇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부국장도 열결에 따라 외웠다. 오래동안 선전사업을 맡아보면서도 연필로 그린 그림이 나팔소리처럼 울린다는 말은 처음 듣는 부국장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격정에 넘쳐 말씀드렸다.

《그럼 먼저 우리 인민군대에서 연필화축전을 조직하였으면 합니다.》

부국장의 그 말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먼저 긍정 해주시었다.

《좋지, 무슨 일에서나 인민군대가 선참 기발을 들어야지!...》

김정은동지께서 또 장군님께 말씀드리시었다.

《장군님! 우린 이 그림들을 가지고 화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군님께서 석운룡려단장과 하신 약속대로 화첩을 그곳 려단뿐만아니라 군대안의 모든 부대들과 중대들에까지 보내줄수 있

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장군님의 그 말씀을 부국장은 곧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받아안았다. 그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마치 구령소리처럼 대답을렸다.

《알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다음날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국장과 함께 화첩편집안을 토론했다. 밤새 그림을 가지고 모색하면서 화첩의 제목이며 목차뿐 아니라 총적인 편성안도 세우지 못하고 모래길 부국장은 아침일찍 그이를 찾아왔던 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잃고계시던 《군사예술사》를 앞상우에 내려놓으셨다.

《좀 연구해보았습니다. 우리 병사생활의 교재로 될 화첩만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기대하시는대로 잘 만들어봅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근심이 앞서면서 마음이 조급해져 할수없이 귀중한 시간을 뺏는줄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불임성이 좋은 부국장이었지만 어지간히 송구스러워했다.

《아, 그러지 말고 어서 토론해봅시다. 우리가 만드는 이 화첩의 종자는 이 병사의 꿈장면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올리고나서 부국장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너무 서두른것 같습니다. 황영진동무를 조금만 늦게 떠나보냈어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만나보실수 있었을텐데...》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시었다.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꼭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부국장은 여전히 죄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전번에 장군님께서 부대에 가시여 그를 찾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황영진병사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가 복무하던 중대를 현지지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처럼 왕왕 울었다고 합니다. 석달만 늦게 소환됐어도 되는걸... 제가 장군님께도 황영진병사에게도 죄를 지었나봅니다.》

부국장의 눈시울이 벌거우리해졌다.

김정은동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시었다.

《우리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황영진동무와 언제 이든 꼭 가장 의의있고 뜻깊은 상봉을 하실것이니

다. 우리 힘을 합쳐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대로 그 날을 위하여 화첩을 잘 만듭시다!》

《알았습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부국장에게 화첩의 제목을 어떻게 달았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었다. 부국장은 인차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림의 전체 내용을 보면 본인도 두번째 그림과 열한번째 그림에 달아놓은것처럼 병사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부국장은 《병사시절》이라고 다는것이 어떤가고 자기의 소견을 내비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제목도 일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보다 《병사생활》이라고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시었다. 부국장의 뇌리에 그 말씀이 생동하게 살아들었다.

병사생활!... 이 얼마나 세심하고 정확한 분석인가. 병사들은 이 화첩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볼것이며 그렇게 살기를 지향할것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속히 화첩을 만들어 중대들에 보내주자고 하시는것이 아닌가!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수 연필을 드시고 화첩의 표지에는 《병사생활》, 우측의 맨밑에는 《그림 황영진》이라고 써넣으시었다. 그리고 목차의 순서도 병사들의 생활체험단계와 정신세계승화의 높이에 따라 몇개 바꾸어놓으시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출판에 넘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장 출판에 넘기겠습니다.》

부국장은 너무 좋아 기쁨을 금치 못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거수경례를 올리었다.

## 5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부국장은 김정은동지께 화첩 《병사생활》의 추진정형에 대하여 보고드렸다.

보고를 받으신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시었다.

《내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도 말했는데 화첩을 빨리 찍어야 하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사이 여러 군부대들을 돌아보시면서 세차례나 황영진병사의 연필화와 연필화축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 돌아오시는 즉시 화첩을 보여드릴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부국장은 확신성있게 대답올리었다.

《좋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돌아오시면 곧 보여드리고 석운룡려단장관하 중대들부터 보내줍시다.》

《알았습니다!》

다음날 동부지구 전연구분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고 장군님께서 김정은동지를 만나시자 그간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후 황영진병사의 연필화첩추진정형도 알아보시었다.

《화첩이 다 댕습니다. 방금전에 박부국장동무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 그럼 부국장더러 가져오라고 해야지. 그런데… 주인공인 황영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

《예, 아직… 그래서 부국장동진 자기가 너무 서둘렀다고, 최고사령관동지와 황영진병사앞에 죄를 지었다고 후회하고있습니다.》

《무슨 소릴… 일을 앞당겨하는거야 좋은 일이지.… 해외출장은 쉽지 않은데 갔던바엔 많이 보고 오는것이 좋소.》

이렇게 말씀하시며 장군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었다.

얼마후 당선전부 책임일군과 부국장이 흰 보자기에 연필화첩 《병사생활》을 싸들고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들은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드리고 집무탁우에 보자기를 풀어놓았다.

김정은동지께서 《병사생활》이라는 화첩의 제목과 목차, 편성내용을 설명해드리시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장군님께서 매 페이지의 그림을 하나하나 여겨보시었다.

《화첩을 특색있게 잘 만들었소. 제목도 좋고 편성도 잘했고 바탕색갈도 연필화첩의 특성에 맞게 잘 선택했소. 석운룡려단장관하 중대들에 먼저 보내주고 점차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들에 내려보내주도록 하여야겠소. 그러면 그림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보는 병사들이 무척 좋아할거요. 인민군대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연필화바람, 소묘열풍이 더 세차게 일게 될거고… 우리 대장이 말한것처럼 음악과 함께 연필로 그린 그림도 총진군의 나팔소리로운 나라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요. 동무들, 어떻소?》

《예, 그렇습니다!》

다음순간 일군들모두가 일시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마음속 감사의 인사를 올리었다.

장군님께서 계속하시었다.

《앞으로 연필화축전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을 내놓은 군인들에게는 등수를 정하고 시상도 해주어야겠소. 그리고 황영진동무에게는 화첩과 화구를 보내줍시다. 그가 돌아오면 자기가 복무하던 중대에 가서 전달받도록 하여야 하겠소. 그래야 그가 병사생활을 잊지 않을것이며 다른 군인들

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수가 있습니다.》

장군님의 그 말씀에 모두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장군님께서 기쁨이 어린 안색으로 김정은동지를 바라보시다가 집무실 한구석에 놓여있는 록음기로 가시어 단추를 누르시었다.

노래가 울려나왔다. 선군시대 우리 군민 누구나 다 좋아하는 노래였다.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한  
가슴에 총안고 전호에 썼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노래소리에 흥분을 건잡지 못하던 부국장이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다가서며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제가 화첩에 신경을 쓰던 나머지 한가지 보고드리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뭔데?》

장군님께서 명상에 잠긴채 반문하시었다.

《래일부터 4.25문화회관에서 연필화전람회가 성대히 열리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기하시여…》

《아! 그렇소?!》

장군님께서 만면에 해빛같은 환한 미소를 담으시며 만족을 표시하셨다.

부국장은 어려움도 가뭇이 잊고 무릅없이 또 한가지 더 건의하였다.

《장군님,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황영진동무를 부르는것이 어떻습니까? 그의 소원은 〈우리 중대 막내의 꿈이야기〉였는데…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이런 영광의 자리에 그를…》

부국장은 목이 꺾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음… 내가 부국장동무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소!》

장군님께서 의미깊은 눈길로 김정은동지를 돌아보시었다. 그러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밝은 미소를 띄우며 부국장에게 말씀하시었다.

《부국장동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창작가의 작품은 창작가 그자신입니다. 황영진병사의 작품은 장군님께서 일곱번이나 보아주셨고 그에 대해서도 일곱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신과 온넋이 그대로 깃든 그림을 통하여 오늘까지 위대한 장군님과 일곱번 상봉을 하였습니다. 참류다른 상봉입니다. 그이상 의의있고 뜻깊은 상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 하나라도 더

주체100(2011)년 3월 16일, 이날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평양시남새전문협동농장 지구에 대규모의 남새온실을 건설하여 시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다음해에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내놓는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의아한 심정으로 서로 마주보았다.

이미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보다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기 위한 계획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였었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보다 더 좋고 훌륭한것을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만싶으신 장군님이시기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이 반영되였어도 그에 만족하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지들도 계속 꾸려나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이미 말한대로 평양시에 콤포더판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콤포더판을 건설하면 우리 인민들 특히 청소년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콤포더판을 룡라도에 건설하는 안과 대성산지구에 건설하는 안이 제기되였는데 룡라도에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룡라도에 유희장과 물놀이장을 꾸릴것으로 예견하고있는

것만큼 콤포더판도 거기에 건설하는것이 좋다고, 콤포더판을 대성산지구에 건설하여놓으면 거리가 멀어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들수 있지만 룡라도에 건설하면 그곳은 교통조건이 좋기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것이라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기지를 꾸려줄 구상을 하시면서 그것을 리용할 사람들의 교통조건까지 넘겨하시는 아버이장군님.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곱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속에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콤포더판 아니라 백곰과 참대곰, 펭귄새도 들여오도록 하여야 한다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리르며 북받치는 걱정으로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하나라도 더 좋은것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수천리 먼길을 가시고 하나라도 더 훌륭한것을 보태주시려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군님.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좋은것을 안겨줄수 없겠는가를 탐구하시며 심원한 사색의 바다를 건느시는 그이의 모습은 일군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던것이다.

하나라도 더, 하나라도 더!

이렇게 시작된 위대한 사랑의 대하속에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들이 천이 되고 만이 되어 온 나라를 짝 뒤덮으며 인민들에게 만복이 차례지는것이 아닌가.

김정은동지의 그 음성은 높지 않았으나 불같이 뜨거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아쉽게 흐르던 감정은 씻은듯 사라지고 집무실의 분위기는 더 후더워졌다.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담고 말씀하시였다.

《일곱번째 상봉이라!... 참 좋은 말이요.》

순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던 부국장과 당선전부 책임일군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 힘주어 박수를 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박수를 치시였다.

록음기에서 나는 노래소리도 끝없는 정서를 돋구어주며 고조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시는 노래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였다.

어언 부국장의 눈에서는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

아 행복넘쳐라 총잡은 이내 가슴

장군님 가까이엔 내가 산다네 병사가 산다네

노래는 계속되였다. 사람들의 가슴을 기쁨과 랑만으로 뜨겁게 울려주는 병사의 노래, 정의 노래, 행복넘친 생의 노래였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가 작품의 핵으로 되는 근본요인은 그것이 작품에 반영된 생활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사상적알맹이이라는데 있다. 만일 그 사상적알맹이가 없으면 작품에 반영된 생활은 죽어버리게 되고 형상은 빛을 잃게 된다. 그 사상적알맹이는 작품에 반영된 생활의 생명이며 핵이다. 그러므로 종자는 작품의 형상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규제하고 통일시키며 이끌어나가는 유일한 중심으로 된다.

실천적경험은 작가의 창작과정과 작품의 형상체계안에서 종자가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는가 하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작품에서 모든 형상요소는 종자를 꽃피우는데 한결같이 맞물려지면서 하나의 전일적인 화폭을 이룬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종자를 기초로 하여 통일되며 그 사상성과 예술성도 종자를 바탕으로 하여 결합된다. 종자야말로 작품의 기본핵이다.》

### 그 속 에 나 도 한 그 루

김  
경  
석

잔뿌리 상할세라 애지중지  
목이 마를세라 물을 주며  
한그루 또 한그루 정을 쏟으며  
나무를 심어가는 이 봄날

눈앞엔 어려와라  
몇해전 이 봄날  
병사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

품소 구멍이도 파시고  
물도 부어주실 때  
그이의 손길아래 새삶을 받은것은  
한그루... 또 한그루  
푸르러 설레이는 나무만이었던가

우리 장군님 한평생  
품에 안아 더웁혀오신 내 나라 산천  
장군님처럼 그렇게  
가꾸고 빛내여갈 크나큰 뜻이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뿌리를 내렸거니

어서어서 자라거라  
어서어서 자라 꽃피고 열매 주렁져  
내 고향의 아름다움 빛내거라  
붉은넥타이 아이들까지  
고운 꿈 물어가는 저 모습에  
푸르름은 더더욱 짙어가는듯

아, 원수님 안겨주신 김정일애국주의  
그처럼 높고도 심원한 뜻을 지녀  
무성하는 숲처럼  
무성하는 창조의 숲을 펼치며  
나날이 새롭게 눈부시게 빛을 뿜는  
강성해가는 내 조국이어

나무를 심는다  
경애하는 원수님 손길아래  
열혈의 애국자들이 숲을 이루는 땅  
그속에 나도 한그루  
삶의 위치를 정하고싶어...  
삶의 모습을 빛내고싶어...

가 사

### 그이 품에서 알았네

문 기 창

내 심장의 더운 피도 그이가 주셨고  
참다운 나의 삶도 그이가 주시였네  
아 장군님품에서 내 부모를 알았고  
아 장군님품에서 내 고향을 알았네

내 운명의 밝은 해빛 그이가 주셨고  
전사의 탈걸음도 그이가 떼주셨네

아 장군님품에서 조국을 알았고  
아 장군님품에서 혁명을 알았네

마음속엔 산악같은 신념이 되시고  
내 한생 빛내주신 은인이 되셨네  
아 장군님품에서 충정을 알았고  
아 장군님품에서 참된 삶을 알았네



김 자 경

바람이 불어왔다.  
푸르른 호수의 잔잔하던 물면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해빛을 받아 유난히도 반짝거린다.

오리공장 기술준비소 소장 유상훈박사는 아득히 펼쳐진 호수가를 둘러보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떠나는 전쟁로병들을 배태우고 공장 호수가로 나온 박사였다.

푸른 호수와 더불어 가금업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발전하여온 공장...

전번의 나날을 더듬던 유상훈박사의 눈앞에는 한 전쟁로병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1

《정남아! 너 정남이 맞지, 응?》

낮모를 사람이 어린 상훈의 팔을 덥석 잡았다.

《아버지이름은 박수길! 옳지?》

길쭉한 얼굴에 반백의 머리로 하여 나이를 짐작할수 없는 그 사람은 석션한 목소리로 그냥 다우쳐물었다.

책방앞에 세운 새책소개관을 올려다보던 상훈은 크고 두툼한 손에 잡히운 자기의 팔을 고집스레 비틀어 뽑았다.

《난... 아니예요.》

《아니라니? 신동히 아버지모색인데, 분명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아니란데두요. 난 상훈이에요, 유상훈이.》

《유상훈? 그럼 나와 성이 꼭같구나.》

그의 눈가에선 기쁨이 불꽃처럼 반짝이었다.

그는 걸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래 너의 집은 어디냐? 같이 가보자.》

상훈은 마뜩지 않은 눈찌로 사나이를 힐끔 치며 보고는 코바람을 내뿜며 픽 돌아섰다.

그는 집과 부모에 대하여 묻는걸 제일 싫어했다.

미제놈들폭격에 어머니를 잃고 전선에 나갔던 아버지마저 돌아오지 못하여 육아원을 거쳐 학원에서 생활하고있는 그였던것이다.

《애야! 애!》

사나이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리었다.

상훈은 귀찮게 따지고들던 그 사람쪽을 돌아보지 않고 달리다싶이 하여 학원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원장선생님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에 들어서던 그는 깜짝 놀랐다.

반백의 머리에 걸걸한 목소리가 인상적이던 그 사람이 원장선생님과 마주앉아있는것이 아닌가.

《이 학생이 옳은가요?》

원장선생님이 물었다.

《예, 이 앤 내 조카입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그 사람은 상훈의 얼굴에 눈길을 박은채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원장선생님이 인정미 흐르는 동그스름한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상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상훈이, 이분은 상훈이 큰아버지예요.》

《?!》

상훈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크지 않은 눈을 치르고 원장선생님과 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상훈인 이제부터 큰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큰아버지네 집은 오리목장이 있는 경치좋은 호수가마을이에요.》

상훈에게는 이미 원장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언제나 친혈육의 정을 그리워하고 정다운 집을 그리워하던 그에겐 오직 집과 큰아버지라는 두 단 어만이 기억될뿐이었다.

큰아버지? 나에게도 큰아버지가 있었던 말인가?

상훈은 눈물이 나도록 기쁘기도 하고 낯선 그 모습에 선듯 마음이 끌리지 않아 그저 멍하니 쳐다 보기만 하였다.

큰아버지는 크게 머리를 끄덕이며 다가섰다.

《그래, 내가 너의 큰아버지다. 그러니 이젠 나와 함께 살자.》

그는 마디 굵은 손으로 상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큰아버지!》

상훈은 입속으로 조용히 불려보았다.

얼마나 친근한 부름인가. 그러면서도 생소한 부름이었다.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배려움을 받으며 학원을 떠날 때에도, 오리목장이 자리잡은 호수가마을에 들어설 때에도 그에겐 여전히 서먹하고 야릇한 감정 뿐이었다.

《자! 여기가 우리 집이다.》

저녁무렵 쪽대문을 한 마당가에 들어서면서 큰아버지가 하는 말이었다.

크지 않은 두칸짜리 살림집에 들어서니 아랫, 윗방에서 식구들이 모여들었다.

큰아버지는 집식구들을 소개하였다. 영옥이, 영실이라고 부르는 누나들과 동갑나이 영순이, 막내 동생 영강이와 몸매작은 큰어머니...

그날 저녁 네살아래인 영강이와 한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에야, 파사하면서도 보드라운 동생의 살갗이 자기의 몸에 와닿고 굳잠든 그 애의 더운 입김이 간질간질 목덜미를 간지럽혀서야 상훈은 눈앞의 현실이 정녕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 나에게도 집이 있구나!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누나와 동생도 있구나!

느닷없이 뜨거운것이 울적 치밀어올랐다.

열세살만에 찾은 행복이 너무도 크고 감격해서였다.

다음날 상훈은 누나들에게서 큰아버지의 이름이 유진섭이라는것과 전쟁시기에는 호랑이분대장으로 용감히 싸웠다는것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고향마을인 여기 호수가에 포연내 그슬린 배낭을 풀고 고기생산을 시작한 공장의 첫세대이며 지금은 비육작업반 반장이라는것도 기쁨과 긍지속에 들었다.

그러나 생활은 그 기쁨과 긍지속에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다.

소심한편이면서도 울퉁불퉁이 세고 거친 성미인 상훈은 이따금 동갑이인 영순이와 장난세찬 영강이와 다투곤 하였다.

그때마다 집안에는 싸늘한 공기가 흘렀다.

큰어머니와 누나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야 남자가 아니냐? 그러구 형님인데 네가 좀 참으렴.》

상훈이 남자답고 형님답게 참고 양보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었다.

결국 상훈은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한 문제풀이에서 공통분모였다.

흥! 언제봐야 내 편은 안 드는구나. 내가 친자식이 아니구 친동생이 아니어서 그럴거야...

그는 뺨이 팔려 저 혼자 툭툭거리었다.

큰아버지만은 말수더구가 적고 무뚝뚝하였어도 상훈을 볼 때마다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무엇이 하나 생겨도 자식들 몰래 그의 손에 쥐여주곤 했다.

했으나 마음은 점점 설통해지고 집에 대한 정도 떨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학교를 졸업한 상훈은 큰아버지의 요구대로 오리목장에서 사회생활의 첫자욱을 떼었다.

해방전 감탕내만 풍긴다고 《감탕포》, 《눈물의 호수》로 불리우던 호수가의 오리목장.

민족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은 나라가 피의 결사전을 벌리던 그때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태어난 오리목장은 이 호수를 떠나 생각할수 없었다.

상훈은 처음 비육작업반 수리공으로 일했다.

그러나 말이 수리공이지 그가 하는 일이란 기껏 사료마대를 축사에 날라가고 오리배설물을 처내는 따위의 잡부노릇이었다.

상훈은 일에 성수가 나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상훈의 일손도 말없이 도와주며 일의 묘리도 가르치곤 했지만 달갑지 않았다.

자기도 다른 동무들처럼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이라든가 날바다를 헤가르는 원양선단으로 달려가 청춘의 더운 땀을 유감없이 바치고싶었다.

그럴수록 자기를 오리목장에 얹어매려는 큰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꾸역꾸역 연기처럼 차올랐다.

오리통두업속에 청춘의 푸른 꿈을 묻어두다니? 그런데도 뭐 여기가 좋다구?

그는 이따금 큰아버지의 말을 되새겨보며 코방귀를 뀌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 상훈은 온종일 먹이용술일을 채취하느라 병풍산에 올랐다가 어느때보다 일찍 퇴근하였다.

집에 들어오니 영강은 어디서 왔는지 온습도계를 가지고 놀고있었다.

상훈은 그것이 알깨우기작업반에서 일하는 영순의 사품속에서 영강이가 몰래 꺼낸것인줄 몰랐었다.

흥미있는 과학상식책을 펼쳐들었던 상훈은 눈살을 찌프렸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부산스레 드나들며 웃고 떠드는 영강의 손에서 온습도계를 나꾸



어렸다. 그런데 아뿔싸...

땅바닥에 떨어진 온습도계는 그만 박살나고말았다.

성미 앵공한 영순은 알깨우기실의 온습도를 어떻게 조절하겠는가고 하며 쿵쾅거리더니 저녁밥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다.

집안의 분위기는 또다시 팽팽해지었다.

큰어머니와 누나들은 아이들처럼 무슨 장난질인가고 상훈을 질책하였다. 온습도계를 몰래 꺼내어 장난한 영강에게는 한마디 추궁의 말도 없이...

상훈은 저녁상으로 이끄는 큰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옷방에 올라가 벌렁 누워버렸다.

온종일 술일을 따느라 배가 몹시 고했지만 술가락을 드는것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것처럼 굴욕적인것으로 느껴졌던것이다.

그날 밤 푹잠에 들었던 그는 아래방에서 들려오는 큰아버지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나도 저 애가 내 조카도 아니고 또 내 무릎에서 눈을 감은 박동무의 아들도 아니란걸 모르는게 아니요. 처음엔 박동무의 모습과 신통히 같아서 그의 아들인줄 알았지.》

순간 상훈의 머리는 가을하늘처럼 창창 밝아지었다. 이윽고 다시 이어지는 목소리...

《하지만 저녀석은 나에게 늘 박동무와 전우들의 모습을 생각해 해준군 하오. 쓰러지면서도 승리한 패일을 그려보던 전우들을 말ियो.

그래서 난 더더욱 힘을 가다듬군 하오.

아마 저녀석도 박동무처럼 그렇게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어느 전사의 아들일게요. 그러니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난 그래서 나와 성이 똑같은걸 다행스럽게 생각 하오. ...》

상훈은 튕겨나듯 일어나앉았다.

결국 난 이 집과 아무 인연도 없구나! 친혈육도 아닌 완전 남남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나가야 한다. 남남인데야 무엇때문에 여기에서 살겠는가.

합숙에 나갈테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목장에서 도 떠나갈테다. ...

정작 이 집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 왈칵 울음이 터져나왔다.

상훈은 자기가 어떻게 옷방문을 열고 큰길에까지 나왔는지 잘 생각하지 않았다.

아! 나에겐 정말 집이 없단 말인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없는 외토리란 말인가. 갈 곳 없는 이 신세...

상훈은 별이 웃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 2

상훈은 끝내 합숙으로 나오고말았다.

그리고 큰아버지라는 부름대신 반장동지라는 새 부름말을 썼다.

상훈이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유진섭반장은 누구에게서 꾸중이라도 들은것처럼 얼굴이 벌개지었다. 그는 반백의 머리를 괜히 손뼉질하였다.

중년의 나이에 비해 일찌기 머리가 센 반장이 따분하거나 속상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었다.

상훈에게도 그 부름말이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모질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상훈이!》

반장이 작업장으로 나가는 그를 불러세웠다.

《너는 지금 날 멀리하는구나. 하지만 난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갔어도 너를 절대로 남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넌 언제나 내 혈육이구 또 우리 전우들의 자식이야.

합숙생활이 싫으면 아무때건 우리 집에 다시 오너라.》

머리를 수긋하고 서있던 상훈은 아무말없이 돌아섰다. 따뜻한 정과 한없이 서운한 마음이 담겨진 반장의 눈빛을 모질게 외면하고...

그는 작업장으로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다시 오라고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나요?

난 지금 반장동지를 원망합니다.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부모없고 집없는 설움을 지금처럼 뼈아프게 절감하지 않았을게 아닙니까? 난 여길 떠나겠어요. 어느때건 이 목장을 떠나겠어요.

상훈은 눈굽이 달아올라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그날도 상훈은 반장의 아침지령에 따라 수리공들과 함께 호수가에서 먹이용감탕을 실어날랐다. 겨울철에 얼음을 꺼내고 채취하였던 감탕을 호통마다 실어주니 사양공들은 짹짹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다.

하루일을 넘쳐한 기쁨과 사양공처녀들의 칭찬에 마음이 즐거워진 총각들은 통나무에 걸터앉아 휴식을 하고있었다.

이때 갈끔질로 유명한 그들의 눈에 인물곱고 일썹씨 알뜰한 사양공 청실이가 걸려들었다.

눈같이 하얀 위생복에 파란색장화를 가쁜히 올려신고 야외놀이장을 오가며 오리들 돌보는 몸매 날씬한 처녀는 오리합창단의 음악에 맞추어 출연한 무용수같았다.

《청실동무! 책임사양공이 됐다면서? 꽤 발전했는데?》

《너무 빠가지 말라구! 그러다가 눈이 뒤머리에 붙으면 어쩌겠나? 뒤로 건자구?》

총각들은 와하~ 웃음보를 터뜨렸다.

청실의 눈은 깔끔해졌다.

《조용해요! 오리들이 놀라겠어요!》

처녀의 새초롬한 눈빛을 띄어본 총각들은 더욱 신바람이 나서 웃고 떠들었다.

《청—실! 흥—실!》

《흥—실! 청—실!》

봄빛이 따스한 놀이장에서 평화롭게 노닐던 오리들이 총각들의 웨침소리와 웃음소리에 놀라 박박갈갈 울어대며 한켠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청실은 안타까와 어쩔줄 몰라하였다.

《정말 조용하지 못하겠어요?》

처녀는 흘겨보는듯 한 눈길로 한동안 총각들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서 이상한 광채가 반짝이었다. 이윽고 청실은 책 돌아서더니 수채에 놓여있던 물호스를 번쩍 쳐들고 휘둘렀다.

순간 총각들의 머리위로 물이 날아왔다.

《청실이! 그만… 그만…》

지금껏 총각들의 입씨름에 끼우지 않고 한켠에 돌아앉은 상훈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석개울의 새봄》을 읽고있었다.

그런데 이 무슨 물벼락인가.

깜짝 놀란 그는 얼결에 책을 머리위로 쳐들었다.

청실은 호스의 아구리를 눌러 물압을 조정하며는 한번 깜빡하지 않고 뱃다 물을 쏘아댔다.

멋진 물총사격이었다.

순간에 총각들은 모두 물독에 빠진 생쥐모양이 되고말았다.

《거참 시원하겠군. 잘했어! 팬히 오릴 놀래우구 처녀 놀리더니… 정말 잘했어!》

호동을 돌아보던 유진섭반장은 총각들의 물골을 보고 꺄꺄 소리내어 웃었다.

총각들은 메사해져서 저마끔 흩어져갔다.

그러나 상훈은 속이 뒤틀려 견딜수 없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고 말리기는커녕 처녀를 역성드는 반장의 처사가 못마땅스러웠다.

물젖은 책을 보니 더욱더 분기가 뻗쳐올랐다.

외롭고 쓸쓸한 그의 생활에서 책은 유일하고 변함없는 벗이었다. 그런데 책을 이 지경이 되게 하다니…

상훈은 옷자락을 쥐어짜며 청실의 호동에 뛰어 들었다.

《자! 이걸 변상하오, 당장!》

그는 물젖어 늘어진 책을 처녀의 발치에 찰싹 내던지었다.

크지 않은 그의 눈은 분기가 올라 번득이었다.

걸핏하면 당장 주먹행사라도 할 자세였다.

당돌하고 태연하던 처녀의 눈빛은 일순 굳어지었다. 그는 조심히 책을 집어들었다.

《동무에겐 참 안됐군요. 저… 이 책은 제가 잘 손질해드리겠어요.》

사죄의 마음이 담긴 처녀의 말에 상훈의 마음은

좀 누그러졌다. 그는 어디 두고보자는 심산으로 말없이 처녀를 치며본 다음 그곳에서 나왔다.

상훈은 그때 청실의 호동에 들어서던 반장이 한켠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줄 모르고있었다.

다음날 퇴근하여 호실로 들어가던 그는 합숙관리원이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녀인은 턱짓으로 앞마당을 가리키었다.

찾아온 사람은 청실이었다. 합숙 앞마당 버드나무아래 서있던 처녀는 무릅없이 상글상글 웃으며 다가왔다.

《난 동무가 합숙생인줄 몰랐군요. 자요.》

그는 레사로운 태도로 책을 내밀었다.

책을 받아든 상훈은 은근히 놀랐다.

책표지까지 곱게 한 책은 언제 젖었던가싶게 새것처럼 반듯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본듯 처녀는 방긋 웃었다.

《다리미로 한장한장 말리웠지요 뭐.》

《다리미로?》

상훈이 되묻는 말에 처녀는 귀염성스럽게 아래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이윽고 그는 들고있던 보따리를 상훈에게 안겨주었다. 상훈은 얼결에 그것을 받아안았다.

《저… 앞으로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 찾아오세요. 그리구… 또… 빨래감이 생겨도…》

청실은 말꼬리를 흐리며 대신 방긋 웃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할듯 하더니 인츰 가버렸다.

호실에 들어와 보따리를 헤쳐본 상훈은 깜짝 놀랐다. 거기엔 속옷 한벌과 장갑 그리고 뜨개양말 두켢레가 정히 포개져있는것이 아닌가.

처녀의 다심하고 살뜰한 인정에 상훈의 마음은 몽클 젖어들었다.

### 3

상훈은 요즈음 성수가 나서 일했다.

이곳을 떠나려 했던 그였지만 청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 생각을 싹 잊고 성실히 일하였다.

처녀에 대한 정은 놀랍게도 자기가 일하는 목장에도 정을 붙이게 하였던것이다.

그는 오리에게도 류다른 관심을 가지었다.

귀찮게만 들리던 울음소리가 노래소리처럼 정답게 들리고 코살을 찡그리게 하던 축사안의 냄새까지도 싫지 않게 느껴지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상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리들의 생육조건과 먹이에 대하여 열심히 관찰하였다.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으로 크고 살진 오리를 많이 키우고싶었다.

그러나 축산에 대하여, 더우기 가금에 대하여 일반상식밖에 없는 그는 엄중한 사고를 저질렀다.

제판에 봄철부터 많이 생기는 오리장막염을 치료

한답시고 슬파민체를 잘못 주사하여 스무마리나 되는 오리를 하루밤새 죽였던것이다.

《이럴 땐 어쩔 좋아요?》

상훈과 《공모》하여 자기 호동의 오리를 죽인 청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었다.

정말 이럴 땐 어찌면 좋단 말인가.

상훈은 벽에 이마를 짓찧은듯 눈앞이 아득해지였다.

제일먼저 달려온 사람은 유진섭반장이었다. 그는 큰 눈을 디룩거리며 호동안을 돌아보았다.

광물질부족으로 다리를 저는 오리들에게 자체로 만든 먹이를 먹이면서 치료를 한답시고 발목에 검은띠를 감아 표시도 해놓고 머리우에 빨간 물감도 들여서 갈라놓은 호동 한천의 시험오리들을 그는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그는 상훈의 앞에 다가왔다.

《그래 어떻게 했대구?》

첫 물음부터 간담이 서늘했다. 이젠 죽었구나... 어깨를 떨구고 서있던 상훈은 떠듬떠듬 사연을 말하였다.

《그래서 오리 죽였던 말이지, 음...》

잠시후 그는 말없이 호동을 나섰다.

그날 저녁 작업총화시간에도 반장은 오리를 무리 죽음시킨데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양공들이 한마리의 오리라도 죽이면 크게 떠들고 사건화하던 그가 이번엔 어찌된 일인가.

상훈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했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 상훈은 당위원장 이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슴이 후두두 떨리었다.

오리를 무리죽음시킨 그 일이 이제야 상정되어 문제시된것이 분명했다.

상훈은 육고집에 들어가는 황소걸음으로 작업반을 나섰다. 그런데 그가 받은것은...

《자! 대학추천서요. 우린 동물 대학에 보내서 공부시키기로 했소. 입학시험준비 잘하오.》

(대학? 그럼 나를 대학에 보낸단 말인가?)

상훈은 엉거주춤 일어나 당위원장이 내미는 추천서를 받았다.

멋진 꿈을 꾸는것 같았다.

사연은 어떻게 기쁘기 그지없었다.

당위원장의 방을 나선 그는 청실의 호동으로 내달렸다.

(아마 깜짝 놀랄거야.)

어느덧 그가 일하는 호동에 들어서니 먹이준비를 하던 청실이가 위생복앞자락을 나풀거리며 경쾌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상훈은 말없이 추천서를 쑥 내보였다. 그런데 손벽이라도 칠줄 알았던 처녀는...

《받았군요.》

(그럼 벌써 다 알고있었는가?)

《동문 어떻게 이걸 받았는지 다 모르지요?》

추천서를 이윽도록 내려다보던 청실은 자못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동문 반장동지 아들대신 이걸 받은거예요.》

《그럼... 영강이 대신에?》

깜짝 놀란것은 상훈이었다.

청실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글쎄 반장동지가 몇번이나 당위원장동지를 찾아가서 동무에겐 남다른 탐구심이 있구 또 앞으로 목장의 기동감이 될거라고 했대요. 그리구 아들대신 동물 대학에 보내겠다고 했는지 않나요.》

그뿐인줄 알아요?

반장동진 그때 우리가 죽인 오리대신 집에서 기르던 집짐승들을 몽땅 팔아서 그 값을 물었다는군요.》

《그게... 정말이요? 누가 그래?》

상훈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어머니가 반장동지 아주머니한테서 다 들었대요.》

《?!》

《언젠가 내가 합숙에 가져다준 내의와 양말도 사실은 반장동지가 보낸거예요. 동무가 괜히 엇드레질하면서 반지 앓을가봐 말하지 않은거지요 뭐.》

그때 반장동진 날더러 동물 잘 도와주라고 몇번이나 당부했는지 몰라요. 성실하구 탐구심이 남다른 좋은 청년이라고 하면서 말이예요.》

처녀의 말 한마디한마디는 그대로 인정과 사랑의 대하처럼 상훈의 가슴에 흘러들었다.

그 인정과 사랑의 물결에 떠밀려 상훈은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난 그런줄도 모르고...

그의 가슴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도랑물처럼 흘러들었다.

드디어 꿈결에도 가고싶던 대학으로 떠나는 날이 왔다.

작업반사람들이 마련해준 새 양복과 신발을 신은 상훈은 유진섭반장과 소달구지우에 나란히 앉아 역으로 나갔다.

반장은 어느때없이 싱글거리며 호기있게 회초리를 휘둘렀다.

역이 가까와졌을 때 상훈은 머뭇머뭇 말꼭지를 떼었다.

《저... 영강인 나때문에...》

그는 말꼭지를 여물कु지 못하였다.

《무슨 소릴? 그녀석은 아직 안돼. 멀었거던. 그러니 자네가 대학에 가는거야 웅당하지.》

반장의 말은 길지 않았다.

역에 나오니 청실이랑 작업반사람들이 모두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저저마다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안겨주며 상훈을 배려주었다.

기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반장은 자못 대견한

눈빛으로 상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자네의 손을 잡고 학원을 떠날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젠 다 자라서 대학엘 가누만...》

상훈은 목이 메여와 눈길을 떨구었다.

《상훈이, 공부 잘하라구. 그래서 이다음 꼭 오 리박사가 되라구.》

기적소리와 함께 열차원들의 야무진 호각소리가 역구내에 울려 퍼지었다.

상훈은 알각 울음이 터질것 같아 입술을 옥물고 공공 갑자르기만 하다가 인사말도 못하고 기차에 올랐다.

떠나는 기차와 함께 걸으며 손을 짓는 반장과 작업반사람들을 승강대에 서서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푸른 신호등이 켜진 역구내를 벗어난 기차는 속력을 내어 달리었다.

상훈은 눈물을 닦을념 않고 멀리 목장이 자리잡은 호수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푸른 물결 아름다운 호수가 정든 땅아! 난 너를 내 고향이라고 부른다. 내 그 어딜 가도 언제나 너를 잊지 않오마. 그리고 다시 돌아와 너를 위해 한생을 다 바치마!

#### 4

대학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보람차고 즐거운 날들이었다.

향학열로 가슴 불태우던 상훈은 아름다리거목이 왕성하고 즐기게 자양분을 빨아들이듯 지식의 늪가에 뿌리를 깊이 박고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 노력은 얼마나 크고 달디단 열매를 안겨주었던가.

그는 첫 학기부터 학급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최우등생이 되었다. 그 자랑, 그 기쁨이란...

하지만 방학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자랑과 기쁨으로 부풀었던 마음은 바람새는 풍선처럼 되고 말았다.

(모두가 방학이 돼온다고 기뻐하는데 난...)

집없는 설움, 고아의 설움이 또다시 가슴 한복판을 아프게 할퀴었다.

학급동무들은 그에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이끌었다.

그때마다 상훈은 사촌누이가 있으니 거기에 가겠노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더욱 구슬퍼지었다.

사실 못 견디게 가고싶은 곳은 목장이었다.

자기를 대학으로 보내준 반장과 작업반사람들을 만나고싶었고 청실이와 함께 오리를 돌보며 밤을 새우고싶었다.

그를 도와 허리가 시큰하도록 호수가의 얼음을

까내고 감탕도 퍼내고 사료마대도 썰썰 날라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예라! 그동안 기숙사에서 공부나 실컷 해야지.) 하고 그는 애써 마음을 돌려먹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조용한 기숙사에서 책을 읽던 상훈은 문기척소리에 일어섰다.

무심결에 호실문을 열던 그는 우뚝 굳어졌다.

뜻밖에도 문가엔 유진섭반장이 서있는것이 아닌가.

《반장동지!》

그는 반장의 손을 와락 모아 잡았다.

너무도 기쁘고 반가와서 눈물이 절끔 나왔다.

그런데 반장은 큰 눈을 똑 부릅뜨고 서서 대바람옥을 퍼붓는것이 아닌가.

《이녀석아! 설날이 코앞인데 집엔 오지 않구 여기서 뭘해? 청실이랑 모두 눈빠지게 기다리는 데.》

상훈은 그만 목을 움츠르르렸다.

《가자! 너의 집은 우리 작업반이구 우리 목장이야!》

반장은 무슨 도주병이라도 잡으러 온듯 서슬이 퍼래서 그냥 평평 으름장을 놓았다.

상훈은 찝소리 못하고 대학을 나갔다.

《넌장, 새벽에 떠났더니 출출하군.》

역에 나온 반장은 제견에서 두덜거렸다.

그는 기차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밥이나 먹자고 역구내식당으로 상훈을 이끌었다.

식당안은 혼 혼하였다.

접대원에게 뜨끈한 명태국 두그릇을 청한 반장은 배낭속에서 밥꾸레미를 꺼내어 상우에 퍼놓았다. 그는 주먹만 한 삶은 오리알을 상훈의 손에 덥석 쥐여주었다.

《청실이가 꾸려준거야. 아무리 못난이라도 밥은 먹여서 데려오라나.》

반장은 많이 먹으라고 수저를 쥐여주었다.

그러나 상훈은 자꾸만 목이 메여와 수저를 움직이지 못하였다.

반장은 시뭇이 웃으며 시까슬렸다.

《최우등이랑 했다는 녀석이 못나게스리...》

그들이 목장마을에 들어선것은 저녁어스름이 슬 몇몇몇 깃들기 시작할무렵이었다.

집마당에 들어서니 아래, 웃방문들이 벌컥벌컥 열리며 집안식구들과 작업반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왔다. 친혈육이라도 만난듯 떠들썩 웃으며 반겨맞는 그들을 보자 상훈의 눈굽은 또다시 젖어들었다.

김이 뽕얇게 서린 부엌에서는 청실이랑 작업반녀인들이 큰 가마주위에 빙- 둘러서서 한창 국수를 누르고있었다.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따금 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마터면 길을 엇갈릴뻔 했수다. 대학에 가보니 글썽 저너석이 집에 간다면서 한발 먼저 역에 나갔다는게 아니겠소? 그래두 저너석 제집이 여긴 줄 알긴 압디다.》

한집안식구들처럼 밥상에 둘러앉아 농마국수 한 그릇씩 받아들었을 때 반장은 누구에게라없이 말하였다.

그의 말에 모두 즐겁게 웃었다.

《에구, 아무럼 우릴 보자 왔갔수? 청실이 보구 싶어 왔갔지.》

부엌에서 누군가 한마디 끼치는 바람에 집안은 또다시 웃음소리로 들쭉해지었다.

그날 밤 상훈은 반장과 나란히 옷방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흘러드는 방안에 반쯤 누워 담배를 피우던 반장은 이불밑으로 상훈의 손을 더듬어잡았다.

《상훈이, 난 자네를 볼 때마다 함께 싸운 전우들 생각이 나군 하네. 나무도 불타고 바위마저 불타던 전호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이 말이네.》

반장은 추연한 눈길로 달빛이 흘러드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가렬처절한 무명고지전투에서 적의 화점을 까부시고 쓰러진 박동무...

그는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했구 이 호수를 사랑한 동무였어.

우리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이 호수가에 오리목장을 건설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신다는걸 알고는 너무 기뻐 밤잠도 잊었던 그였네.

남달리 가슴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저 호수를 오리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었지.

꿈도 많고 포부도 컸던 박동무였어.

나의 귀전엔 지금도 그가 부르던 고향의 노래가 쟁쟁하게 들려오네.》

반장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축축히 젖어있었다.

이윽고 그는 상훈에게로 눈길을 옮기었다.

《상훈이! 난 자네가 박동무의 뒤를 이어 이 호수의 주인이 되길 바라네.

그러니 공בל 더 잘하라구. 그래서 자네 아버지와 우리 전우들이 목숨바쳐 지킨 이 땅을 자네들의 힘으로 더욱 빛내라구.》

반장은 상훈을 격려하듯 그의 손을 잡고 지그시 힘을 주었다.

반장의 말을 듣는 상훈에게는 어쩐지 자기와 얼굴모습이 꼭같다는 그 박동무가 정말 자기 아버지가 아닐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온밤 잠들지 못했다.

방학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 상훈은 더 열심

히 공부하였다.

그것은 전우들의 넋을 이어 고향땅을 더욱더 빛내이길 바라는 유진섭반장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었으며 집없는 설움, 고아의 설움을 모두 가시여준 작업반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었다.

드디어 상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한 축산기사가 되어 목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해 가을 상훈은 유진섭반장의 집에서 청실이와 결혼식을 하였다.

그날 반장은 신랑신부와 함께 호수가에 나왔다.

류달리 맑고 청신한 가을날이었다.

나루배에 새가정을 이룬 그들을 나란히 앉힌 반장은 직접 노를 저었다.

호수의 파아란 물면은 옥구슬을 뿌린듯 눈부시게 반짝이며 신비경을 이루었다.

물오리들도 삼삼오오 무리지어 한가로이 노니는 호수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호수가의 경치에 한껏 취했던 반장은 상훈이네를 내려다보았다.

《수의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뜻밖의 물음에 상훈은 연분홍저고리를 입고 얹힌 청실을 돌아보았다.

청실의 고운 눈가에도 호기심이 어리어 반짝이는데...

《오늘은 우리 수령님께서 목장을 처음으로 찾아오셨던 날이야.》

반장은 천천히 노를 저으며 멀리 학산을 바라보았다.

《전쟁이 끝난 그해 가을, 물새도 잠든 이른새벽에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오실줄은...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나루배를 타시구 여기로 나오셨지. 찬물속에 손을 잠그시구 물때오른 수초도 건져보시며 자연먹이원천이 풍부하구 수질이 좋은 이 호수를 오리바다로 만들자구 뜨겁게 말씀하셨네.》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먹는 세상을 안겨주시려고 사랑의 비행기로 종자오리알도 보내주시고 몸소 저택에서 담근 찐알도 견본으로 보내주시며 알가공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과 로고의 자욱을 되새겨보는 반장의 눈가엔 물기가 어리었다.

《내 그래서 자네들의 잔치날을 오늘루 정했구 또 여기로 나온게야.》

그는 다시금 힘차게 노를 저었다.

《수의사! 청실이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구. 그러구 수령님의 뜻대루 이 호수를 오리바다로 만들라구. 우리 전우들의 뉘까지 다 합쳐서 말이네.》

그날 저녁 신랑신부를 축하하는 오락회에서 반장은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하는 내 고향은 살기 좋은 곳이었네  
...

금물결, 은물결 아름다운 호수도 그의 노래에 귀  
를 기울이는듯싶은 그 저녁...

기다리라 나의 고향 나서자란 산천이어  
원쭉치고 돌아가면 너를 안아 일으키리  
온 세상이 부럽도록 락원을 세우리라  
수령님의 품속에서 길이길이 살리라

유진섭반장은 불비속을 달려온 못 잇을 추억속  
에 전우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리고 더욱더 아름  
다울 호수가의 래일을 그려보며 절절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를 듣는 상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찢어졌다.

하지만 상훈은 그때까지도 반장의 웅심깊은 마음  
과 열렬한 진정을 다는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다.

## 5

《아버지!》

나들문소리가 울리더니 락아소에 다니는 딸 정향  
이 나비처럼 팔랑 날아와 담쭉 품에 안기었다.

상훈은 꽃잎같은 딸애의 능금볼에 자기의 볼을  
꼭 눌러대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하루피곤이 다 풀리고 행복의 물결에 두둥실 떠  
오르는 저녁시간이었다.

공장에서 제대군인들과 신혼가정들을 위해 새로  
지은 문화주택으로 이사하던 그해 봄날 띄돌같은  
아들을 낳은 안해는 그 이듬해 가을에는 자기의것  
처럼 살결 밝고 별같은 눈매를 가진 이쁜 딸을 또  
낳아주었다.

얼마나 많은것이 달라졌던가.

달라진것은 가정생활만이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후 재래식  
방법으로 오리를 키우던 목장은 과학적인 사양관리  
방법과 속성비육법을 받아들여 수천수만마리의 오  
리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되었다.

날을 따라 더더욱 즐거워만지는 생활이었다.

지난날 집없고 부모없는 설움을 뼈아프게 절감했  
던 상훈에게 있어서 단란한 가정과 웃음넘친 생활  
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것이였다.

딸애를 안고 방안에 들어서니 유진섭반장이 먼  
저 와있었다.

그는 상훈의 아들 정철에게서 한창 단련을 받고

있는중이었다.

《할아버지! 나 오리털چه기 만들어달라.》

《그래, 만들어줘야지.》

《뭇개?》

감질이 나서 달싹거리는 그 애앞에 반장은 마디  
굵은 열손가락을 쭉 펴보였다.

《야! 우리 할아버지 제일 좋아!》

아이는 반장의 목에 매달리며 좋아라 졸랑거리  
였다.

딸 셋을 모두 시집보내고 막내아들 영강이마저  
군대에 내보낸 반장에게는 상훈의 아이들이 친손자  
친손녀 맞잡이였다.

《내 자네와 토론할 일이 있어서 왔네.》

정철에게 숙제를 하라고 이른 반장은 상훈을 건  
너다보았다.

그의 태도가 어느때없이 진지한것을 보고 상훈은  
무릎에 앉아 손장난을 하는 딸애를 안해가 있는 부  
엿으로 내려보냈다.

《다른게 아니구... 자네 공장을 위해서 큰일 좀  
해보는게 어떤가?》

《큰일이라구요? 그게 뭔데요?》

그 어떤 운명적인 일을 예감한 상훈은 호기심이  
한껏 촉발된 눈길로 반장을 쳐다보았다.

그의 온몸에서 발산되는 긴장과 호기심을 느낀  
반장은 얼굴에 느슨한 웃음을 살리였다.

《글쎄 이걸 내 생각이네만... 난 자네가 위생방  
역도 하면서 거 뭐라나? 큰 오리종자 만드는 일 말  
이네. 그걸 좀 했으면 해서...》

《에에?!》

상훈은 크지 않은 눈을 홑떴다.

결국 큰일이란 육종사업을 넘두에 둔 말이 아  
닌가.

상훈은 인츰 웃음을 띠며 떠올렸다.

《나야 수의산데 육종사업을 어떻게... 그런 일이  
야 연구사들이 어련히 할텐데요.》

허구픈 생각이 들었다.

(반장도 이젠 나이가 많긴 많구나. 제 일, 남의  
일도 분간하지 못하는걸 보니...)

한편 반장이 처음 요구하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  
하는것이 야속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런데 반장은 제견에서 더 섭섭해하였다.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연구사도 연구사지만  
오리문세야 우리처럼 오리 키우는 사람이 더 잘 알  
지 않겠나, 영?》

상훈은 따분한 마음을 감추며 앓음새를 고치  
였다.

《어떻든 그 일이 쉬운게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반장을 충분히 리해시키고 납득  
시킬수 있을가.

이때 못마땅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던 반장이 부  
엿쪽으로 몸을 쭉 돌리였다.

《정철 에미! 이 답답한 량반에게 거 물총 한번 쏘주지 않겠나, 영?》

그의 말에 부엌에서 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제풀에 멧적어난 반장은 흰서리가 질어진 머리카락을 손빛질하며 짹 소리나게 입을 다쳤다.

《이젠 제 서방이라구 아까울테지.》

그 말에 뒤이어 또다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런데 그 웃음소리에 뒤이은 안해의 대답이 더 절박이었다.

《왜요? 쓰라면 못 쓸줄 아세요? 여기 수도물도 잘 나오는데.》

그제야 반장은 웃음을 들썩이며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상훈도 그만 싱긋 웃고말았다.

잠시후 반장은 다시금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도 울어름 공장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 오리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새 품종의 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알고있겠지?》

해마다 오리무게가 줄어드는것이 1대잡종체계를 세우지 않아 종자가 퇴화되었기때문이라고 하했는데 이게 왜 연구사들만 해결할 일이겠나? 공장에 자네같은 기술자들이 있으면서.》

그는 창문쪽으로 눈길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전쟁에서 이기구 돌아온 우린 무얼 알아서 오릴 키웠겠나? 그저 인민들에게 고깃 먹이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이 하도 고마워서 화약내 습밴 군복자락에 오릴 품어안은 거라네. 그러구 노래에두 있는것처럼 원쑤치고 돌아가 이 땅을 진아일으키자던 전우들의 뒤통까지 합쳐서 호수가 진펄에 오리사를 짓구 고기생산을 시작한거지.》

반장의 목소리는 저으기 갈려있었다.

상훈은 반장의 눈귀가 물기에 젖어 번쩍이는것을 띄여보았다.

목이 파악 메여왔다.

그해 여름, 찌는듯 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축사들을 돌아보시면서 1대잡종을 받아들여 우량종오리를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인민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오리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오리고기생산은 국가에서 밀지는 한이 있어도 꼭 해야 한다고 그러도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수령님!

그날의 그 말씀을 되새겨보며 상훈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그는 래일부터라도 당장 육종사업을 시작하겠노라고 말하고싶었다.

하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그 말이 머리속에서만 고개칠뿐 입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다른것은 말고라도 반장의 그 절절한 당부와 믿음만은 거역할수 없었다.

누가 말했던가.

인생이란 은혜를 다 갚지 못할만큼 짧은 날이 아니라고.

상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이룬 지금까지도 반장의 정과 사랑에 그 무엇도 보답한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 절절한 당부마저 외면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해보자!

해보다가 안되는거야 어찌겠는가. 시작도 해보지 않고 물러서는건 그야말로 배은망덕이다.

며칠후 수의사방에는 대어섯개의 나무상자들이 놓이고 거기에 한두마리씩 종자오리가 넣어졌다.

상훈은 고기생산용과 알낱이용오리들을 계통별로 갈라넣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 6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안해와 함께 나루배에 오른 상훈은 부지런히 노를 저었다.

어느덧 호수 한가운데 이른 그는 노대를 안해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아래우작업복을 벗어서 배머리에 뭉그러놓고는 속옷바람으로 침병 물속에 뛰어들었다.

물위에 비끼여 병글병글 웃고있던 보름달이 피상한 모양으로 일그러지더니 뺨풀이하듯 물방울을 튕겨올렸다.

상훈은 《어- 어!》 소리를 내었다.

여름철이지만 비내린 뒤여서인지 서늘한 랭기가 등골을 타고 온몸에 주욱 퍼지었다.

《일없겠어요?》

안해가 근심스레 물었다.

《일없소.》

정말 얼마 지나니 물속에 잠긴 부위가 오히려 더 훈훈해졌다.

가슴까지 차오른 물속에 들어선 그는 얼굴에 두어번 물을 추기며 심호흡을 한 다음 두팔을 벌리고 수초를 건어안기 시작했다.

해감내 섞인 물비린내가 폐장속으로 흘러들었다.

상훈은 물때가 올라 미끌미끌한 수초를 아름아름 건어내어 연방 배우에 올려던졌다. 그러면 안해가 그것을 골고루 다지었다.

물속에 들어서지 않고 배우에서 걸이대로 건어올릴수도 있었지만 한가롭게 그럴새가 없었다.

자기와 안해 두사람뒀을 하자면 서둘러야 했던 것이다.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공장은 자연먹이채취로 들끓었다.

사료보장이자 고기생산이어서 공장에서는 부족

되는 먹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양공이 아니라 회계원이는 수의사는 제외없이 수초과제를 주고 매일 총화하였다.

먼 옛날 바다자리였던 이 자연호수에는 오리가 잘 먹는 마름이나 실말, 개연과 같은 물풀들과 물고기며 조개, 골뱅이가 무진장하여 말그대로 자연 먹이보물고였다.

그런데다 천이백정보의 드넓은 호수가 그 어디나 키를 넘는 곳이 없어 자연먹이를 채취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젠 한번만 더 나르면 되겠군요.》

배전 가득 넘쳐나는 수초를 부리우며 안해가 하는 말이였다.

상훈은 말없이 머리만 끄덕였다.

힘들었다.

물밖으로 나오니 온몸이 으시시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몇시간 폭 쏘으면...

시험오리관찰때문에 밤에도 호동안의 딱딱한 침대에서 자곤 하는 그였다.

문득 자기가 왜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쳐들었다.

남들처럼 말은 일이나 하면 지금처럼 밤중에 물속을 헤매지 않고 낮시간을 리용해도 될텐데...

사실 안해까지 시험오리 사양관리를 맡아하면서부터 가정생활은 영 엉망이 돼버리였다.

며칠전에도 집에 들어가보니 아이들은 저녁을 굶은채 잠에 푹아떨어져있었고 구석구석엔 일감들이 밀려있었다.

지금도 엄마가 들어오길 눈빠지게 기다리고있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이 조급했다.

상훈은 서두르며 나루배쪽으로 다가갔다.

수초를 다 부리운 안해가 노를 저어 호수가로 배를 돌리고있었다.

그가 막 배에 오르려는 순간이였다.

뒤쪽에서 《이젠 그만하라구.》 하는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훈은 작업복을 걸치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자네들에겐 수초과제가 면제되었네.》

《그건 어떻게?》

《우에서 그렇게 하라더군. 그러니 자기 일이나 전심하게.》

반장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무뚝뚝하였다.

그는 다른 말없이 방뚝쪽으로 스틱스적 걸어갔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상훈은 저도 모르게 후숨을 내쉬었다. 느닷없이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새끼오리를 넣을 상자용판자를 몇장 얻으려고 그는 작업반실로 갔다.

통계원 혼자 있었다.

상훈은 그에게 반장이 어디 갔는가고 물었다.

무슨 계산서를 앞에 놓고 열심히 수판알을 텅기던 통계원이 눈길을 들었다.

《반장동진 출근하지 못했어요. 며칠전부터 앓지 않았나요?》

녀인의 눈길은 아직 그것도 모르는가고 묻는듯했다.

작업반실을 나서면서야 상훈은 요즈음 반장의 얼굴이 무척 수척해졌다는데 생각이 미치였다.

사실 유진섭반장은 전쟁때 입은 총상자리때문에 허리를 잘 쓰지 못하였지만 웬간해서는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도 눕지 않는 성미였다.

그런 사람이 오죽했으면 출근도 못했으랴.

문득 영강이가 제대되어 집으로 왔다면서 옷감이랑 가지고 찾아가겠다던 안해의 말이 생각났다.

(검사점사 저녁엔 집에 들려봐야겠어. 환갑나이도 돼오고 또 영강이도 왔는데 이젠 쉬엄쉬엄 일하라고 당부해야지.)

저녁무렵 그는 안해와 함께 반장의 집으로 갔다. 영강이앞에 내놓을게 변변치 못하다고 웅색해하는 안해와 함께 마당에 들어서는데 부엌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나왔다.

《영강이가 왔다지요? 그리구 반장동진 좀 어때요?》

안해의 물음에 몸매 작은 녀인은 어깨를 떨구며 급시 울상이 되었다.

《울 사람이야 왔지. 헌데 령감은 또 나갔어.》

《나가다니요? 공장에요?》

《공장은 무슨... 수초때문에 호수에 나갔네.》

《호수에요?》

상훈이 큰소리로 되물었다. 그리고는 눈섭을 꿈틀거리며 역증내듯 말했다.

《아니, 그 몸으로 무슨 수초를 한다고 그러니까? 반장동지두 참...》

《그러게 말이네.》

녀인은 두손으로 무릎을 쳤다.

《하지만 매일 저녁 자네들 뒤편까지 하구야 들어오지 않겠나? 그러느라 영 녹초가 됐지. 오늘은 글썽 엇그제 집에 온 막내까지 몰구 나갔네.》

순간 상훈은 흠칫 몸을 떨었다.

안해도 누군가에게 떠박질리운듯 비칠하였다.

그러니 결국 반장은 이 한달째 자기들 두사람의 계획을 도맡아안고 모태기다가 쓰러진것이 아닌가.

상훈의 가슴은 심한 자책감으로 하여 비틀리운듯 아파났다.

어느덧 상훈은 안해와 함께 호수가로 내달렸다.

그는 눈앞에 반장을 세워놓고 북받쳐오르는 마음을 터치였다.

반장동지!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그래 젊은 놈들을 앉혀놓고 반장동지가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리구 난 언제까지 반장동지의 어깨에 얹어진 무거운 짐이 돼야 합니까? 예?

오늘은 영강이까지 데리구 나갔는지요? 십년전엔 영강이대신 날 대학으로 보내더니 오늘은 또 그에게 내 일감을 맡기나요? 영강이가 날 뭐라고 하겠나요? 그리구 난 영강이앞에 뭐가 됩니까?

호수가에 이른 그는 손나팔을 붙었다.

《반장동지!—》

멀지 않은 곳에서 화답소리가 들려왔다.

《어—!》

잠시후 아래켄에서 나루배가 오는것이 보였다.

상훈은 무작정 물속에 뛰어들었다.

안해도 물살을 건어차며 그의 뒤를 따랐다.

나루배로 다가가니 영강이가 노를 잡고 반장은 배머리에 앉아있었다.

《반장동지!》

상훈은 배전을 잡고 웨치듯 부르고는 뒤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팍인지 물인지 흘러내려 번들거렸다. 그는 영강을 올려다보았다.

《영강아! 넌 나때문에... 나때문에...》

그러자 군복차림의 영강은 건강미 넘치는 얼굴에 웃음을 담았다.

《형님! 뭘 그래요? 나도 이젠 고향에 돌아왔으니 공장사람이 아니나요?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

《영강이!》

상훈은 머리를 떨구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반장은 마음이 흐뭇한듯 싱글벙글 웃기만 하였다.

## 7

《여보! 들었어요? 반장아바이가 종자오리때문에 검열받는데요.》

새로 나온 잡지 《수의축산》에서 가금의 날개를 잘라 알생산을 높이게 하였다는 흥미있는 자료를 읽어가던 상훈은 안해의 말에 눈길을 들었다.

신경이 바늘끝처럼 날카로와졌다.

말없이 다시 책을 내려다보았지만 글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몇달전 온 작업반이 달라붙어 종오리사와 잇달아 크지 않은 시험호동을 지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하찮게 여기던 육종사업이 점차 공장의 관심속에서 진행되었고 이제는 수십마리의 종자오리를 보유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에도 시비군들의 눈과 입은 잠들지 않는 법이다.

유진섭반장이 상훈이네를 도와 수초도 해주고 생

활의 이모저모를 돌봐주자 처음에는 칭찬도 하고 부러움도 감추지 않던 사람들속에서 입을 삐죽거리는 축들이 나타났다.

시험호동의 오리도 공장재산에 등록하고 뒤처리를 공개해야 한다는 껌진한 말도 들려왔다.

《시비군들은 시비질이 업인데 실컷 그러라지.》

그때 반장은 이렇게 뇌까렸다. 옛이나 먹어라 하는 배심 좋은 태도였다.

하지만 정작 검열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결코 즐겁지 않았다.

다음날에는 상훈에게도 생산과에 오라는 연락이 왔다.

행정청사의 맨 끝방에 들어서니 칼칼하게 생긴 사람이 인민위원회 무슨 과장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더니 원종오리는 어디서 가져왔으며 종자오리수와 알들의 수량과 그 처리에 대하여 잔깐히 물었다.

그 사람은 시험호동에 가보자고 하였다.

《그건 안됩니다.》

상훈은 머리를 저었다.

그는 종자오리도 산모처럼 신경이 예민해서 낯선 환경에 접하면 알날이물이 떨어지고 혹시 무정란을 낳기도 한다고 했다.

세계적으로도 가금호동의 출입은 미싸일기지에 들어가는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격한 위생방역때문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그들의 담화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행정청사를 나서던 상훈은 정문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얼굴에 스치는 초겨울의 싸늘한 바람이 모든것을 행정하게 사고하도록 따끔하게 자극시켜주는것 같았다.

그는 옷깃을 세우고 걸음을 옮기었다.

이 순간 그에게는 지금까지 성스럽고 보람있는것으로 여기며 온 심혈을 깡그리 바쳐온 육종사업과 자기자신이 의심스러워졌다.

내 과연 성공할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이번 검열때문에 산생된것이 아니라 이미전부터 잠재해있던 생각인지도 모른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종자마리수도 늘어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들어갈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성공할수 있다는 확신은 아직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안개속같이 뿌옇하던것이 선명해지는듯싶더니 다시 삼거우처럼 엉켜들었다.

육종이란 그야말로 욕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 누구의 강요나 욕망으로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은 깊어져갔다.

사실 그가 육종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는 전적으로 반장의 믿음과 기대를 거역할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반장도 이 모든것을 깨달았을것이다. 그렇다고 발기자인 그가 먼저 그만두자고 하겠는가.

패배를 인정하고 제때에 물러서는것도 현명한 일이다.

더우기 이번 검열로 반장의 생각도 달라졌을것이다.

《어떻게 되었어요?》

호동에 들어서니 조가비가루를 내고있던 안해가 앞자락을 털며 일어섰다.

상훈은 그의 물음엔 대답 않고 반장이 오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반장아바이도 누가 찾는다고 나갔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상훈은 여전히 대답 않고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는 문가에 서서 책상우에 펼쳐진 실험일지며 자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삼년동안이나 심혈을 다 바쳐온 사업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생각하니 명치끝이 얼얼했다.

수의사로서 자기 의무만 성실히 수행해도 된다고 자기를 위안하며 의자에 앉으려는데 문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반장이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상훈은 자리를 권하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쩔게 있나? 나야 기껏 쥐여짜구 털어봐야 오리똥냄새밖에 없는걸. 그간 일은 없는셈치라구.

당비서동지도 시비군들 보란듯이 잘해보라구 신심을 주더군.》

반장은 씩씩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었다.

상훈은 어깨숨을 내쉬며 다가섰다.

《반장동지! 내 요즘 자주 생각해보았는데 아무래두 우리 일은 승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할수 있는것 다 해봤지만...》

《그래서?》

반장은 그의 말꼬리를 나꾸어채며 뒤말을 재촉했다.

《아까운 시간과 로력만 낭비하지 말구 이번 기회에 아예 그만두는게 어떤가 합니다. 우리끼리니 말이지...》

다음순간 상훈은 고향소리에 가까운 반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폐진 소리 그만하게! 그래 이십년, 삼십년두 아니구 고작 이삼년 땀흘린게 그리두 아깝나?》

그런 갈대같은 속통으로 무슨 일 하겠어?》

썩썩 소리를 내지른 반장은 문을 탕 닫고 나가 버렸다.

한동안 상훈은 일이 빠진듯 멍하니 서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벽시계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먹이 시간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며칠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먹이처방표를 들고 조리실로 나가던 그는 호동안을 기웃이 들여다보다가 우뚝 놀라며 굳어졌다.

가버린줄 알았던 반장이 안해와 함께 종자오리배 설물을 쳐내고있지 않는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그는 반장의 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머리도 하얗게 희어지고 등마저 굽어들기 시작한 반장의 모습...

그날따라 반장의 그 하얀 머리가 아프게 눈썹리를 찢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었다.

새끼오리를 입사시킬 호동들에 소독사업을 하고난 상훈은 지친 걸음으로 시험호동에 돌아왔다.

안해에게 하루동안의 알낱이수량과 먹이조성에 대하여 물고난 그는 의자에 앉아 새로 교잡한 오리들을 지켜보았다.

(저 새 품종은 다른 품종보다 성성숙이 빠르고 알을 많이 낳지만 확실히 비육속도는 뜨구나.

그러니 고기생산용으로는 적합치 않다. 그렇다면...)

그의 눈길은 칸막이너머에서 놀고있는 다른 품종에게로 옮겨지었다.

그들은 크고 듬직한 몸통이를 뒤쫓거리며 물구 유쪽으로 다가가 길고 실한 목을 주욱 빼들고는 누렁이 몽푹한 주둥이로 물을 쏴아먹기 시작하였다.

목화송이처럼 털빛이 하얗고 몽실몽실 살진 오리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기었다.

(하지만 저놈들은 먹성이 좋고 성격이 누그러져서 빨리 자라지만 번식능력은 낮지 않은가.

저놈을 광포종과 섞붙임하면 어떨까? 아니면 송암종과?)

상훈은 우량품종을 얻어내는데 실마리가 될듯싶은 하나의 생각을 붙잡고 사색을 이어나갔다.

주위세계를 감감 잊고 사색의 오솔길로 한결음한 걸음 옮겨가던 그는 갑자기 안해의 다급한 웨침소리에 편듯 정신을 차렸다.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에야 그는 호동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종자오리들이 불안하게 울어대는것을 보았다.

종오리사아궁에서 튀어난 불씨가 호동안에 깔아준 짚에 불이 달리면서 시험호동에까지 번져졌다는것을 그는 모르고있었다.

상훈은 황급히 실험일지를 옷섶에 찌서넣은 다음 종자오리들을 품에 안고 밖으로 뛰어 나왔다.

어느새 삼단같은 불길의 밤하늘을 태우며 타올랐다.

상훈은 불속에서 들려오는 오리울음소리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아! 이젠 어쩌면 중단 말인가!

안해에게 실험일지와 종자오리를 맡겨두고 다시 호동에 뛰어들려던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벌써 천정에서는 불뭉치들이 푹뚝 떨어지고 불길에 널름거리는 그곳은 말그대로 불도가니였다.

이때 누군가 불속으로 뛰어들고있었다.

유진섭반장이었다.

상훈은 달려가 그의 팔을 와락 붙잡았다.

《이젠 안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다니? 저게 어떤 오리라구, 어떤 오리라구...》

화염에 그슬린 반장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잡히운 팔을 나누어채며 불길에 휩싸인 호동에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서 나오라고 웨치었다.

불에 탄 지붕이 통채로 주저앉은것은 불과 몇분후였다.

《반장동지!》

《반장아바이!》

유진섭반장은 눈을 뜨지 못하였다.

자기의 몸에서 한시도 오리를 떼놓을수 없는듯 두마리의 종자오리를 껴안고 쓰러진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상훈은 반장을 와락 그러안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장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히 쓸어넘겼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싸움의 불길속을 헤치느라 한오리 또 한오리 희여졌을 머리.

전승광장을 나서는 길로 고향땅으로 달려와 전우들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해 온넛을 깡그리 불태우느라 머리마저 재가 된듯 하얗게 희여지고 성글어진 머리...

《아버지!》

상훈은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불렀다.

그때로부터 몇년후 그는 끝내 1대잡종으로 먹이단위를 낮추면서도 무게를 종전보다 훨씬 높일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우량종오리를 육종해내어 생산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후에도 그는 우리 식의 새로운 첨가제와 식물성성장촉진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영강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오리공장을 찾아주신것은 새 세기의 문어구에 들어서서 다섯번째가 되는 그해 가을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육종사업을 앞세우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으로 해마다 수천톤의 고기를 생산한 이 기업소야말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기지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날 유상훈박사는 호수가에 나와 유진섭반장과 오래도록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때마다 여기로 나오곤 하는 박사였다.

유상훈박사는 오늘도 호수가에 서있다.

푸른 호수의 수면위에 머리 흰 반장의 모습이 우렷이 떠오른다.

생을 주고 안아키운 어머니 내 조국, 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민 한없이 귀중한 이 땅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라고 말없이 가르쳐주는 모습...

이 나라의 수많은 로병들의 머리에 흰서리가 질어갈수록 내 조국은 젊어지고 저 푸른 호수도 더더욱 푸르들것이 아닌가.

푸르러 번영해갈 이 땅의 래일을 약속하며 호수는 끝없이 끝없이 설레이었다.

## 가 사

## 신념의 노래

### 조 영 사

신념은 좋은 날도 궂은날도 한마음  
어려워도 한본새로 참되게 사는것  
부서져도 변색없는 백옥과 같이  
원수님을 끝까지 받들어가리라  
아 신념은 혁명가의 제일생명  
다진 맹세 목숨바쳐 지켜가리라

신념을 지키면 죽어도 영생하고  
신념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몸  
불에 타도 굶핍없는 참대와 같이

원수님을 일편단심 모셔가리라  
아 신념은 혁명가의 제일생명  
다진 맹세 목숨바쳐 지켜가리라

불속천리 물속만리 걸어간대도  
신념의 한길은 변함없이  
순간을 살아도 오직 한마음  
원수님만 받드는 충신이 되리라  
아 신념은 혁명가의 제일생명  
다진 맹세 목숨바쳐 지켜가리라

# 영웅의 어머니

리준호

나는 퇴근길에 꽃매대에 들렀다.

꽃매대앞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남성들 태반이 모여 흥성거린다. 나이가 각이한 남성들이 꽃매대를 에워싸고 저저마다 꽃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도 그들속에 끼워서서 각양각색의 꽃송이와 꽃다발을 눈여겨살폈다.

판매원이 내 나이를 가늠해보며 여러가지 색깔의 꽃다발을 이것저것 손으로 가리켰다. 헌데 내가 매번 머리를 흔들자 귀염성스럽게 생긴 처녀판매원은 이상해했다.

나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중 색깔이 무게있어 보이는 만복꽃다발을 골라들었다. 꽃다발을 손에 들자 자연히 그것을 받게 될 너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화국영웅 리철민의 어머니였다.

리철민은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꽃다운 청춘을 전우들을 위해 바친 새 세기초의 영웅병사이다.

나는 그를 원형으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고있는 까닭에 영웅의 가족들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인연이 나를 어머니날이나 3.8절이든 특별한 기회가 있든없든 영웅의 어머니에게로 떠밀군 한다.

오늘도 나는 가슴을 짝 채우는 충동감에 떠밀리워 그의 집을 찾기로 생각했던것이다.

부름종소리를 듣고 문을 연것은 처녀인 영웅의 누이동생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 직장에서 퇴근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넌로보장수속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아이참, 선생님도, 넌로보장수속이 다 됩니까. 어머니 전보다 더 직장일에 열성이랍니다. 오늘도 좀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영웅의 아버지라도 만나볼가 했는데 성기관일군인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현장에 내려가있다고 한다.

나는 허전한대로 꽃다발만을 남겨둔채 발길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의문이 드는것이 있었다. 이제는 넌로보장나이에 이르렀다고 쓸쓸한 표정을 지었던 너인이 어디서 활기를 이어받았을까.

지난해 추석때 가족들과 함께 최전연초소에 안치되어있는 영웅의 묘소를 찾아갔던 일이 생각났다.

부대군인들과 함께 추모의식을 가지고난 후에도 너인은 묘소의 잔디를 어루쓸며 좀처럼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젊은 군관들이 혹시 묘소를 잘 돌보지 못해 그러는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송구스러워했다. 너인은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며 웃으며 말했다.

《해마다 온다고 해도 어쨌든 1년만에 오지 않아요. 그저 조금이라도 가까이하고싶어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자네들이 알았으면 하네.》

군관들은 머리를 숙였다. 거의가 다 10여년전 리철민영웅과 한소대, 한중대에서 복무한 전우들이었다.

나는 영웅의 어머니의 말속에서 그 어떤 애수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슬머시 물었다.

《부대군인들이 지금도 집에 찾아오는가요?》

너인은 차창으로 흘러가는 먼 산밭을 바라보면서 나직나직 이야기했다.

《...드문히 오군 해요. 난 이해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사이 나도 당장 일을 그만둘 나이에 이르렀어요. 그래 그런지 아들에 대한 생동한 추억도 점점 희미해져가고있는듯 해서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너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살아있는 아들만을 생각하고있는것이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였다.

영웅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버리지 못하고있는데 반갑게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잊지 않고 꽃다발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주어 고맙다고 사례의 말을 하던 그는 오늘 직장에서 체육의 날을 운영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참가한다는것이였다.

확실히 그 어조에서는 이전과 다른 생기와 활력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나는 그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어 취재 겸 그가 일하는 시승장기관리국 중구운영사업소를 찾아갔다.

사업소마당에 들어서니 배구경기가 한창이였다.



파란 운동복을 펼쳐입고 열을 올리고있는 선수들이 한창나이의 청년들이겠거니 생각하며 바라보는데 뜻밖에도 중년부인들도 눈에 띄었다. 그에 더 흥미를 가지고 한발자국 다가서는데 한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받다가 내 발치에 그만 넘어졌다. 그 선수를 일으켜세우던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영웅의 어머니였던것이다.

《아니, 철민이 어머니!》

《아이구, 작가선생!》

그는 반가이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배구선수였군요!》

웃으며 하는 내 말에 그는 처녀처럼 호호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한번 해보자는거예요.》

잠시후 나는 그와 마주앉았다.

방금까지 운동을 하다 들어온때문인지 한창나이에 처럼 활기에 넘쳐있는 그를 대하느라니 내 마음도 즐거워졌다.

《일을 그만두신다더니만 그사이 더 젊어지셨군요.》

나의 말에 녀인은 어린애처럼 활짝 웃더니 이내 정색해지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작가선생을 찾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철민이 애길 쓰기 시작하셨지요?

현데 그걸 다시 쓰셨으면 합니다.》

《?!》

다시 쓰다니? 취재에 무슨 미흡한 점이라도 있던 말인가.

《난 요즘 우리 철민이가 다시 살아돌아온듯 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전에도 그랬지만 난 우리 철민이가 살아있다는걸 지금에 와서 매일 매 시각 느끼고있어요.

글쎄 우리 원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다시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철민이를 말이에요!》

나의 마음에도 점차 영웅의 어머니의 흥분이 그대로 옮겨져 벽차오르기 시작했다.

《그이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희생된 영웅들과 전사자들, 영예군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도덕의리는 혁명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말이에요.

글쎄, 어찌면... 원수님께서는 저의 마음까지도 그리도 깊이 헤아려주고계실가요.

세월이 감에 따라 이제는 아들의 전우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추억이 설피여지는 때에 원수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들에 대한 뜨겁고 생동한 정을 되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천만의 전사들을 다 품안고 영원히 살아 빛나도

록 해주시는 그이야말로 이 나라 영웅들의 친어버이입니다.》

영웅의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도 나의 귀전에는 그의 절절한 목소리가 그냥 울려왔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있는듯 한 느낌이에요. 힘, 정열, 활기... 모든것이 되안겨진것 같애요. 난 일을 할테예요. 전보다 더 많이, 더 힘껏!

우리 영웅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주신 친어머니의 그 사랑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싶은 심정이에요.》

그렇다. 영웅의 어머니!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이 나라 자랑스런 아들들—영웅들의 어머니는 진정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이신것이다.

주마등처럼 많은것이 눈앞에 떠오른다.

지난해 가을 영웅적해병들의 용사묘를 찾으시여 눈급적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으셨던 그이의 모습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그때의 감동과 걱정으로 만사람을 울리고있다.

영웅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회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면서 인민은 유가족들의 마음에 나란히 자신의 마음을 세우시는 위인의 깊고도 뜨거운 정, 크나큰 정을 강렬하게 느끼었다.

해병들의 모습을 그리시는듯 조용히 떨리시던 그이의 눈물젖은 음성에서, 고르고폴라 몸소 만드신 천연색사진을 액틀에 넣어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서 유가족들에게 내려보내주신 그이의 사려깊은 사랑에서 우리 인민은 분명 다심하고 자애깊은 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꼈다.

그렇다, 우리는 사랑중에 가장 큰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달리는 말할수 없다. 그이는, 경애하는 그이는 어머니이시라고밖에는.

그 정이, 그 사랑이 천만군민을 떠민다.

그 정에 매혹되어, 그 사랑에 고무되어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투쟁전구들마다에서 죽음도 두려움없이 육탄으로 한몸 바치고 물불을 가림없이 총돌격의 앞장에 서있는것이다.

나는 후더운 마음을 안고 새로운 창작적흥분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창작실로 걸음을 다그쳤다.

#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김 철 호  
그림 김 광 석

## 1

끝간데없이 아득하게 펼쳐진 드넓은 바다의 푸른 자태가 서서히 드러나던 이른아침이었다.

수평선너머에서 훈훈한 미풍이 룩지를 향해 슬슬 불어왔다.

가리마와 같이 선명한 수평선아래쪽에선 검푸른 물결이 출렁이는데 그우에 펼쳐진 연한 재빛하늘이 바다물에다가 살며시 입술을 가져다대기라도 한듯 그 모양이 무척 자연스레 어울린다.

선홍세소어업사업소 책임기사 신철민은 또 한차례 먼바다로 떠나가는 새끼연어들이 헤쳐갈 《대양 횡단》로정을 그려보듯 수평선 한끝에 시선을 얹었다.

엄혹한 북방의 강추위속에서 애지중지 키워낸 새끼고기들이어서인지 따뜻한 봄철에 들어서면서는 부쩍 살이 오르고 한여름철에 접어들면서는 기운이 뻗어나 설새없이 내닫는 연어들의 모습을 눈에 떠올리며 철민은 겨울내껏 쌓였던 시름을 풀어놓았다.

신철민기사와 장태섭양식반장이 아침일찌기 바다에 나선것은 민물에서 떨어진 새끼연어들이 짙바다물에 적응하는 기간에 갈매기들의 기습을 막아주기 위해서였다.

배앞코숭이에 웅크리고앉아서 바다물속을 살피고 있던 장태섭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책임기사! 무슨 헛생각을 하나. 연어떼를 바싹 따라가야 할게 아닌가.》

정신이 든 신철민이 노대를 비틀어 배머리각도를 맞추자 태섭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듯 구부정했던 허리를 펴고 다시 앞을 내다보았다.

이때 갑자기 갈매기 한무리가 날아들었다.

아욱— 아욱—

갈매기들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련속 내리쫓히기 시작했다.

갈매기들의 사나운 눈초리에 새끼연어들이 아침 먹이감으로 걸려든것이였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잠간사이에 그 술한 새끼연어들을 하늘로 날려보낼 판이였다.

정황은 매우 긴박했다.

어느 사이에 장태섭의 손에서 돌맹이가 총알처럼 날아갔다.

태섭이와 신철민은 팔에서 자개바람이 일도록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뿡— 뿡— 바다물우에서 물결이 일면서 돌맹이가 들어박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돌소나기에 부딪쳐 아우성치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눈앞에다 먹이감을 놓고도 배에 채우지 못해 악을 써대며 끈덕진 도꼬마리처럼 떨어질념을 안하는 갈매기들.

한참후에야 기진한듯 갈매기들은 서서히 하늘로 흩어졌다.

《어휴!— 큰일칠번 했군그래.》

장태섭은 십년감수라도 한것처럼 긴숨을 내쉬며 이마에 송골송골 내뿜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미리 예견하여 돌을 싣고 떠나길 정말 잘했군요.》

신철민은 장태섭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새끼연어들의 행렬을 바래우듯 멀리로 시선을 달리는 철민의 가슴은 숨막힐듯 한 기대감으로 막 뻗근해왔다.

또 기다려지는 날들이 시작된것이다. 이렇게 연어들을 떠나보내고는 이제나저제나 백학천에 돌아올 연어때만 기다려오는 철민이다.

더우기나 며칠전 시인민위원회 국토관리담당부원이 백학천강둑정리를 잘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보니 그 기대감이 갑절로 더해졌다.

그는 지금 백학천에서 사업소가 담당한 구간의 강둑에서 돌들이 빠져 성글어졌는데 큰비가 내리거나 해일이 들이닥치면 필경 무슨 화단이 일것이니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것이였다.

가을철이면 백학천으로 연어들이 올라온다. 연어들의 보금자리인 백학천강둑을 보강하는 문제는 철민에게 아주 긴절한 일이였다.

그런데 림대진 지배인은...

그날 저녁 하루생산총화가 끝난 직후였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배인 림대진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말하였다.

《괜한 걱정들 하누만... 난 또 무슨 큰일이 났다구... 그리고 철민기사, 연어양식 말이요 지금 허탕치는게 몇년째요? 그것말구두 물고기잡이요, 다시 마양식이요 신경쓸일 많은데...》

덕천이 멀다는 식으로 대하는 대진의 태도는 철민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배가 기우뚱거렸다.

《여보게 철민기사, 뭘 그리 생각하나... 낮색이 썩 좋아보이질 않구먼... 어데가 편치 않나?... 노를 인주게, 나와 교대하자구.》

장태섭은 일어서더니 몸을 기우뚱거리며 철민에게로 다가왔다.

노를 인계한 철민은 배앞코승이에 걸터앉았다.

아침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한 바다물웃쪽은 온통 금빛, 은빛세계로 변해갔다. 철민에게는 자연히 제대되어 처음 고향에 오던 때의 일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해군에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날 철민은 바다생활의 옛 선배를 찾아왔었다.

애리애리하던 햇내기배사공이 억실억실한 바다사나이가 되어 돌아온것을 본 장태섭은 함께 일하다 먼저 떠나간 옛친구이고 전우였던 철민의 아버지 신명규를 보는것만 같아 그를 덥석 껴안았다.

장태섭은 신철민을 데리고 개끌도래굴이로 나갔다.

반가운 사람이 오면 의례히 문어회를 쳐서 대접한다는 바다사람들의 고유한 풍습대로 문어를 잡아보려 떠난 길이었다.

정작 물속에 들어가본 그때야 신철민은 확실히 바다가 어설퍼졌다는것을 느꼈었다.

그때 다짐했던 생각, 사랑하는 내 고향 바다를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옥실거리는 풍성한 바다로 만

들리라는 결심을 안고 연어와 함께 인연맺고 애태워온 이 몇해동안 철민은 연어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철민기사, 자네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있지? 올해엔 연어가 돌아올가 하고 말이야.》

갑자기 하는 장태섭의 말에 생각에서 깨어난 철민은 비주룩이 한쪽입귀를 스러뜨리며 웃었다.

태섭은 스적스적 노를 저으며 밝은 어조로 물었다.

《철민기사... 자네 우리 작업반에 와서 배탈 때 연어생선 맛보던게 생각나나?》

《생각나잖구요. 군사복무때에 수영 3마일극복 훈련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애, 철민아! 이 연어한테선 어데가 제일 맛있는줄 아니? 그건 여기 코등살이거든. 이런 맛이야 바다사람만 느낄수 있는거지.> 하고 내 국그릇에 덜어주곤 하던 아바이 생각이 간절하더군요. 그러면 또 힘이 나서 헤엄쳐갔지요...》

《음— 그랬됐군— 그 연어가 이 바다에서 아주 사라졌나 했어... 헌데 오늘은 우리가 제 손으로 연어를 키워 바다로 내보낼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나...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키워주신 연어인데 그 연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기운을 좀더 내서 잘해보세나.》

신철민은 가슴이 쩡해나고 코언저리가 시큰해났다.

어데서인가 봉— 웅글은 배고동소리가 들려왔다.

조국의 해안으로 들어서는 대형짐배의 배고동소리였다.

태섭은 스적스적 노를 저었다. 수려한 산발이 가까이로 다가왔다.

## 2

아침출근길에 연어양식장으로 향하는 철민에게는 느닷없이 선미 생각이 떠올랐다.

...《철민동무, 아직은 매우 연약한 생명체들이 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다음에 크게 자라 우리 나라 바다로 개선장군처럼 돌아올거란 말이에요. 처음 해보는 일이니 힘은 들겠지만 동무가 꼭 성공하리라고 난 믿고싶어요.》...

신철민은 연어종자를 애지중지 깨워서 보내주느라 많은 수고를 하고있는 선미의 아릿다운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림선미연구사는 선홍세소어업사업소 지배인 림대진의 외동딸이다.

사업소의 이전 책임기사였던 신철민의 아버지와 림대진이, 장태섭은 한낱한시에 이곳 사업소에 제

대배낭을 푼 후 같은 배를 오래동안 함께 타고 일 해온 둘도 없는 짝친구들이었다.

명절때가 되면 세 친구는 늘 한집안식구처럼 모여앉곤 하였다. 그런 연고로 하여 어릴 때부터 림선미는 신철민을 친오빠처럼 따르곤 하였다.

중학시절에는 철민이보다 3년후배였던 선미는 같은 학교의 생물학소조에서 함께 공부도 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림선미는 리파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한 후 몇해전부터 동해 언어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다.

신철민이 사업소의 책임기사로 배치되어 사업을 시작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철민은 림대진지배인과 함께 시수산관리국에서 열린 협의회에 처음 참가하였었다.

《오늘날 세계적인 수산업발전추세를 본다면 최 신생물과학기술에 기초한 바다양어와 바다양식 그리고 실내양어, 양식을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 고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됩니다.》

수산관리국장은 물고뿌를 들어 달아오른 목을 여러번씩이나 적서가면서 열변을 쏟아놓았다.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공해로 인한 바다생태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조건에서 종전과는 달리 바다양어나 양식이 기본생산방식으로 전환되고있었다.

그때 신철민은 우리 나라의 바다물환경이나 강하천들의 물환경조건으로 보아 이 연어양식이 한번 해볼만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산관리국장은 회의를 결속하면서 연어양식을 시급히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안을 세우라는 지시를 선포세조사업사업소에 주었던것이다....

아침해가 백학산의 깊은 골안으로 발범발범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시내에서 30리정도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 시가지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봉우리들중에서도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흰바위우듬지가 솟아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도 하늘을 날아가던 백학이 내려앉은것 같다고 하여 백학산이라 부르는 이 깊은 산골짜기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연어양식장이다.

신철민은 양식장의 물고기못을 돌아보다가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밤사이의 물온도를 측정하려고 수온계를 쏘았다가 꺼내어 유심히 들여다보고있는 그에게로 처녀양식공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책임기사동지, 물고기먹이를 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처녀는 울상이 되어 말을 하였다.

《뭐요? 왜서 타지 못했다는거요? 대체 무슨 일이요?》

《창고장아바이가 그러니까... 지배인동지가 먹

이출고를 중지시켰다면...》

《뭐, 지배인동지가?...》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줘야 말이지요. 연어들이 아침을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녀는 안타까운듯 울먹이면서 눈물이 글썽해졌다.

이건 도대체 어찌된건가. 지배인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지실 했다는건가.

철민은 도저히 리해가 되지 않았다. 설마 그가 그만두자고...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희망에 넘쳐 의기양양해서 연어양식의 전망을 토로하였던가.

신철민의 머리엔 도수산관리국에서 있는 회의에 참가하고 나오면서 하였던 지배인의 말이 떠올랐다.

《철민기사! 오늘 회의에 참가해보니 연어양식 말이요. 투자가 적게 들고 실리가 크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만 하거든. 오참, 자네가 그걸 말아해보지 않겠나?... 내가 힘자라는껏 밀어줄테니 어디 한번 본때있게 해보라구!》

림대진의 틀진 목소리가 지금도 그의 귀전에서 맴돌았다.

신철민은 착잡한 마음을 달래며 사업소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림대진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신철민기사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 책임기사...》

《?!...》

《말을 해야 알게 아닌가.》

림대진은 다우쳐물었다. 신철민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 연어먹이출고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는게 사실입니까?》

《오, 그거?... 내가 중지시켰네. ... 현대 뭐가 잘못되길라도 했다는건가?》

《전... 지배인동지의 연어양식에 대한 견해를 알고싶어 그러니까.》

《음?— 나의 견해를 알고싶다... 좋네... 게 좀 앓게.》

림대진은 담배 한대를 입에 물고 불을 그어댔다.

그의 입에서는 파르스름한 담배연기가 명실명실 흘러나왔다.

《술직히 말하자구. 난... 이제는 연어양식에 큰 기대를 걸지 않네!... 작년실적만 좀 보자구.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돌아온 연어마리수가 대체 얼마인가.》

림대진은 답답했던 속을 시원히 터놓은듯이 담배연기를 깊숙이 들이켰다가 후련하게 내뿜었다.



신철민은 대답이 없었다.

《말하자면 생산성이 문제거든. ... 수백만마리를 깨워서 바다로 내보냈다고 치자구. 전문적으로 연어연구만 하는 과학자들한테는 어떨지 모르나 우린 생산자가 아닌가. ... 생산자들은 국가계획을 놓고 따지거든. ... 경제라는건 수입 대 지출이 맞질 않으면 걸어치워야 하는거네.》

대진은 그루박듯 말했다. 하지만 신철민은 반신반의하는 그의 태도앞에서 물러서고싶지 않았다. 그는 의자 앞끝에 바짝 나앉으며 진중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지배인동지, 도중에서 그만둘 생각을 하셨다니 저로서는 정말 섭섭합니다.》

《아! 아! 뭘 또 지나치게 생각하나. ... 시간랑비, 로력랑비! 그저 우린 파악있는 다시마나 밥조개양식이나 하자구. 그러니 너무 신경쓰지 말걸 권고하네.》

림대진은 버럭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철함으로 된 서류장에서 서둘러 사무용 가방을 꺼내들었다.

《관리국에 회의갈 시간이 되어서 가봐야겠네. ... 책임기사생각이 정 그렇다면 올라가는데 한번 더 지켜보자구. ... 내 그때 가서 결심을 하지.》

림대진은 부랴부랴 방문을 열고 나갔다.

지배인방에서 나온 신철민은 터벅터벅 발이 가는 대로 걸음을 옮겨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엇이 앞을 가로막았다.

철민은 몹시 놀라 머리를 쳐들었다. 장태섭이었다.

그제야 철민은 자기가 배들이 정박한 널마루잔교 위로 들어섰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태섭은 굵은 태장바줄통구리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갑자기 태장바줄은 어디서 났어요? 분명 사업소엔 없겠는데.》

《지배인이 시에서 가져왔다더군. 다시마와 밥조개혼합양식장을 더 늘이겠다더구만.》

철민은 언젠가 가공반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군덕거리던 말을 들은 생각이 났다.

《췌, 조용해! 지배인이 합영을 한대. 어느 사업소라구 했던가...》

《어구자재와 양식자재를 가져오는 대신 낚지를 많이 잡아 수출한다나?...》

장태섭은 철민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더니 말을 하였다.

《너무 속을 쓰지 말라구. ... 바다일이야 지그시 힘을 써야 하는게 아닌가. 대진이 그 사람 성격이 좀 파하긴 해두 뒤는 없네. 그건 내가 알지... 맘 폭 놓으라구. ... 날 믿으라니까.》

태섭은 껄껄 웃으며 바줄통구리를 멘채로 잔교밑에 정박해있는 작은 기선에 훌쩍 뛰어내렸다. 태섭은 어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철민은 떠나가는 기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3

포구에 정적이 깃들어가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퇴근길에 나선 철민이 정문앞 접수실을 지나쳤다.

이때 등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민은 걸음을 멈췄다.

《거 철민기사 아닌가?》

어둠속에서 다가오는 사람은 장태섭반장이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철민이 묻자 태섭은 철민의 귀가까이에 대고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좀전에 지배인이 말하더구만. 자넬 데리고 자기네 집에 가있으래. 무슨 일인지... 하여간 가보면 알겠지...》

나들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들을 림대진의 안해가 반겨맞았다.

《선미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이게 이 집에서 초청장을 내셨소...》

《에고, 나도 모르겠어요. 손님온다고 준비하러 명령하면 그대로 한다는것밖에 내사 알우?》

손님단련에 숙달된 너부죽한 그 마음씨가 대번에 안겨왔다.

전실로 들어서던 그들은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백팡이 쏟아져내리는 네온등빛에 드러나 벽 한면을 다 차지한 대형어항이 그들을 놀래웠다.

각양각색의 관상용금붕어며 물고기들, 밀바닥에 깔린 하얀 조가비, 골뱅이들, 울긋불긋한 바위돌, 너울너울 춤추는 풀들...

별의별 희한한 물고기들이 다 있었다.

작은 바다였다.

림대진의 안해가 신선한 도마도화채를 담은 그릇을 올려놓은 다반을 들고 들어왔다.

장태섭이 말했다.

《선미 어머니, 어른도 차츰 나이들어가면 아이들의 세계로 되돌아가는가보군요. ... 대진이 그 사람 동화의 세계를 좋아하는줄 내 왜 미처 몰랐을가요.》

《무슨 그래서겠나요. 물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굳어진 습관이여서 그러겠지요 뭐.》

《하여간 늘 물고기비린내만 맡다 여기 오니 뻥뻥해지는데요?... 옛말에서 토끼가 룡왕에게 불사약을 바치러 갔다던 그 수중룡궁에 들어온것 같은게... 허허허.》

장태섭은 유쾌하게 웃어댔다.

어항속의 물고기들을 보는 신철민은 림대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상싶었다.

집안에 들어와서까지 바다와 떨어져 못사는 지배인...

이때 마당에서 문에 매달린 종소리가 들렸다.

《아이참! 이제야 들어오시는가보군요.》

문가에서 림대진의 손에 든 가방과 작업복을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며 안해가 말한다.

《좀 빨랑빨랑 다니시구려, 사람들을 불러다놓고는...》

《아파! 들어서자부터 그 잔소리 또 시작됐어... 쫓쫓... 가는 곳마다 추궁이군그래...》

대진이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방안에 들어서는 림대진의 몸에서는 혈기 왕성한 기운이 확 풍겨왔다.

《이거 늦어서 미안하네. 정말 바쁘구만.》

《원참, 일은 혼자 하는것 같군.》장태섭의 비양 조어린 말이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대진은 어항앞부터 척 가서더니 뽀로는 금붕어들을 들여다보았다.

《요사이엔 금붕어들이 무척 컸어... 저속을 들여다보느라면 피곤이 쭉 풀리거든.》

장태섭이 또 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여보게, 자네 요새 갱소년됐나보군. 아이들처럼 어항을 다 갖춰놓구. 물고기기르는데 취미를 붙인걸 보니 다시 소년시절로 되돌아가려나?》

림대진은 흥그러운 어조로 대꾸했다.

《소시적꿈이 좋지 뭘 그래. 난 어려서 바다사람이 될 꿈을 가졌댔어. 지금도 나는 꿈을 꾸네. 이 어항속처럼 우리 앞바다에도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육식거렸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고픈것이 내 꿈이야.》

림대진은 자못 즐거운듯 기분이 떠있었다.

잠시후에 아래방에 상을 다 차렸다는 안해의 전달이 와서야 그들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진이 이 사람,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데... 앉아두 알고 앉아야 할게 아니겠나.》

《아! 내가 말 안했던가?... 오늘은 선미 예미 생일이지. 안사람들 생일이야 바깥사람들이 관심해주어야 하는거지. 안 그래?》

그제서야 태섭이와 철민은 빈손으로 들어선 자기들의 처사를 놓고 멍적어하였다. 기미를 알아챈 대진은 옛친구들사이에 무슨 허물이나고 나무람하며 아래방으로 이끌었다.

림대진이 안해에게 생일을 축하하여 컷 술을 부었다. 손사태를 치며 사양하다 반쯤 돌아앉아 곱게 술을 마시는 안해를 지켜보던 대진은 그답지 않게 너스레를 떨었다.

《어이구— 당신 생일술을 달게 마시는걸 보니 어텐가 좀 달라, 아하! 차— 이런.》

대진이 무릎을 찰싹 두들겼다.

《이자 보니 철민기사가 오면 선미 예민 늘 기분 좋아하더구만. 속궁냥이야 뻔하지— 사위감으로는 먹어놓은 떡이다— 그거지?》

신철민이 몸돌바를 몰라하는것을 본 대진의 안해는 남편의 무릎을 꼬집으며 눈짓을 했다.

《싱거운 소릴 삼가하시라구요. 젊은이들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장가들려는것 같수다, 원참... 어서 잡숫기나 하시라구요...》

안해의 뜻밖의 공격에 대진은 몸을 뒤로 젖혔다.

《어허... 이 사람 반공격이 센데?... 술 붓고 안주없이 불이 부은 모양이구만. 자, 아— 당신 좋아하는 취치회야—》

림대진은 입을 벌리는 시늉을 하면서 회 한저가락을 집어 안해의 입에 가져갔다. 그러자 안해는 푸념을 떨었다.

《에그, 망측스럽겐 구시네.》

취치고기회그릇을 안해앞으로 밀어놓은 대진은 긴 한숨을 쉬었다.

《요사이에 자네들이 수고하네. 현대 예쓰는데 비하면 성과는 적거던... 예로부터 물고기 마르면 바다가 아니랬는데 바다사람이야 바다에서 고기잡을 생각을 해야 하네... 없다없다 해두 물고기 얼마든지 있지. 머털 좀더 써야 돼... 현대 판리국장은 회의때마다 연어! 연어!... 어느 천년에 연어가 돌아온다던가. 바라볼걸 바라보아야지...》

그러자 신철민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럼... 지배인동진 연어양식을 아예 그만두자는...》

《아! 아! 그건 그거고. 여보, 요전날 보내온 선미사진 가져오게.》

대진은 안해가 웃방으로 올라가자 철민이옆에 바싹 나앉았다.

대진은 상냥하게 웃으며 말을 하였다.

《우리 선민 어려서부터 철민일 무척 따랐었지. 난 말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세계를 잘 모르겠거던... 우린 한생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자네들은 더 발전해야지?... 레하면 도수산관리국이 라든가 수산성쯤에 가서 일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네. 번듯한 도시에서 살면 나쁠거야 없지 뭐. 그러면 우리 선미도 좋아할게거든.》

림대진은 딸의 사진을 철민의 손에 쥐여주었다.

《철민기사, 우리 선미가 어때?》

신철민은 해마다 연어종자를 가지러 가면 선미를 만나보곤 하였지만 지금처럼 사진에서 현속해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놀랐다. 그제

서야 그의 부모들이 원심쓰고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상싶었다.

밤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철민은 집으로 향하였다.

어쩐지 철민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집안에 어항까지 갖춰놓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고향앞바다에 물고기들이 옥실거리게 할 꿈을 갖고있다는 지배인이 눈앞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연어양식을 강건너 볼보듯 하는것이 서로 다른 두 인간을 보는것 같은 심정이였다.

우리 대에는 락을 못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 선군시대 일군들의 사업리념으로 되고 일관한 자세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느닷없이 선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철민동무! 언제 옥실거리는 우리 고향 바다는 우리 둘의 꿈이지요. 꿈이 같은 사람은 길도 같이 간다는데 우리 손잡고 그 꿈을 꼭 실현시켜보지요.》...

그런 선미가 아버지의 생각을 알기나 하는지...

밤하늘에 류달리 반짝이는 별 하나가 문득 선미의 눈빛처럼 안겨왔다.

아니, 선미는 아버지와 생각이 달라... 선미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마음속에 다지며 철민은 걸음을 다그쳤다.

#### 4

오늘 림대진은 얼마전에 시에서 어구자재를 먼저 당겨다가 부설해놓은 밥조개와 다시마혼합양식장을 돌아보려고 현지료해를 떠났다.

현대 양식장에는 경비원 한사람밖에 없었다.

잔잔한 파도만 미풍에 흐느적이는 한적한 바다 넓은 면적을 차지한 양식장에는 사람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라는 태장판리는 하지 않고 도대체 로력을 어디다 빼돌렸어! 제기랄...)

알아보니 장태섭반장이 휘둥해가지고 다들 백학천으로 갔단다.

대진은 화가 불끈 정수리로 치미는상싶었다.

림대진은 땀땀 땀흘리며 자전거로 30리길을 내달렸다.

백학천종류에 닿았을 때였다. 강 한복판에서 처녀들이 벽적 떠들면서 들것에다 돌들을 담아내다 열심히 무저놓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짓들이요? 엉!》

림대진은 가까이로 다가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신철민이 물에서 나와 그에게로 다가왔다.

《저- 지배인동지, 사실은 이번 대장마에 산골물이 불어 쓸어들어오면서 돌들을 날라다 쌓아놓는

바람에 강바닥이 메워져서 이러질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가을철연어들이 올라오겠기에 물길을 열어주느라고 제가 조직사업을...》

《여보! 책임기사, 이제 우리 사업소가 강하천관리소가 할 일까지 도맡아할셈이요? 도대체 사업술 어디루 끌고갈 작정이요?》

지배인이 눈살을 곤두세우자 옆에 서있던 처녀애들이 수군덕거렸다. 이때 태섭이 지배인쪽으로 다가왔다.

《여보게 지배인동무, 처녀애들앞에서 그렇게 있소? 책임기사체면도 보아가면서 이야기할걸 그러질 않소?》

《허참, 지금이 누구 체면이나 보고있을 때요? 국가생산계획을 수행하는가 마는가 하는 심중한 때인데...》

《아니, 우리 사업소가 언제 계획을 못한적이 있었나?》

《자넨... 몰라서 묻나? 두해째나 연어생산지표는 5프로로서 계획을 미달하였네. 올해두 뻔하지. 뽕죽한 수가 있나? 원 내참... 연어양식이 된다면 이 손바닥에 장을 지지라구.》

림대진은 손바닥에다가 송곳질을 하면서 코바람을 내불었다.

《말난김에 한마디 하자구. 태섭이, 자넨 언제부터 그렇게 주대없어졌어? 바다양식장이 돼가는 꼴 좀 보라구. 제노라 하는 바다사람이 바다일은 어디다 쟁버리고 다니나.》

그러자 장태섭이 결이 난듯 어성을 높였다.

《아니, 지배인동무, 처음엔 연어양식을 우리 작업반에 맡겨주더니만 이제와선 손을 떼라는 소리가 아니요?》

《물론이지. 오죽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겠어? 지표를 받아놓구 계획을 못할바엔 아예 걷어치워야 해. ... 계획을 못하면 법적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나. 자네가? 아니면 책임기사가?... 승산이 없으면 제때에 그만둘줄도 알아야 하네. 안 그런가.》

림대진은 열변을 토하였다. 신철민은 그저 침묵속에 서있기만 하였다.

《저녁에 생산총화가 끝이 나면 책임기산 내 방으로 와주게. 자, 그럼 난 가겠네.》

림대진은 채 삭지 않은 기분을 안은채로 울퉁불퉁한 자갈밭으로 통탕거리며 자전거를 끌고 강둑에 올라섰다.

강둑오솔길로 가물거리며 사라져가는 지배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신철민의 심사는 자못 복잡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구름처럼 밀려들었다. 장태섭이 말하였다.

《철민기사, 지배인의 태도를 보니 범상치 않구만. 나두 종잡질 못하겠어. 연어연구소에 다녀오

라구.》

《태섭아바이까지 흔들리면 어쩍니까.… 반장아바이, 강물길과 강둑보수를 부탁드립니다. 내 얼른 언어연구소에 갔다오지요.》

말수더구가 적고 드물지 않던 태섭반장도 오늘날은 안절부절하며 서성거리는것을 본 신철민은 몹시 민망스러워났다.

그날 저녁 신철민은 지배인으로부터 도수산관리국에 보내는 문건을 넘겨받았다. 철민은 출장길에 올랐다.

어쩐지 출장갔던김에 딸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던 지배인의 눈치가 좀 별스럽게 느껴졌지만 철민은 오직 한가지 생각, 언어양식의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가질만 한 그 무엇을 위해 한시바삐 립선미를 만나고싶었다.

…

삼복철이 지나자 바다에서는 벌써 선기가 떨어진 듯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강대안을 타고 수정천 상류에까지 밀려왔다.

추석이 가까와오는 때여서인지 저녁달빛은 유난히도 청청한 빛을 뿌려주며 철민이와 선미가 걷고 있는 방둑길우에다 따뜻한 정을 화끈히 부어주는 상심었다.

신철민은 한해사이에 퍼그나 현숙한 처녀로 변한 립선미의 모습에 자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립선미는 차분한 어조로 철민에게 말하였다.

《철민동문 어려서부터 날 친동생처럼 사랑해주었지요. 지금도 콩깍지쪽배를 만들어 하얀 종이뎀을 꽃아주면서 내 손으로 백학천에 띄우게 해주던 것이 생생해요.》

《그 말이 어쩐지 의미심장하구만. 선미가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내니 말이요. 그건 무엇때문이요, 듣고싶은데?》

신철민의 룡기어린 어조에 선미는 발끈해났다.

《난 실없는 소릴 좋아 안해요. 철민동문 어려서부터 배를 무척 좋아하였고 바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생각하고있어요.》

《아하, 알만 하구만. 동무가 좀 별스럽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보요. 아버지가 편지에서 뭐라고 쓴게 아니요?》

립선미는 신철민이 신통히도 자기의 정통을 찌르려드는것 같아 속을 바재이며 걸어갔다.

립선미의 머리속에선 아버지가 써보낸 편지구절이 맴돌고있었다.

…선미야, 이번 기회에 철민기살 도수산관리국에 떨어지라고 잘 구슬려보렴. 난 철민기살 남처럼 생각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는 언어양식을 그만두라고 해서가 아니구… 그것때문에 철민일 여기에 묶여돌 생각은 없다. 너희들이 번듯한 도시에서 새로

운 생활을 펴는걸 보고싶어하는 이 아버의 심정도 알아줘야 할게 아니니?…

《선미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거요?》

립선미는 철민이 묻는 말에 오편 놀라 어깨를 흠뻑했다.

《필경 아버지가 편지에 뭐라고 하셨어. 하긴 요즘에 와서 아버지 낄 몹시 원망하실게요.》

《건 무엇때문예요?》

《두해째나 언어생산실적이 없는것때문에 동무아버지하구 의견상 대립되어있어. 참 딱하구만… 그렇다구 하던 일을 도중에 집어치운다면 언어는 누가 키우겠는가 말이요.》

선미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그저 자박자박 걷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한걸음 앞에 나서며 립선미는 신철민을 향해 돌아섰다.

립선미는 그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듯 신철민의 눈을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철민동문 바다를 떠나살라면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아니? 선미, 갑자기 그건 무슨 질문이요.》

철민은 두눈이 멍그래졌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선미는 말했다.

《동문 제대군인에 수산대학졸업생, 게다가 현장기사나 현실체험경력까지 포함하여 징표를 다 갖춘셈이예요. 그런데 왜서 자기발전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 말이예요.》

철민은 놀라왔다. 그가 뭘 말하자고 아니, 뭘 알고싶어하는지… 하지만 그것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지간에 그에게만은 립장을 명백히 하고싶었다.

구름속에 가리웠던 달이 썰쭉 웃는듯 얼굴을 내밀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선미동무, 난 말이요 어부의 아들이요. 어부는 바다를 떠나선 못사오. 어로공들의 최대기쁨이 뭘 줄 아오? 물고기를 한배 그득히 싣고 만선기 휘날리며 돌아올 때요. 그 희열을 안고 어로공들은 한생을 바다에서 살지. 선미도 만선기 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던 아버지를 맞던 중학시절이 기억나겠구만. 만선의 기쁨속에 한생을 살아온 어로공! 얼마나 행복한 이름이요. 그날의 만선기가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소.…》

잠시후 철민은 계속하여 말을 이었다.

《그래 선미동문 날더러 오늘에 와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허약해진 고향의 바다를 외면하라는거요? 어디 솔직한 심정을 말해보요.》

《?!…》



《깊이 든 정을 떼기란 쉽지 않은거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같은 바다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냐 말이요. 어디 말 좀 해보오.》

《?!...》

《우리 고향 앞바다에 연어가 짝 들어차고 연어 떼가 후대를 남기려고 백학산밑에 있는 샘터에 와 닿게 되면 난 만세를 부를것만 같소. 온 세상이 떠나갈듯이 말이요. 그런데 연어는 왜서 돌아오지 않소?... 이걸 어쩌면 좋은가 말이요. 난 동무야말로 이걸 알고 같이 가슴아파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신철민의 두눈에서는 불타는 갈망, 열망의 빛인 양 무엇인가 번쩍이었다. 선미는 무춤 굳어졌다. 잠시후 선미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철민동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연어가 돌아오지 못하는건 아직 환경이나 자기 수질에 적응 못한 연어들의 약한 체질적능력이나 수감능력에 있다고 우리 연구사들은 보고있어요. 서로 다른 수질이나 토질에 익숙된 종자란 같지 않은걸요. 연어원천이 없었던 강들마다에서 원종을 고착시킨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한곳에서 태어나 하나의 샘물을 마시며 자라나는, 대를 이어 물려받는 체질을 가진 연어를 키워 내야만이 백학천에 연어떼가 육설거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철민은 선미의 말에 심취되기라도 한듯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선민 처음 새땅에 옮겨지는 나무도 한동안은 고초를 겪는 법이다 그 말이겠소?》

《그래요. 과학적인 원리에 깊이 파묻힐수록 신심도 신념도 샘처럼 솟구치지요. 연어들의 후각을 길들이고 연어가 자라는 수질이나 환경을 지켜주고 가꾸어가는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신심도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림선미는 신철민을 정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신철민은 결연한 눈빛으로 선미를 마주 바라보았다. 철민은 말했다.

《그렇지, 선미마음도 그렇겠지? 그런걸 난 또... 이제 우리가 이 바다, 이 강을 가꿔주지 않으면 바다도 강도 우릴 버릴거요. 선미,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의 부름과 량심앞에 뿔뿔이 대답하는 선군시대 어부로 살고싶소.》

림선미는 신철민의 말을 의심치 않았다.

오히려 자기 땅, 자기 바다에 더 깊숙이 몸을 잠그려는 그의 높은 지성과 인정세계에 자석에 끌리는것처럼 어쩔수없이 자기자신이 끌려가고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아! 정이라...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고향의 바다와 헤어지라고 내 어찌 무엄한 말을 입에 올렸단 말인가. 에이, 난 안타깝비야...

림선미는 신철민의 앞에서 본의아니게 아버지의 의사를 대변하였던 자신이 역스럽게 여겨져 량볼이 금시 화끈 달아올랐다.

이때 철민의 허리춤에서 손전화기종이 울렸다.

《예, 철민입니다. 래섭아바이예요? 뭐라고요?... 연어양식장을 넘겨준다고요? 어디에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손전화기를 끈 철민의 마음속에서는 돌사태가 일어났다.

그는 앞뒤경황을 가릴사이없이 돌아서 밤길을 내쳐 달렸다.

## 5

신철민기사는 아침일찌기 지배인방문을 두드렸다.

《아니, 벌써 돌아왔나? 그래 갔던 일은...》

대진은 반색을 하며 상냥하게 철민을 맞이하였다.

신철민은 마음을 다잡고 말을 뱉으나 의분으로 목소리가 막 떨려났다.

《지배인동지, 정말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절 출장보냈습니까?》

철민은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대진은 느슨한 어조로 말했다.

《진정하게. ... 연어양식장을 넘겨준것때문에 그러지? 어찌겠나. 날 리해하게. 기업관리를 하자면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게 아닌가.》

하지만 철민은 진정하려 하지 않았다.

《지배인동지, 아래사람들이 일을 그르치면 다 잡아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지배인동지가 끝내 연어양식을 포기하였다는것이 정말 리해가 되지 않아 그렇니다.》

철민은 속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두손을 내흔들었다.

갑자기 림대진의 얼굴에서 두눈이 커졌다.

《뭐? 포기했다구?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되나? 책임기사! 연어양식장을 넘겨주면 우린 필요한 어구자재와 최신형어군탐색기와 탐지기를 받게 되어있단 말이네. ... 생산을 늘이고 해상조건에서 사고도 미리 막자는건데 생각 좀 해보라구.》

신철민은 아무런 대답도 않고 숨만 거칠게 내쉬며 서있었다.

림대진은 저으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툭 털어놓고 말 좀 하자구... 철민이, 난 자넨 남이라고 생각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난 자넨 도

수산관리국으로 소환시키자구 도부국장하구 미리 약속까지 해두었었어. 우리 선미도 내 말을 따를 게구...》

침묵이 흘렀다. 자신을 다잡은 신철민은 침착성을 되찾고 또박또박 말을 하였다.

《지배인동지가 절 위해 마음을 많이 쓰고있는 줄 나도 압니다. 하지만 꼭 하고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온 다음부터 전 언제나 우리 고향 바다를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옥실거리는, 그래서 사시절 언제나 고기배들이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오는 풍성한 바다로 꼭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있습니다. 그 풍성한 바다가 계절에 국한되고 한두가지 물고기잡이로만 끝난다면 우린 후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준단 말입니까? 물론 생산실적에 신경쓰는 지배인동지가 리해는 됩니다. 하지만...》

잠시 철민은 책상의 한쪽부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처음에 연어양식이 제기되었을 때 난 온밤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과학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연어양어사업소를 돌아보시는 모습을 텔레비존으로 보았던 생각이 나더군요. 삼복철의 그 무더운 때에도, 찬눈비 내리는 날에도 늘 연어양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여러차례나 연어양식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던 자애넘치신 그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림대진은 뜨거운 증기처럼 뿔어져나오는 신철민의 열정넘친 목소리에 심취된듯 아무말없이 오래도록 창밖을 내다보았다.

《물고기들이 옥실거리는 양어못을 바라보시다가 <절감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도 기쁘시어 한순간이나마 만시름을 잊으신듯 그리도 호탕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밝으신 모습을 전 일생토록 잊지 못할것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러보신것이 무엇이였겠습니까. 물맑은 우리 나라의 강들과 드넓은 푸른 바다에 연어떼가 옥실거리며 찾아오는 모습을 그러보신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자들만 먹는다는 연어를 우리 인민들이 다 맛보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게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연어양식을 끝까지 할 결심입니다. 지배인동지, 절 믿으십시오! 전 기어이 해낼것입니다.》

신철민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지배인동지, 제가 지나쳤다면 용서해주십시오. 그럼 전...》

신철민은 방을 나섰다. 가슴을 두드리는 쿵— 쿵— 심장의 박동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이들이 지나간 어느날 저녁이었다.

갑자기 밤하늘에서 섬팡이 번쩍이더니 집천정을 박산넝겅처럼 우리가 터져나오고 바람이 휘몰아쳤다.

짜르르— 굵은 비방울이 휘뿌러지면서 유리창문을 두들겨댔다.

마가울태풍은 신철민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불현듯 철민은 장태섭이네 작업반에서 보수한 강둑이 걱정되었다.

(갓 복구한 강둑이 무사할가.)

신철민은 저녁상을 물리자바람으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철민이 강둑에 이르렀을 때는 시시각각으로 강물이 솟구쳐오르고있었다. 역수로 퍼붓는 대줄기같은 비발들, 범람하는 강물, 겉옷을 잡아벗길듯이 펄럭 펄럭 기승을 부리는 강풍, 내리쏟리는 산골물, 기슭을 깎아내는 세찬 물살...

신철민은 지체할 사이없이 물에 들어섰다. 우선 큰 돌들을 날라다 미타한 강둑 돌담밑에 덧놓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지났을가. 점점 철민은 맥이 진해갔다. 휘청이는 몸을 돌담에 기대는 순간 돌담이 움썹움썹 움직이는것 같았다. 속이 철렁해났다. 위기일발의 한초한초가 흘렀다. 식은땀이 빠질빠질 났다.

이때 캄캄한 어둠속에서 전지불을 비치며 달려오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철민이!—》, 《책임기사동지!—》

장태섭의 석심한 목소리, 양식반처녀들의 목소리였다.

장태섭이 달려와 기진맥진한 신철민을 부축하며 불렀다.

《여보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서 하다 어찌자고 그러나— 빨리 나가자구—》

《아니! 어텔 나가요... 돌담이 움직이는데... 안됩니다. 물이 짙 때까지 나하구 여길 견지하자구요... 뚝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끝장...》

신철민을 붙잡고서있던 장태섭이 반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자! 나하구 철민기사가 돌담을 버티겠으니 흠마대를 날라다 쌓게. 빨리!》

양식반원들은 우뚝하게 패인 돌담우에다 마대뚝을 불이 번쩍할 사이에 쌓아놓았다...

역수로 내리던 비가 멎기 시작하였다...

이때 장태섭에게 의지했던 신철민이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책임기사, 왜 그러나— 어쩔 다쳤나?》

신철민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자— 철민이, 내 등에 업히게.》

그러자 신철민은 그의 등을 떠밀었다. 《뚝이… 허물어지는…결 보면서 어디로 간다는겁니까? 좀더 조금만 더… 견지해야지요.》

《이 사람아, 어찌자고 그래! 엉?》

장태섭은 그의 허리를 불안고 뜨거운것을 꿀꺽 꿀꺽 삼켰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해변가에선 잔비가 계속 내리고있었다.

지난밤에 불의에 들이닥친 해일과 태풍의 여운으로 바다기슭은 한산하였다.

림대진은 아침일찌기 부두가로 나와 배들의 대피정형을 돌아보고있었다.

간밤에 신철민기사를 업어다 집에 눕혀놓은 장태섭은 눈불일 사이없이 아침일찌기 부두가로 나왔다. 양식작업반의 전마선들을 대피시킨것이 안심치 않아서였다.

널마루잔교우에서 장태섭은 림대진과 마주쳤다.

아직도 기가 죽지 않은 센 바람은 두사람이 입은 방수복자락을 펄럭펄럭 나쭈켰다.

밤을 지새워 우묵하게 꺼져들어간 장태섭의 두눈은 림대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여보게 대진이, 지난밤에 철민기사가 백학천강뚝을 지키다가 심하게 다친걸 알고있나?》

대진은 몹시 놀란듯 흠칫 어깨를 들쭉였다.

《자넨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도 모진가 말일세. 자넨 말끝마다 바다사람, 바다사람 하는데 그래 자네가 이 바다를 위해 하는게 뭐가… 그래 자넨 제집 어항에 관상용물고기들을 기르면서 바다를 풍성하게 할 꿈을 갖고있다고 말은 곧잘하는데 그 꿈이 허끝의 말에 불과한건가? 자네가 못하겠으면 젊은 이들의 장한 걸음을 떠밀어라도 줘야 할게 아닌가. 내 오늘은 단둘이니 말좀 해야겠어.》

태섭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자네 확실히 달라졌어. 사람이 변했단 말일세. 철민기사가 우릴 얼마나 원망하겠나.… 어버이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실현시키겠다고 아글타글하는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어디됐나? 됐는가 말일세.… 자네두 심장이 있고 열주머니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의 체온이 도대체 몇도인가를 다시 재보는게 좋겠어.》

장태섭은 얼굴로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바닥으로 벽— 내리쬘더니만 뒤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쿵— 쿵— 널마루를 깐 잔교가 울렸다.

림대진은 진동해나는 몸을 가누며 함구무언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나는 어쩌서 태섭이의 말에 대답 한마디 못하고 여기에 서있는가.)

림대진은 장태섭이에게서 호되게 얻어맞았다고 생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과묵하던 저 사람이 나한테…

×

가을이 왔다. 백학산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골안을 깨치며 쏟아져내리는 폭포수에서 새털것 같은 젖빛안개가 피어나 골짜기를 짙 메우며 흘러내리던 마가울의 어느 이른아침이었다.

연어양식장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강변을 통채로 막고 나무살창덤장을 설치한쪽에서 왈카닥— 절카닥— 무엇이 뒤척이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아침일찌기 목에 수건을 걸치고 세면하러 강가로 나오던 신철민은 멈칫하고 서서 귀를 강구었다. 숨막힐듯 한 예감에 심장이 금시 부풀어났다.

《연어다!— 연어!— 동무들— 연어가 돌아왔다— 연어가!》

그의 목소리가 골안의 잠을 깨쳤다. 아니, 연어가 골안의 정적을 깨쳤다. 잠간사이에 사람들이 달음질쳐 모여왔다.

《책임기사동지!— 저길 봐요— 또 한무리가 올라오고있어요!》

처녀양식공들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정말 안개속을 헤치고 연어들이 물줄기를 꼬리로 차면서 올라오는게 아닌가!

연어들은 해가 중천에 뻗는데도 계속 들이닥쳤다.

정오시간이 다가왔다. 소식을 듣고 림대진지배인과 장태섭반장이 연어양식장으로 들어섰다.

아릿다운 처녀와 함께…

장태섭반장이 철민에게로 다가왔다.

《철민기사, 누가 왔나 좀 보게. 선미연구사가 왔어.… 우리 사업소에 현지연구사로 아주 왔단 말일세.…》

태섭이 특— 하고 어깨를 건드렸지만 신철민은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어안이 병병하여 서있었다.

《자! 보라구— 이래두 믿지 못하겠나?… 파견장을 보라구.》

장태섭이 준 파견장을 보고서야 철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선미! 내 동무가 이렇게 울줄 알았어.)

둘의 사연많은 눈길은 허공에서 부딪쳤다.

(철민동무, 그동안 날 욕 많이 했지요. 난 동무결으로 돌아왔어요. 영원히 동무결으로 말이에

# 우리네 《단풍》호엔 차고넘친다



김 덕 선

풍랑사나운 바다바람 맞으시며  
원수님 우리네 어로공들을 찾아오셨던  
그날의 감격 못 잊어  
파도는 넘실 배전에 넘실  
갈매기도 흰나래 춤가락으로 펼쳤는가

물갈기 날리며 파도를 가르는  
우리네 《단풍》호엔 차고넘친다  
지난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자신의 존함으로 인사를 보내주신  
원수님서한을 받아안은 기쁨

우리네 《단풍》호엔 차고넘친다  
우리를 평양에 초청하시어 연회도 베풀어주시고  
이 세상 모든것 다 준대도 아깝지 않다시며  
우리들을 혁명전우라 불러주신  
당의 그 믿음 그 영광

평범한 어로공인 우리들 무엇이기에  
이런 믿음  
이런 행복 받아안았던가  
출항의 배고동소리 울릴 때도  
귀항의 배고동소리 울릴 때도 어려와라

랭동저장실마다에  
뼈곡이 차있는 물고기를 보시고는  
포탄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병기창같다고  
그리도 환히 웃으시며 기뻐하시던  
원수님의 사랑넉넉 모습

날에 날마다 새겨안노라  
군인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물고기를 먹으며 좋아한다니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신 그이의 뜻

원수님 이런 사랑속에  
병사들은 물고기상자를 포탄상자로 받아안고  
원썬격멸의 용맹떨치고  
우리네 어로공들은 그이의 혁명의 뜻  
한생의 좌우명으로 받아안고 바다에 산다

아, 우리네 《단풍》호엔 차고넘친다  
날에 날마다 병사들에게 주고주시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  
날에 날마다 더해지는 원수님사랑 꽃피워가는  
우리네 어로공들의 끝없는 긍지!

요!)

신철민은 선미의 모습에서 오래동안 눈길을 멈추었다.

살창덤장안에서 좌- 좌- 물을 헤가르며 돌아치는 연어들. 종일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을 광경앞에서 림대진은 깊고깊은 심연에 잠겨버렸다.

아, 나는 진정한 바다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서 젊은 사람들의 샘처럼 맑고 깨끗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출하는 뜨거운 애국심을 보려 하지 않았는가.

자연이 가져다주는 기회나 혜택만 바라면서 철따라 흘러들어오는 고기만 잡을 생각을 한 내가 진짜 바다사람이란 말인가?

바다사람! 오늘날의 바다사람은 저 철민기사처럼 제가 나서자란 바다를 제 살붙이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 바다를 살찌우고 더욱더 풍성하게 가꾸어 가는데 온넋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오늘의

바다사람이다!

새 세대들의 저 불같은 열정은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백학천에 연어가 돌아오게 하였구나! 이 바다에서 영영 사라졌던 연어가 오늘은 장군님의 녀원안고 고향으로 돌아오고있구나!

림대진은 후더운 눈길로 장태섭이와 신철민, 선미의 모습을 미덥게 바라보았다.

신철민은 림선미의 두손을 짹 움켜잡고 옆에 떠서 흔들었다.

《선미! 드디어 우리가 키운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소. 동무가 늘 말하던것처럼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왔단 말이요, 하하하!》

그들을 바라보던 장태섭이 림대진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연어두 오구 처녀두 오구... 좋구만, 허허.》  
《허허허.》

둘의 웃음소리가 백학천골짜기를 흔들었다.



# 겨울의 미곡벌에서

성 연 일

## 1

맵짠 날씨다  
눈보라는 허공중에 덩굴며  
휘파람소리를 내는데  
보아라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미곡벌은  
거름내는 사람들로 붐비누나  
기계들로 붐비누나  
나는 여기 미곡벌에  
취재를 나온 몸  
만나야 할 일꾼들은  
사무실 어디서도 볼수가 없어  
그들을 찾아 포전길에 나섰다  
일꾼들을 찾아 제일 힘든 일터로  
바람은 사정없이 눈가루를 들썩우고  
눈보라엔 아랑곳없이  
거름실은 트랙터로 내걸을 지난다  
그 어느 포전마다 날리는 붉은 기발  
안개발같은 눈보라속에  
승벽으로 솟아오르는 거름더미  
어디서나 울려오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장판이로다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미곡벌이어  
손님도 맞을새없이 바쁜 곳이어

## 2

드넓은 미곡벌 한복판으로  
곧추 뻗어간 포전길  
나는 지금 청년작업반으로 가는  
거름실은 트랙터적재함우에 타고있다  
어느 개울가에서 파온다는 감탕덩이들  
그우에 앉은 파란 목도리 세 처녀  
무엇이 좋은지 그냥 웃어대누나  
나도 그들 따라웃으며 묻는다  
-분명 여기에 관리위원장이 있었다지?  
-그럼요  
해뜨기 전 새벽에 보았어요  
그러자 또 다른 처녀가 말한다  
-포전방송원고 쓰는  
리당비서동지를 나도 봤어요  
처녀들의 웃음을 싣고  
홍뜨는 나의 마음을 싣고  
기세좋게 달리는 트랙터

돌부리에 걸채여 덜커덩  
적재함이 흔들리는 찰나  
-세우라요  
약속이나 한듯 터지는 처녀들의 목소리  
길우에 감탕덩이 하나가 덩굴고있다  
어느새 뛰어내려 감탕덩이를 안아올리며  
처녀는 팬스레 운전수에게 눈을 흘킨다  
아, 저 모습  
감탕덩이가 그 무슨 보물이나 되는듯  
뒹어지는 솜옷자락도 잊은채 웃고있는  
처녀 미곡벌의 처녀야  
너 어찌면 그리도 아름다우나  
눈보라속에 피어난 세송이 꽃처럼!...

## 3

불어치는 눈바람조차  
여름날의 선들바람인듯  
솜옷자락 활활 풀어헤친채  
걸이대 휘두르는 청년들이  
너희들의 일모습에 반해 그 모습에 끌려  
나의 온몸에선 지금  
땀흘리고싶은 충동 뿜어오른다  
말리지 말아다오  
취재온 기자가 걸이대를 천다고  
미안해하지 말아다오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지 못해  
괜한 걸음을 하게 했노라고  
좋기만 하다  
온 미곡벌을 제집 트랙마냥 밟아가는  
그네들의 모습 그 열정이 보여와  
아, 드넓은 농장벌을  
사회주의수호의 결전장으로 정한 사람들  
올해엔 기어이 원수님께 기쁨드릴  
쌀난가리를 높이 쌓자고  
애국농민들의 모습앞에  
맵짠 눈보라인들  
어이 머리를 숙이지 않으랴  
나는 쓰련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쌀로써 받들어가는  
오늘의 애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땅에 찬란히 밝아올  
강성부흥의 새봄을 부르며  
미곡벌에 넘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쌀이 넘치는 소리

나의 글줄마다에 내려치게 하련다  
 새해의 힘찬 발걸음소리 울리는 이 땅에  
 가을이면 풍요한 벼바다가 장엄히도 펼쳐지려니  
 조국이어 미곡벌을 믿으시라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 되는 이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 꽃피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미곡벌의 장훈을 믿으시라!

—미곡농장에서—

## 평범한 사람

박 정 철

그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고난의 눈보라가 휩쓸어간  
 고향산천을 푸른 숲으로 뒤덮은  
 하여 고향땅을 온 나라가 알게 한  
 이 숲의 주인은

숲을 떠나 못살아  
 숲에 정을 두고  
 숲에 사랑을 쏟으며  
 그것을 더없는 락으로 아는  
 그는 평범한 산림감독원

고난의 눈보라가 산을 얼कु고  
 무성한 숲을 휩쓸어간 그 나날  
 산새들마저 훨훨 숲을 찾아 떠날 때  
 손뻐를 놓고 바라만 보았던가  
 머나먼 곳 푸른 숲 푸른 산천

그는 배낭메고 나섰더라  
 이웃군의 산밭을 뚫으며  
 한줌두줌 아카시아씨앗을 모으고  
 한배낭 두배낭 나무모를 구하여 심은  
 크지 않은 그의 집 터밭은  
 마을의 첫 터밭 양묘장이 되었다

새벽이슬에 옷을 적시며  
 풀짜기마다 있던 양묘장들을  
 매일같이 돌보는 수십리길은  
 그 누구도 모르는 그의 첫 일과

이제 그 나무가 언제 싹트고  
 언제 자라 락을 보겠는가  
 사람들 말을 할 때도  
 자신의 락보다도 후대들의 락을 위해  
 마음은 먼 앞날에 두고산 사람

곳은 날 마른 날 가림없이  
 나무를 심어가꾸는 그 산판길은  
 애국의 높은 봉우리에  
 한자옥 두자옥 툭아오르는 길  
 내 조국의 푸른 옷자락 펼쳐가는 길

애국의 그 마음  
 년륜으로 새겨안은 아카시아 밤나무들  
 봄이면 꽃향기 풍기고  
 가을이면 산열매 주렁지는 산  
 행복이 무성한 숲속길로  
 기쁨에 묻혀 걷는 그의 순회길

청청한 숲을 안고살면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수수한 그 한마디에도  
 고향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려갈  
 애국의 한생이 뜨겁게 어려있거니

김정일애국주의를  
 푸른 산 푸른 숲으로  
 고향산천을 빛내인 사람  
 그는 평범한 산림감독원이다

벽 시 .....

노  
래  
와  
비  
단

리  
명  
옥

필필이 쏟아지는 저 비단폭포는  
 비단치녀 우리가 부르는 심장의 노래  
 더 빨리 달리는 우리의 순회길은  
 비약의 불바람 일으켜가는 신념의 행진곡  
 직기마다 울려퍼지는 저 동음소리는  
 우리의 심장속에서 울리는 혁명군가의 선율

노래로  
 새해의 첫 자욱을 땀 우리  
 노래와 함께 올라서리라  
 2014년의 승리의 평마루에  
 인민의 리상이 웃는 그 언덕에

# 룡홍강의 전설

손 광 수

나는 전설이란 사람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싶다. 어떤 사람들은 전설을 두고 《이루어질수 없는 꿈을 담은 옛사람들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허나 나는 그 옛사람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전설을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으로 크게 한 일도 없는 내가 그이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세계최상급의 살림집에 입사한 다음날이었다.

나는 새집들이를 한 기쁨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 갚을가 하는 조바심에 모태기며 집으로 가고있었다.

한쪽의 비단필인가 황혼에 붉게 물든 룡홍강은 옥같은 룡의 초리인양 눈부신 빛을 뿌리며 흘러가는데 문득 강기슭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할아버지, 이 강을 왜 룡홍강이라고 하나요?》

《아득한 옛날에 한쌍의 룡이 인간세상에 내려왔는데 저 남산의 경치가 하도 좋아서 그만 하늘나라를 잊고있었다. 그러다 옥황상제의 령을 받고 갑자기 하늘로 올랐지. 그런데 룡들이 올라간 이곳에 이상한 물이 흐르고 그때부터 마을이 흥했다고 해서 이 강을 룡홍강이라 불렀다누나.》

호기심많은 손자애에게 들려주는 할아버지의 구수한 이야기는 저도 모르게 나를 전설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를 들어 바라보니 눈뿌리 아득히 솟은 우리 교육자살림집이 마치 한쌍의 룡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오르다 굳어진것만 같았다.

저녁해빛을 받아 번쩍이는 저 창문들은 룡의 눈빛처럼 살아움직이었고 옥상의 희한한 건축형식은 룡의 온몸을 감돌던 흰구름같기도 하여 룡홍네거리는 말그대로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이었다.

로인의 이야기는 결코 전설이 아니었다.

수수천년 전해져내려오던 전설이 바로 눈앞의 현실로 펼쳐진것이다! 전설속의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름아닌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들이 아

닌가.

지금도 새집의 열쇠를 받아안고 고마움의 눈물 속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던 때를 잊을수 없다.

무지개속으로 스며드는듯 아름다운 두 기둥을 지나 응접실로 들어가면 비단천우에 수놓은듯 한 꽃 문양미단이문이 우리를 반기고 폭신한 쏘파에 몸을 맡기면 극장무대처럼 아름다운 벽을 배경으로 사랑의 텔레비존이 눈길을 끈다.

거울처럼 알뜰알뜰한 주방에는 현대적인 배풍기와 물가열기가 쟁쟁 돌고 찬장에는 일식으로 갖추어진 최고급그릇들이 새집의 안주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서재, 부부방, 부모방, 어린이방, 옷방, 세면장, 샤워실, 위생실... 손가락으로 미쳐 꼽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고많은 방들은 어쩌면 그리도 티없이 섬세하게 꾸려져있는지 너무 희한해서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정말이지 이 집은 집이 아니라 고도로 립체화되고 예술화된, 꿈에서도 본적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립체미술작품이다.

이 전설속의 룡궁이 정녕 나의 집이란 말인가.

이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처럼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가.

지구상에 교육이란 말이 생겨 수수천년이 흘렀지만 어느때 어느 시대에 평범한 교원들을 위해 이토록 꿈같은 사랑의 궁전을 세운적 있었던가.

돌이켜보면 고유수에서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면비교육의 시원을 창조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안겨오고 해방후 사랑의 위촉장을 안고 수령님품을 찾아온 대학교원들의 집마다에 흰쌀을 보내주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따뜻한 눈빛도 안겨온다.

어찌 그뿐이라.

언제 어느때 룡남산교정을 찾으시여도 대학시절처럼 변함없이 교원들을 《선생님》이라 다정히 불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정깊은 음성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품고계시던 보풀이 인 수첩에 붉은색동그라미를 치셨던 그 사랑의 글발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사랑의 러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꿈같이 세워주신 기적의 탑, 억만재부를 들어 만들어주신 따뜻한 금방석!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집이다.

이 집의 가치를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 값을 알고서 새집의 열쇠를 받았던가? 아니, 그 값을 알려고나 했던가?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내가 사는 이 아파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그 액수를 제나라대로 평가하고 교원들에게 그런 살림집을 거저 안겨주었다는 것을 믿을수 없다느니, 그것은 선전에 불과하다느니 하면서 눈으로 봐야겠다고 저마다 피대를 돈군다고 한다.

허나 그들이 천만번 죽었다 다시 살아난들 어찌 알수 있으랴.

집안의 기둥 하나, 가구 하나, 지어 벽지와 바닥에 쓰이는 마감자재에 이르기까지 갖든 어버이의 다심한 손길, 뜨거운 정을 어떻게 몇푼의 돈으로 계산할수 있으며 그 크나큰 웅지를 어떻게 리해할수 있단 말인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들이 우리가 사는 집에와보면 조선의 교육자로 태어나지 못한것을 일생의 불행으로 여길것이다.

위대한 김정원수님의 리상이 과연 어떤 높이인가를, 제국주의의 가장 포악한 봉쇄속에서도 조선혁명이 왜 승승장구하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가치를 행복의 최절정에 단숨에 올려세워주시었다. 세계앞에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보란듯이, 당당히 내세워주시었다.

우리는 여기서 조국의 크나큰 당부를 심장으로 새겨안는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이 창조하는 모든 창조물들과 교육이 이 살림집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리성이 영원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그 높은 뜻을!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교원들이 반복과 답습으로 일관된 지난날의 단순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세계최상급의 살림집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을 키워내라고, 그래서 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선군조선이 영원히 추억하는 창조자가 되라고 우리들을 전대미문의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었다!

이 립체적인 창조와 보답의 방정식이 우리모두에게 삶의 영원한 과제로 안겨진것이다.

어느덧 날은 저물어 하늘의 은하수가 통채로 쏟아져내린듯 아빠트는 황홀한 밤의 정서를 펼쳐놓았다.

행복의 웃음이 넘쳐흐르는 불밝은 창문들을 바라보느라니 이 시각도 끝없는 사랑의 전설로 조국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온 나라를 교단으로 삼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천만군민에게 말없는 창조의 강의를 하고계신다.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비범한 창조방식, 그이의 창조본패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창공을 치뚫고 솟구치는 참매처럼 창조의 역센 나래를 누리에 펼쳐가리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바라시는 강성국가건설에 나의 정신과 육체를 깡그리 바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머리를 드니 한쌍의 룡이 은백색의 룡홍강에 다시 내려와 하늘을 향해 거연히 솟은듯싶다.

수도 평양의 자그마한 룡홍강, 지도에도 표기되어있지 않는 작은 룡홍강이 저 한쌍의 룡과 더불어 영원한 전설의 강으로 아름답게 다시 태어났다.

어디선가 은은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

그렇다! 조선은 전설로 가득찬 나라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창조하시는 인민사랑의 새 전설들은 창조의 력사와 더불어 철의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 선생님 믿으십시오

리명현  
그림 김광석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잠자코 있던 유전학강좌 전화기가 나직하나 경쾌한 음향을 울렸다.

《유전학강좌입니다. 예예, 제칩니다.… 심선생님, 전화 바꾸랍니다.》

사무를 보고있던 교원들속에서 그중 나이가 들어 보이는 교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이 70이 다돼오지만 곧은 몸가짐이며 윤기도는 반백의 흰 머리칼, 불깃불깃 혈색이 도는 얼굴을 봐서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만만치 않은 정력에 넘쳐있었다.

40여년간 식물육종학계에서 교육과 연구사업을 해온 교수이며 박사인 심재환이다.

《전화 바꾸었습니다.》

《학부장입니다. 수고스러운대로 제 방에 와주십시오.》

《곧 가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심재환은 다른 교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걸음을 옮겨 강좌를 나섰다.

학부장실에 들어서니 체소한 학부장이 의자등받이에 깊숙이 실었던 웃음을 이내 일으켰다.

그는 이런 께의로써 자기를 배워준 옛 스승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심을 표시하는상싶었다.

《어서 여기에 앉으십시오.》

학부장이 심교수에게 알박한 책자 두권을 내밀었다.

《이번에 생명과학분과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학위 논문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인 심재환은 논문을 받아들였다.

높은 실력과 허물수 없는 권위를 갖고있는 그는 그 위원회에서 자못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이건 작년에 기각되었던 논문이 아닙니까?》

《문제시되었던 첨가제를 종시 완성시켰습니다.》

학부장의 말에 교수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다음론문을 펼치니 《온실원형가지의 나무질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 확 안겨왔다. 제출자의 이름은 최봉식이다. 반가운 사람의 얼굴이라도 본듯 교수의 얼굴빛이 금시 느슨해졌다.

《학부장선생은 이 논문을 어떻게 보시오?》

《국가에 주는 경제적수익성은 더 따져볼것이 없다고봅니다.》

온실원형가지는 토종보다 3배인 100톤의 소출을 냈다고 한다.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전 그래서 교육부문 심의란에 수표하자고 합니다. 이 논문은 련화동무와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지 않습니까.》

심재환의 딸 심련화가 이 논문과 관련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동안 말없이 논문을 들여다보던 심재환이 입을 열었다.

《심의위원회의를 언제 한답니까?… 그때까지 제가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우리끼리 있을 땐 제발 말씀을 낮추십시오.》

## 1

푸르스름히 날이 밝는다.

봉식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득한 저 멀리 동천 지평선을 바라보니 어제 날이 어둡해질 때까지 준비를 내리퍼붓다 불장을 마저 보지 못한듯 한 재빛구름이 모두 물려가 떠모양으로 널려있다. 그우로 찬연한 빗발을 이 땅에 뿌리며 솟는 아침해는 참으로 장관이다.

이제 해살이 넓게 퍼지면 저절로 스러질 얇은 실안개는 그래도 좋은듯 동남쪽산등성이우에 발뼉발뼉 오른다.

봉식은 그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희열을 맘껏 느끼며 신선한 공기를 폐장 깊숙이 들여마셨다.

첫 연구과제를 맡고 여기 농장에 온지도 어언 여덟해가 되는 오늘 그는 그 연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이 농장에서 철수한다.

그 기간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새벽에 오가던 시험포전길에 안겨온다.

부지불식간에 4년전 어느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어제일이런듯 방불히 떠올랐다.

그날은 그가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체험해본 많지 않은 기쁜 날들중의 첫날이었다.

...아침일찍 자리를 차고일어난 봉식은 서둘러 옷을 입고 시험포전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어느덧 목적지에 다달았다.

이제는 키가 50센치를 넘어 1미터에 치달아가는 가지포기들이 생신한 물이 한껏 올라 아침이슬을 담뿍 머금고 기다렸다는듯 바람에 설레이고있다.

정말 올해에는 성공의 빛을 보게 될가?

봉식은 발머리에 오금을 꺾고앉았다. 그리고는 포기의 그루를 만져보며 한동안 생각에 골몰하다가 막 일어서는데 반대편에서 사람의 형체가 가지포기우로 불끈 솟아올랐다.

조수로 일하고있는 이곳 농장의 처녀 금실이였다. 그는 시험작물재배기간 발일을 하면서 관찰과 육종특성지표측정을 한번도 어겨본적이 없었다.

농장에서 기재며 로력이며 도와주려 했지만 그러면 시험작물이 우리 정성을 몰라준다고 두엄장만,

모기르기, 발정리, 김매기 등 모든 작업을 자기 힘으로 하느라 포전에서 살다싶이 해온 이악하기 이를데없는 처녀였다.

지금도 새벽시험포전온도측정을 나왔던것이다.

《연구사동지! 여기로 좀 오십시오.》

봉식은 그 말에서 류다른 감촉을 느끼며 발뼉두리를 예돌아 그에게로 다가갔다.

《글쎄 어제 하루밤사이에 5센치메터나 컸습시다.》

그아의 포기에는 막대기가 꽃혀있었다.

봉식이가 맨우의 잎을 상하지 않게 세워 막대기와 비교해보았다.

그의 말이 사실이였다.

봉식은 오금을 꺾어앉으며 그루를 만져보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판판해지기 시작했다는것이 알리지 않는가.

개당 무게가 300~600그램인 원형가지포기는 줄기밀등조직이 판판한 나무질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연한 섬유질로 되어있으면 무거운 열매가 달려있는 아지의 무게를 받아낼수 없을뿐아니라 약간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기 쉽다.

우리 나라 토종보다 3배의 소출을 내는 이 품종을 풍토순화시키는데서 결정적고리가 바로 이 《그루의 나무질화》이다.

아!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심혈을 태우며 마중가던 환희의 문어구인가.

홍분의 열파가 밀려들었다.

훌륭한 조짐이다. 아니, 이것이 분명 성공의 대통로가 열려졌다는 증표가 아닐가?

심장의 박동이 서서히 물조를 바꾸며 흥벽을 두드린다.

호흡마저 빨라진다.

아니야, 아직은 기뻐하기 이르다. 너무 일러.

새 품종 육종완성의 최종목표에 이르자면 도달하여야 할 정점이 아직 몇개인가.

꽃피우기와 그 수정, 열매맺히기, 종자받이, 새종자의 무방향성변이고정...

랭철한 사고는 그의 마음을 천진한 소년의 태평스런 심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금실동무, 어떻게 이 포기애다 막대기를 꽃을 생각을 했어?》

《어제 비가 몇었을 때 제일 큰 이 포기가 밤사이엔 보통때보다 키가 더 커질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잘했어. 이 포기가 일을 칠것 같아.》

《아이, 정말 그랬으면!...》

까만 두눈을 깜짝깜짝거리는 그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도 생기가 흘러넘치는 미소가 피어났다.

왜 그러지 않으랴.

몇년째나 자기 일처럼 여기고 연구사 못지 않게 많은 땀방울을 바쳐온 그였다.

또 다른 사연도 있다.

일하면서 농업대학을 다니는 그에게 있어서 이 원형가지만큼 리상적인 실기시험대상은 없다.

봉식이가 번두리이랑에 심어진 포기들의 그루를 살펴보았다.

드문드문 서너포기들이 그루가 땀땀해진게 알린다.

격증되는 흥분의 열파가 다시 그의 마음을 그리 잡고 통 놓아주질 않는다.

《금실동무!》하고 소리쳐불렀다.

《그 막대기 꽂은 포기엔 비닐테프를 매라구. 그러구 이제부터 그 포기엔 별도루 특별관찰을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이 포기이름을 지어야했는데... 어떤 이름을 단다?... 지금이 이른새벽이니 이른새벽이라고 하는게 어때?... 그러구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단 포기라는 뜻에서 수자 1을 붙여주자.》

《호호, 연구사동지두 참! 새벽이면 새벽이지 이른새벽이 뭘니까?》

《허! 그거 정말... 문학과목에서 락제국을 먹은게 이렇게 빵짜나는군.》

금실이가 얼른 손등으로 입을 가리웠다...

벌써 완연해지는 빛살을 받고있는 시험포에 따사로운 훈향이 실실이 불어온다.

《〈새벽-1〉호. 이름이 참 좋습니다.》

《동무가 좋다면 좋은거지 뭐...》

《야! 이걸련화연구사동지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연구사동지가 보고싶네.》

《이제 며칠 더 경과를 보고 알려주자... 어서 내려가서 아침을 먹으라구. 난 나무질화된 포기들 중에서 한포기를 골라 떠나지구 내려가겠어.》

《혼자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둘이는 고조되는 정서를 한껏 맛보며 어느 한포기를 뿌리 한오리 상할세라 정성들여 떴다.

떠나가는 봉식이를 바래주러 나온 농장사람들이 현미경이며 시약들, 개인사품을 차에 싣는 일을 거들어주었다.

모두들 하나와 같이 서운해하는 표정이다.

왜 그렇지 않으랴.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지금 8년이면 어디 짧은 세월인가.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첫물 농작물을 수확해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고 도움도 받던 로총각연구사가 이제 아주 떠나간다니 한집안식구를 다시 만날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는것만 같아 살점이 저 떠나도록 애잡팔하다.

《이거 눈물이 다 날것 같구만.》

관리부위원장이 젖은 목소리로 누구에게라 없이 말했다.

연구 첫해부터 봉식의 일을 돕느라 원심을 작히도 많이 써온 그였다.

요전번 국가품종등록비교시험위원회 성원들이 내려왔을 때에는 원형가지를 농장의 자랑으로 신명이 나서 설명하고 열매의 요리학적가치도 인정받아야 한다면 손수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지뾰도 만 들었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농장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 말게. 도와준게 있다면 거야 응당 해야 할 일이지. 그래 이제 무슨 연구를 하게 되나?》

《그건 연구소에 들어가봐야 압니다.》

《될수록이면 우리 농장에 와서 하는 연구를 맡게나.》

모두들 그게 좋겠다고 한마디씩 했다.

봉식이가 사람들속에서 아래입술만 감빨고있는 금실이를 띄여보았다.

《금실동문 래년이면 대학을 졸업하지?... 앞으로 당당한 농산기사가 돼야 해. 그리고 해마다 원형가지를 재배하는 과정에 작물이 퇴화되지 않나 잘 관찰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제때에 알려달라구.》

《그게 어떻게 완성한 작물이라구 제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걱정마십시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는 이 시각 봉식은 자기의 실험실이 있는 관

리위원회청사며 시험포진, 이곳 사람들에게 이토록 깊은 정이 든것을 가슴빠근하도록 느끼고있었다.

농장사람들은 집을 떠나 외지에서 연구사업을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연구사가 탄 차를 오래도록 배웅해주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있던 육종1실장이 방에 들어서서 봉식이를 보자 대뜸 환성에 가까운 소리를 쳤다.

《드디어 왔구만!》

《방금 도착하는 길입니다.》

《과제를 완성하고 돌아오는 동무를 술문을 세워 맞아야 하겠는데 너무 섭섭해 마오. 보다싶이 실에는 다들 현지에 나가고 나 혼자뿐이요.》

《제가 무슨 개선장군이라고...》

실장이 봉식에게 자리를 권했다.

《하긴 겸손한건 좋지만 사실 우리 육종가들에겐 인생 이런 날이 몇번밖에 차례지지 않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성공은 했어도 초기계획대로 야외에서 마지막까지 순화시키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연구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야외에서 나무질화를 연구해봤기에 온실에서 성공한것이요. 원종이 온실재배형이라는 동무의 주장에 난 전적으로 동감이요. 그래 농장에 미결건을 남긴건 없소?》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과 헤어지자니 좀 빠근했습니다.》

《그랬을거요. 하지만 동문 요새 사람이 왜 사는지 그 진짜맛을 느끼고있을거요. 참, 동무 작물이 국가품종으로 정식 등록됐소. 등록증은 련화동무도 받게 되오. 빨리 학위론문을 써야겠소. 연간 실사업계획에 반영된것이니 책임적으로 써야겠소. 그러면서 다른 자료작업도 해야겠소.》

이제껏 즐거운 기분이었던 봉식이가 일순 긴장해졌다.

《무슨 자료 말입니까?》

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료작업이란 있을수 없고 육종을 떠난 연구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육종가에게 어떤 연구과제가 차례지는가 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봉식의 두눈빛은 긴장하다기보다는 심중하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이거 8년이나 수고한 동무에게 휴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누만. 하지만 대상은 아주 맏시나는 대상이요. 란꽃과에 속하는 화초를 말소. 그래 어떻소?》

봉식은 한번 흔연히 웃어보일뿐 고집스레 자기 생각에만 집념해있었다.

《동무의 그 침묵이 리해되오.》

실장이 처음부터의 어조를 여전히 바꾸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동무한테는 단도직입적이겠지만 난 많이 생각해봤소. 기껏해야 3년이상 걸리지 않을게요. 조건은 또 조건대로 아주 좋소. 원종이 열대성기온작물이니 온실에 풍토순화시키면 되오. 그러니 집에서 출근하면서 할수 있으니 좀 좋소. 그리고 필요한 모든것을 연구소에서 보장해주겠다는거요. 성공하면 학술적가치도 있으니 이만한 대상이 어디 쉽소. 원예지도국에서도 매우 중시한다니 정말 맞다 들기 힘든 대상이요.》

봉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있다.

연구과제는 그 담당자의 능력이나 준비정도, 더 우기는 하려는 의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철저히 고려하여 맡겨준다.

불현듯 다섯해전, 그러니 원형가지연구를 한지 삼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해 육종결과는 전해에 비해 오히려 좋지 못했다. 시험작물이 생육기일마저 다 채우지 못했다.

현지에 내려온 실장이 봉식이와 발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문 올해 실패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여러가지로 분석될수 있지만 결정적고리는 나무질화를 육종목표에 도달시키는것입니다.》

《그걸 실현시킬 방도는 뭐요?》

《아직은 이렇다할 방도가 나서지 않고있습니다.》

한동안 둘이는 말이 없었다.

《봉식동무, 이 원형가지는 다른 동무에게 넘기고 다른 과제를 맡지 않겠소?》

봉식이가 하던 일손을 툇 멈추었다.

실장도 뒤따라 허리를 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인 권고입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하는 행정적인 지시입니까?》

실장은 빙긋이 웃어보였다.



봉식은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자기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실장의 눈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맞받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저에게는 첫 연구과제이니 경험이 부족합니다. … 그렇지만 좀 생각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몇 해 하다가 성과가 없다고 해서 쫓겨버리고 또 다른 대상을 맡는 그런 연구사에게 성공시킬수 있는 대상이 어데 있겠습니까. 원형가지에서 손을 떼라는 건 저보고 사직서를 내라는거나 다를바 없습니다. 제가 먼 육종탐구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있는 신들메를 조여맬수 있게 이 새 품종 가지연구를 그냥 맡겨주십시오.》

실장은 타는듯 한 봉식의 시선을 피해 어딘가 다른 곳에 시선을 주며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

그러나 지금의 실장은 그때의 실장이 아니다.

그는 지금 육종탐구의 신들메를 바짝 조여매고있는 봉식의 금새를 잘 알고있다는 태도이다.

새 품종 화초연구과제도 그렇다.

자기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실내에서 더 많은 새 육종품종과 가치있는 논문들을 발표하게 해야 하는 조건에서 원종산지의 기후가 비슷하고 육종변이환경도 같다는것을 고려하여 봉식에게 맡기자는것 같다.

하지만 서둘러 결심을 내리고싶지 않았다.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 주겠소. 그러나 부디 긍정적인 방향에서 타산하오. 그래서 우리 실에서도 화초분야에서 한 페이지를 기록해보지요.》

둘이는 서로 마주보며 뜻있는 미소를 나누었다.

《자, 이젠 집에 들어가보오. 어머님을 만나봐요지. … 아, 참! 전화동무한테 전화하오. 어제도 동무가 언제 오는가 전화로 물어군.》

### 3

…육종가는 성공의 싹을 잘 찾을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저와 동요의 심리를 극복할줄 아는것이 훨씬 중요하다.

만일 실패를 거듭하였을 때 앞으로의 연구전망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타산에만 집념하지 말라.

오직 반드시 된다는 상상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아니, 수백번이라도 하고 또 하라.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을 때조차 하고 잠자리

에서 꾸는 꿈도 그런 꿈을 꾸라. 하되 반복만 하지 말고 성공의 의의를 최대한 확산시키라. 그러면 또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새 출발들을 하나의 목적에 끝까지 지향시키는 연구사에게 성공은 마침내 자기의 비밀의 열쇠를 내어주게 되리라. …

얼핏 들어서는 그다지 심오한 뜻이 어리지 않은 듯 한, 그러나 초보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뜻이 어린 이 말은 봉식이의 학력에서 마지막페이지를 기록한 대학시절에 그에게 멀고먼 육종탐구의 길을 걷는 유전학자의 지론이라며 입버릇처럼 해준 심교수의 말이다.

대학시절에는 로교수의 그 혼계속에 담겨진 의미의 진가를 봉식은 미처 다 알수 없었다.

실패라는 허무와 낙망속에 원형가지시험작물의 〈홍작〉을 거두던 가을날에, 칼날처럼 서리찬 눈바람이 그칠새 없던 그 길고 기나긴 겨울의 깊은 밤에 선생님의 말씀이 때없이 떠올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곤 하였다.

성장의 길에 바쳐진 그 어느 선생의 수고도 잊을수 있겠으랴만 봉식은 자기를 생물학의 세계로 이끌어준 중학교 담임선생을 더 잊지 못한다.

…머리가 좋고 열성도 높은 봉식은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모든 과목에서 최우등을 하였다.

특히 수학과 외국어를 잘했다.

그런데 1학년때 생물과목에서 최우등을 하지 못했다.

종자가 싹틀수 있는 조건에 어떤것이 있는가 하는 응용문제답을 정확히 내지 못하였다.

쳐내담임교원은 수업이 끝나자 봉식이를 따로 남겨놓았다.

《봉식학생! 종자가 싹틀수 있는 조건에 어떻게 빛이 포함될수 있어요? 그래 종자가 땅속에서 빛을 받을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배워주었는가 말이예요?…》

얼굴에 빨간 홍조까지 띄우며 준절히 꾸짖는 선생앞에서 봉식은 고개를 쳐들수 없었다.

《온도와 습도는 맞아요. 학생은 영양분도 조건이라고 했는데 땅속에 풀려있는 영양분인가요 아니면 종자자체에 들어있는 영양분인가요?… 그러니 이걸 절반밖에 맞히지 못했지요?… 난 학생이 머리가 나쁘다면 더 말하지 않겠어요. 이걸 다 학생이 생물과목을 차요시켰기때문이에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하지만 생물과목은 특별히 더 잘해야 할 과

목중에 하나예요. 현시대에는 생물공학을 매우 중시하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더 중시된다는걸 알아야 해요. 봉식학생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도 가고 나라에 큰일을 해놓는 이름있는 과학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선생님의 간곡한 타이름은 끝내 봉식의 마음을 울려놓고야말았다.

그래서 생물공부를 더 직심스레 했다.

봉식의 새 결심을 알아차린 선생은 필요되는 책도 얻어주고 종종 시간을 내어 개별수업도 해주었다.

그래서 봉식은 이 세상 모든 생명활동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의 출발점이라고 말할수 있는 농마는 오직 식물만이 만들수 있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왜 생명과학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에 와서 최첨단과학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 이 세상의 생물이 인간과 어떤 련관을 맺고있으며 생물공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리익을 줄수 있겠는가를 점점 파악한 봉식은 앞으로 장차 식물육종가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슴속 깊은 곳에 품게 되었으며 그 길에서 인생의 행복도 보람도 랑만도 모두 찾으리라 결심을 굳히고 또 굳히었다....

그 담임선생님이 내가 첫 육종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봉식은 자기의 상념을 계속할수 없었다. 등뒤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던것이다.

아직은 삼복철이 다 지나지 않았지만 소매긴 연분홍색샤쓰에 새까만 치마를 받쳐입고 그리 크지 않은 가방을 멘 련화가 바빠 다가왔다.

공원의자에 앉아있던 봉식은 그를 마주향해 일어섰다. 그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움을 온 얼굴에 가득한 웃음으로 나타내며 마주섰다.

둘의 그 웃음은 그늘진 점을 찾아볼수 없는 밝고 또 밝은 웃음이였다.

이 땅에 인간에게 필요한 새로운 작물을 탄생시키는 육종가만이 지을수 있는 미소라 할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나한테 무료한 시간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야 련화동무가 잘 알지 않소.》

《그러니 정말 아주 오셨어요?》

《그렇소. 농장에서 완전철수했소.》

《끝내 이런 날이 오고야말았군요. 축하합니

다.》

《동무도 축하하오. 온실원형가지엔 련화동무의 노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지 않소.》

《봉식동지, 우리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반대없소.》

그들은 유보도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적한 사위의 고요도 마치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싶었다.

《이렇게 봉식동지와 걸으니 농장에서 시험포전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던 동구길이 떠오릅니다.》

《동무가 나를 찾아 처음 올 때는 대학생복을 입고왔었는데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소.》

심련화가 대학 3학년때였다.

어느날 저녁 퇴근해들어오는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며 련화는 말했다.

《아버지, 우리 실습나가게 됐어요. 첫 실습이에요.》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그런데 실습연구대상은 자체로 선정해야 한것어요.》

《그렇다면 걱정할게 없다. 교외에 있는 농장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최봉식이라는 젊은 연구사가 있는데 그를 만나거라. 내가 배워준 제자인데 대학때부터 수재라고 소문난 전도있는 연구사다.》

《아버지가 늘 다과목최우등생이라고 칭찬하시던...》

《그래, 우리 집에도 몇번 왔었으니까 이제 만나보면 낮이 그리 설지 않을게다. 지금 그는 거기서 우리 나라에 없던 원형가지를 풍토순화시키는 연구를 하고있다. 그런 연구는 국내에서 새 품종을 육종해내는것보다 여러모로 힘이 드는 연구다. 그러니 배워야 할게 많을게다.》

《알겠어요.》

련화의 얼굴에 웃음이 새록새록 피어올랐다.

연구사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제자이고 과제대상도 의의가 있는 대상이며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니 련화는 모든것이 만족한 모양이였다.

그러는 딸애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던 교수가 심중한 어조로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꼭 알아둘게 있다. 그저 현미경이나 시험관에만 매달리지 말고 밭일도 배워 직심스레 일

해야 한다. 그는 지금 적지 않은 평수의 시험포전을 다루고있다. 조수가 한명 있기는 하지만 연구도 하면서 농사일도 하자니 들이는 공력이 많을게다. 두엄내를 싫어하고 피약별을 마다하는 육종가는 당초에 자격이 없다. 농민들이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열매를 땅에서 어떻게 얻어내는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먼 육종탐구의 길을 건넌다? 이걸 명심해라. 알아들었냐?》

심재환의 말속에는 자식에게 주는 목가적인 타이름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학생에게 가르치는 훈령이라는 의미가 짙게 어러있었다.

《꼭 명심하겠어요.》

그때부터 농장으로 향하는 련화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실습때는 물론 방학때에도 휴식일에도 가군 했었다.

그렇게 대학에서 배운 리론과 실천상의 실기가 결합되었다.

그 파정에 련화는 원형가지연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봉식이의 연구를 도우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풍토순화시 꽃눈분화에 관한 연구》라는 졸업론문을 썼다.

그러다나니 론문작성지도는 의연히 아버지보다 봉식에게서 더 많이 받았다.

련화에게는 론문지도교원을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었다.

론문은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봉식동진 앞으로 어떤 파제를 맡게 됩니까?》

《우리 실장은 우선 학위론문부터 쓰라고 하오.》

《응당 봉식동진 그것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고 란조를 풍토순화시키는 연구파제를 맡으라는거요.》

봉식이 그 대상에 대하여 이것저것 설명했다.

련화는 무척 흥미를 가지고 들었다.

《그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까?》

《반송낙은 했소. 련화동무 생각엔 어떻소?》

《제 보기엔 좋은 대상이라고 봅니다. 열매남새를 한가지 성공하고 화초분야에서 또 한가지 맡아하면 봉식동지 연구실적이 다채로워지겠으니 말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나라면 그런 대상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까.》

《련화동무 의견을 참작하겠소.》

봉식이 옮기던 걸음을 멈추며 련화에게 물었다.

《아니, 련화! 지금 우린 어디로 가요?》

련화는 오목눈에 천천란만한 소녀애의 장난기어린 빛을 띄우며 명랑한 어조로 말했다.

《저의 집으로 가시자요.》

봉식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이 길로 말이요?!》

《무슨 다른 일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소.》

《가서 교수선생님도 만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졸전에 과학원에서 강좌에 전화했었어요. 봉식동지와 함께 간다고 말입니다.》

봉식은 밀막을수도 없고 선뜻 받아들일수도 없어 그저 웃을뿐이었다.

《아마 지금 집에 도착하여 기다리고있을겁니다.》

《글쎄 선생님을 찾아가봐야지.... 그런데 말이에요, 난 오늘은 예견하지 않았소. 솔직히 말해서 론문을 쓰고 보름쯤 있다가 정식으로 만나려고 했소.》

그리고 또...》

봉식이 말꼬리를 얼버무린다.

련화는 그 다음말이 무엇이겠는지 무척 궁금하여 봉식의 얼굴을 뵈히 올려다보았다.

《...내가 동무와 같이 나타나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더구나 사모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난 왜 그런지 자신이 없소.》

순간 지금껏 생기발랄한 기색이었던 련화의 얼굴에 발그레한 홍조가 운무처럼 끼었다.

그는 눈길을 떨구며 아래입술을 감빨았다.

《저의 어머니는 오빠네 집에 나들이가셨어요.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었는데...》

봉식은 대답할 말을 종시 찾을수가 없었다.

《종소. 동무계획에 따를수밖에 없구만.... 그런데 가는 길에 좀 들릴데가 있소. 잠깐이면 되요.》

련화는 낮색을 바꾸며 부드럽게 말했다.

《빨리 가시자요. 아버지가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련화는 나눈듯 걸음을 땀다.

...

《아버지! 봉식동지가 왔어요.》

《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최봉식입니다.》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문안인사를 하는 제자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반가운 기색을 얼굴에 한껏 떠올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술한 학생들을 입학시켜 지식을 배워주어 졸업시키고 또 그렇게 학생을 입학시키고 졸업시키는 교육자가 퍼그나 세월이 흘러 제자를 만날 때 느끼는 기쁨의 심정이 얼마나 류다른 긍지로 부푸는가 하는것은 한생을 교단에 엮어보내는 사람들만이 알리라. 제자래도 앞날의 전도가 촉망되어 원심을 각별히 써왔던 제자가 그것도 대학을 졸업한지 어언 8년만에 첫 육종작물을 성공하고왔으니 다함없는 기쁨에 심재환의 평시의 웅글은 목소리가 격조를 띠었다.

《이게 얼마만인가!》

《이렇게 여전히 건강하신 선생님을 뵈오니 제가 감시 대학생시절로 되돌아간것만 같습니다.》

《허! 달라졌어. 응, 많이 달라졌단 말이야. 압, 달라져야 하구말구. 왜 그렇게 서있기만 한가, 들어오게.》

심재환이 봉식의 팔과 어깨를 불안고 방안으로 이끌었다.

《어머님은 무고하신가?》

《예. 지금도 인민반사업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봉식은 선생님이 자리에 앉자 옆의 쏘파에 나란히 앉았다.

《정말 감회가 새로와. 응, 자네가 유전학 첫 강의시간에 생물에 대한 유전기술이 파잉발전하여 도입되면 수십억년동안 진화발전되어온 자연의 원상태를 인간이 스스로 파괴하지 않겠는가고 엉뚱한 질문을 내게 들이대던 때가 엇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가. ...》

어느새 실내복을 단정히 갈아입은 련화가 앞차대에 파일소반을 올려놓았다.

《련화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파일만 대접하겠냐?》

련화가 상국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버지, 제 료리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세요.》

련화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성의있게 차리는 시간에도 옛 스승과 제자간의 대화는 끊기지 않았다.

#### 4

어렵고 힘들었던 지나간 일들이 지금은 즐거운

추억으로 되었다.

생물공학분원회의실에서 진행되고있는 년례적인 과학토론회에 참가한 봉식의 마음은 비행기구를 타고 훨훨 날으는듯 마냥 즐겁기만 했다.

사회자가 휴식시간을 선포하자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과학자들과 박사원의 연구생들이 앉아있던 장내가 술렁거렸다.

봉식은 회의실에서 나와 넓다란 로대로 나갔다.

강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때 누군가 어깨를 툭 치는것이였다.

심재환이였다.

《아니, 선생님! ...》

《동무 론문을 봤네. 내가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연구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게.》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을 만나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

첫해에는 유전자구조를 세가지 형태로 변화시켜 50평씩 부었습니다. 그러나 1, 2, 3조가 다 나무질이 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전 육종의 기본목표가 그루의 나무질화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주력을 돌렸습니다. 방사선조임을 한 물리적갑작변이조도 병행시켜 15조로 증가하여 연 600평에 시험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

그렇게 5년만에 나무질화가 육종조건에 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봉식이 말을 끊었다.

연구과정을 말해보라면 자다가도 뜬금으로 줄줄 외웠을 그였다.

《선생님! 론문에 어떤 부족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무슨 생각인지 고집스레 집념하고있던 심교수는 여전히 한곳에 시선을 박고서 응대했다.

《그래서 묻는게 아니네. 자네 론문을 보느라니 뭐라고 아직은 짝어말할수 없네만 새로운 령감이 떠오르는것 같아서 그러는거네.》

교수가 한 말이 잔잔한 호수가에 떨어진 돌처럼 봉식의 마음속에 사그라지지 않는 물결을 일으켜놓았다.

봉식은 교수의 눈초리에서 그 새로운 령감의 끄트머리라도 잡아볼가 애써 지켜보았지만 좀처럼 대중할수 없었다.

심교수는 봉식의 팔을 다정히 잡아주며 다짐받듯 말하였다.



《론문심의회가 며칠 안 남았지?... 다른 생각일랑 말고 변론준비를 잘하게.》

토론회는 다시 계속되었으나 봉식은 회의에 정신을 집중할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내 논문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셨을까?

드디어 봉식의 학위론문을 심의하는 날이 왔다.

심의가 진행될 건물안은 현대감이 높은 수준에서 살아나게 장중하면서도 화려하게 장식되어있었다.

봉식은 대기실에 놓여진 안락의자에 앉아 이제 출연해야 할 논문심의회에 대해 생각하고 또 하였다.

변론에 대해선 조금도 미흡한 점이 있을것 같지 않다.

일반개요, 연구과정, 분석과 결론에 반영된 자료들은 빈틈이 없을것이다.

있다면 꼭 한가지 심교수가 며칠전에 언뜻 내비친 새롭게 떠오른다는 점이다.

봉식은 그것이 만일 결점이 아니라 우점에서 나온것이라고 추측해도 어쩐지 불안스러웠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더놓고 지적해주지 못하셨을까?

이때에련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련화동무, 여기 앉소. 시간을 받은 모양이로구만.》

《아니, 그럼 제가 처음으로 새 품종등록증을 받은 원형가지연구론문을 심의하는데 시간을 왜 못내겠습니까. 그런데 봉식동지 얼굴이 밝지 못하시군요?》

이제와서 련화에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는가. 봉식이 자기 심증을 그대로 터놓았다.

한동안 말이 없던 련화가 나직하게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그러니 뭔가 있군요. ... 어제도 밤늦도록 아버진 봉식동지 논문을 보았는데 연구과정에 대해 이것저것 물다가 봉식동지가 다음번 연구과제가 무엇인가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봉식의 얼굴에 심각한 빛이 비졌다.

그건 내가 일전에 댁에서 피득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물으셨다니 정말 뭇가.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서기가 봉식에게 출연할 것을 알리었다.

장내앞에는 심의위원들이 앉아있었다.

봉식이가 자동환등기를 시동시켰다.

영사막에 각이한 유전자구조사진들과 각종 도표들과 그래프들이 현시되었다.

설레는 마음을 다잡으며 봉식은 빠르지 않지만 막히는데가 없이 조리있게 설명해나갔다.

객석에서도 그의 변론을 온 신경을 가다듬고 주의깊게 듣는것 같았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온 연구사들과 대학의 연구생들이 방청으로 앉아있는 객석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련화는 까딱하지 않고 앞을 주시하고있었다.

론문제출자의 발언이 끝나자 사회자가 주석단쪽을 향해 말했다.

《질문이 있는 위원선생님들은 하십시오.》

이어 질문이 제기되었다.

생육기간이 6개월이면 토종보다 3배인데 단축해볼 시도는 했는가,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시비량호상관계는 어떠한가, 원종을 변이시키지 않고 온실에서 재배해보았는가 등등...

봉식은 침착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툴리있는 해답을 주었다.

사회자가 장내를 둘러보며 물었다.

《또 질문하실분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제껏 아무 말이 없던 심재환이 입을 열었다.

《동문 원종이 온실재배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고 또 그렇게 규제한 뜻은 뭇니까?》

봉식은 막혔던 숨이 비로소 열리는것 같은 안정감을 느꼈다.

그래서 좀더 편안하고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것은 나무질화가 완결된 동일한 유전자구조를 가진 종자가 야외경작지에서는 3년이나 실패했는데 온실에서는 첫해에 성공하고 이태만에 고정도 완성한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작물재배지도서에 필요하다는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없소?》

이제껏 머뭇거리지 않던 봉식이가 눈길을 내리깔고 일순 사색에 잠겼다.

모두의 시선이 봉식이와 심재환에게로 쏠렸다.

《야외에서는 풍토순화가 불가능하다는 뜻도 포함하고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것은 이게 답니다.》

뒤이어 다른 질문이 더는 제기되지 않았다.

사회자가 장내의 분위기를 살폈다.

《심의위원선생님들은 소회의실로 모여 주십시오.》

심의내용을 결정하는 위원들의 모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숙만이 허용되던 장내의 분위기를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깨뜨렸다.

《심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명의 심의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최봉식동무의 학위논문 〈온실원형가지의 나무질화에 관한 연구〉가 정식 통과되었습니다. 최봉식동무! 축하합니다.》

장내에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심선생님! 무슨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심재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난 오늘 우리가 심의한 논문이 통과된것도 기쁘지만 우리 나라에 또 한명의 식물육종가가 등장한것이 더 기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론문제출자를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동무가 원종이 온실재배형이라고 한 결론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야외경작지에서 풍토순화가 불가능하다는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논문에 반영된 유전자전이방법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원종과 토종의 유전자결합방식에 의한 방법을 대담하게 취해나간다면 야외에서도 풍토순화시킬수 있다는 결론에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적용한 유전자전이방법은 부적형이었지 진공적인 조작형이 못되었습시다. 난 그래서 봉식동무가 오늘의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원형가지연구를 계속해나갈것을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유전학을 배워준 교원으로서,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으로서 권고합니다. 그럼 왜 이 동무가 계속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대상에 이 동무만큼 파악이 깊은 연구사가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새 연구과제가 얼마만큼 빨리 결속될수 있다는 담보는 아직 없습니다.…》

교수는 여기서 말을 잠간 멈추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는 자기의 권고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였다.

식물육종학계에서 머리를 만나마 세여온 교수는 다시금 절절히 말을 이었다.

《오늘날 우리 육종가들은 조국의 재부를 늘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물의 미시세계속에 인간

의 요구와 의사를 심어주고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관철시켜야 합니다. 만일 본론문제출자가 동의한다면 저도 그 연구조에 망라되겠습니다. 조수적이라고 해도 무방할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해당 연구소에도 원형가지연구를 계속할수 있는 사업을 조직해줄것을 본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제기하자는것을 이야기합니다.》

술렁거리던 장내가 또다시 엄숙해졌다.

×

며칠이 지나갔다.

여기는 평양역.

이제 몇분후면 동해안으로 출발하는 열차가 역홀에 들어서게 된다.

수백명의 려객이 그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 수많은 려객들중에는 해안성지대에서 새 품종 열매남새를 연구하기 위해 동해안가로 떠나가는 젊은 육종가도 있다.

조국의 재부를 늘이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려면 보다 결실하게 나서는 과학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부름이며 요구이기도 하다.

교외의 농장에서 연구를 마치고 돌아왔던 달포전까지만 해도 이 육종가는 그 시대의 요구를 자기량심의 요구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시대의 요구를 자기량심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정신으로 가슴을 항용 불태우는 과학자만이 식물의 미시세계속에 인간의 의사를 심어주고 인간의 요구를 관철시키리라.

어머니조국이 배워준 과학기술을 조국에 바쳐 조국에 더 큰 보탬을 주는 과학적성과를 내놓은 과학자에게 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긍지롭고 떳떳하며 보석처럼 빛나는 명예와 학직을 수여하리라.

엊그제 이 육종가는 저녁의 보통강반을 걷고걸으며 이렇게 자신을 찾고 또 찾았으며 그리고 선택하였다.

그 육종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최봉식이였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던 심교수선생님이십니다.》

《아이 선생님, 제가 먼저 찾아뵙야 하는건데 육 많이 하십시오.》

《피차일반입니다… 아드님이 또 먼곳으로 떠나 가는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젠 습관됐습니다.》

《봉식이 어머니, 일요일이나 명절때면 우리 집에 놀러오십시오. 아마 우리 편화 어머니가 제일 반가워할겁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편화동무를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제 인사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 앤 지금 여기 없네… 어제 출장차로 고산지대로 떠났으니까… 참! 편화가 거기 가서 조건이 적합하면 고산지대원형가지연구는 자기가 하면 어떻겠는지 자네한테 물어봐달라더군.》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자네 생각이 어떨는지 몰라서 그랬겠지. 그런데 자넨 왜 먼저 말하지 못했나? 남자가…》

봉식이가 눈길을 어디다 주어야 할지 몰라 급급해하였다.

그러는 모양을 심재환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여겨보았다.

이때 봉식이 어머니가 끼여들었다.

《편화라면 교수선생님의 따님이 아닙니까?… 아직 출가하지 않은 처녀이겠는데 그렇게 오랜 연구

사업을 하느라 언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봉식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활은 언제나 앞에 놓여있는 법입니다. 가정을 이룬다고 왜 연구사업을 못하겠습니까. 그건 벌써 낡은 개념입니다. 난 우리 편화나 봉식동무가 사업에서도 그리고 생활에서도 꼭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될겁니다.》

《봉— 봉—》

전인기가 출발을 선언하는 기적소리를 길게 울린다.

《내 이번에 자네 연구조에 한 성원으로 망라시켜달라구 연구소와 대학에 정식으로 제기했네. 그러니 자주 편계를 가지자구.》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귀중한 싹을 물어버렸을겁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십시오.》

봉식은 교수와 어머니의 환송을 받으며 객차에 올랐다.

교수는 손저어 바래주는데 그의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눈굽을 훔친다.

한손으로 승강대손잡이를 잡은 봉식이 손을 저으며 소리쳤다.

《않지들 마십시오.》

열차는 역함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그다음 차츰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하였다.

## 가사

### 너도나도 웃는 꽃

김 성 조

어디 보자 꽃송이 뽕라도의 장미꽃송이  
원수님사랑안고 곱게도 피었구나  
물놀이를 즐긴다고 어이 너를 잊으랴  
어서 오라 반겨주는 그 향기에 마음젖네

맑고 푸른 하늘에 웃는 꽃은 우리들이요  
해빛밝은 땅위에 웃는 꽃은 너로구나  
잠간만 기다려라 하늘그네 내려서  
방긋 웃는 네 모습을 고이 안아주련다

춤을 추는 곱등어재주에 취했던 마음  
장미꽃 그 모습엔 걸음을 못 떼겠네

원수님사랑어린 행복의 뿌리에서  
너도나도 피었으니 너도나도 웃는 꽃



련 시

## 자강땅의 《참성》

— 화평 군을 노래 한다 —

기 경 호

### 버스안에서

그러니  
우리 군에 대한  
글을 쓰러 오신단 말이지요  
잘 오셨소 자랑거리야 참 많지요...

내 옆자리에 앉은  
종이공장에 다닌다는 청년  
제잡담 자랑주머니끈을 끄른다  
화평종이가 전국적으로도 손꼽힌다는...

어디 그뿐인가고  
물지도 않는데 끼어드는 뒤좌석녀인  
장이며 파자자랑 극성이기에  
아마도 식료공장사람인가 했더니  
아니란다 그저 그 공장 신세지는 한 주민일 따름

다달이 세대공급된다는 비누며 기름...  
도시 부럽지 않게 꾸러진 읍거리  
뛰니뛰니해도 쌀과 전기가 풀렸으니  
다 풀린거나 갈다면서 흐드러지는 웃음발

아, 억지로 는 지어내지 못할  
제고장에 대한 궁지며 애착  
빠스는 그대로 움직이는 화평인가  
나는 앉아서도 온군을 선본셈

자기 집에랑 꼭 들리라는 당부  
살기 좋으니 인심도 후해라  
마치 제 고향에나 온듯  
화평은 첫결음부터 웃음으로 반기누나

### 강냉이 한이삭

— 화평혁명사적관 한상의 사진앞에서 —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고야  
파연 어느분이 저렇게  
산자락발 한이삭 강냉이도 따보시며  
산간마을 살림살이 헤아려주시랴

손수 강냉이오사리도 벗겨보시며  
농사가 참 잘되었다고  
그리도 환하게 지으시는  
아, 그 미소에 산천이 다 밝아집니다

우러러 뜨거운 마음속에  
술한 화폭이 떠오릅니다  
비내리는 포전길  
해저무는 두렁길...

때로는 눈물을 짖어 맛도 보시고  
퇴비를 손에 비벼 부식도도 가늠하시며  
농민들보다 더 많이 신발에 흙을 묻히신분  
농민들보다 더 많이 손에 흙을 주무르신분

사랑하는 자식들인 인민들을 위해  
온 나라를 트랙처럼 밟으시던 그 자욱  
여기 외진 벽촌에도 이으시여  
더 잘살 앞날도 의논해주신 수령님

그 말씀 받들어 가꿔가는 포전들엔  
오늘도 년년이 풍작이 설레이고  
그 말씀 꽃피워 일떠세운 발전소들은  
나날이 행복을 무지개로 꾸며가거니

정녕 들고계신것은  
한이삭의 작은 강냉이였어도  
그날에 벌써 흥하는 이 땅의 오늘이  
수령님손길에 받들려있었것이 아닙니까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그 한생애  
천만년 번영할 조국의 미래가  
떠실려있는것이 아닙니까

## 나는 이 땅의 심장을 보았다

타빈의 힘찬 동음마저  
노래처럼 즐겁다  
한겨울의 강추위도 놀러딘고  
웅웅— 그 위력 떨치는 발전기여!

오늘도 너는  
온군에 힘을 뿜기에 바쁘구나  
먼길을 달려온  
나의 인사를 받아다오

삼가 옷깃마저 여미고싶다  
얼마나 많은 땀이 심혈이 내게 스몄더냐  
동체에 가만히 손을 대이면  
이제라도 축축히 젖어오를듯

혈하계는 못 이를 창조물이어서  
우리 장군님 그리도 대견해하셨지  
화평이 전기화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최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지

그 은정을 진함없을 원동력으로 안고  
첫 시동의 그날부터 십여년  
하늘 좁은 이 끝안을 흔들며 흔들며  
세차게만 올려온 장한 그 동음

오, 너로 하여  
지방공업의 숨결이 높편다  
웃음속에 생활은 약동하고  
또한 래일의 전망이 밝게 열리나니

아닌가 네가 보내는 전류는  
이 땅을 빛내는 열과 빛  
그렇다 너는 그대로  
화평의 큰 심장

다름아닌 네게서 본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당의 그 불변의 의지로 고동치는  
이 고장 사람들의 크고 억센 심장을!

## 군의 이모저모

기대를 타고 흘러나오는 옥쌀  
한웅큼 쥐어본다  
매끈매끈한 손맛  
폐부에 감도는 구수한 냄새

이것도 정상공급하느냐 물었더니  
펼쩍 편다  
이제는 환갑이 문턱이라는 지배인

정상정도가 아니란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많이  
이것이 사업소와 군의 목표란다

×

군내 세대수에 따라  
한달에 공급하는 파자만도 십여톤  
일년이면?...

얼추 타산해도 가볍지 않은 수자  
식량은 식량대로 공급하면서  
그 많은 원료는?...

놀라는 내가 리해된다는듯  
식료공장 책임기사 울타리밖을 가리킨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거름더미  
올해 원료기지농사에 쓸거란다

×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이만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산골군이라구 도나 중앙에  
뒤져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창의고안명수라고  
정열가라고  
온군에 소문난 지배인  
신심에 넘쳐 이야기한다

설비의 현대화전망에 대해  
종이질을 높일 기술혁신에 대해...  
돈보였네 그 배심 그 리상  
나는 벌써 보고있었네 공장의 래일을

×

우정이라도 걸고싶은 밤거립니다  
날이 새도록 보고싶은 풍경입니다

저 불장식  
그저 하나의 걸치레라만  
저렇듯 아름답고 소중한가요

생각됩니다 나에겐  
낮에 웃고도 모자라  
밤에 꿈을 꾸며 웃는  
화평군인민들의 밝은 얼굴처럼!



## 눈내리는 거리에서

3월이라 이맘때면  
저기 앞지대에선 비가 오련만  
여기선 아직도 눈이 내리누나  
그것도 펄펄 함박눈이

산이 높아  
철도 제일 늦게야 오는 고장  
하나 이 땅엔 벌써 깃들지 않았는가  
봄이 부흥의 봄이

보아라 겨울의 횡포를 비웃으며  
온실에선 남새가 푸르싱싱  
오이 따는 처녀들의 얼굴엔  
꽃이 폈구나 고운 웃음꽃이

적재함엔 가득가득 파자며 간장 된장...  
식료공장마당을 나서는 자동차들  
림산마을로 농장마을로  
기쁨을 주기에 분주한데

전국적인 예술소조경연에서 입선한 자랑

로동자문화회관무대우에 펼쳐가는게다  
저기 목재품가공공장쪽에선  
둥다라 절싸 흥에 겨운 북장단

새달 상품공급이 벌써 시작된 모양  
사람들로 붐비는 종합상점매대  
녀인들의 맑은 웃음소린 그대로  
이 거리에 넘쳐나는 봄의 훈향인가

아, 제 손으로 가꾼 봄  
제힘으로 익힌 열매  
행복넘친 마음들에 그들이 없고  
고난 이긴 생활에 배심 든든해진 땅

정녕 봄이로구나  
봄이라도 두메산촌에 완연한 봄  
거리엔 펄펄 눈이 내려쌓여도  
여기선 가깝구나  
경애하는 원수님 가꾸시는  
강성국가 봄언덕이

## 황금산은 어디에나 있다

제땅의 혼한 돌로 세멘트를 구워내어  
산기슭따라 아담한 보금더 꾸며놓고  
제땅의 물을 막아 전기도 내어  
생활의 어둠을 차거움을 영영 몰아낸 땅

땀흘려 익힌 쌀 따내린 산열매는  
나날의 살림을 풍성하게 챙겨가고  
제고장 나무로 만든 학습장에  
전변의 새 역사를 적으며 아이들이 자라는 땅

어제날 산이 높아 못산다던 이 고장이  
오늘은 산이 좋아 락원으로 되었으니  
하늘에 물어보라 산천에 물어보라  
꿈같은 이 현실이 어떻게 왔느냐고

외진 곳이라 에돌아가지 않은 고난의 눈보라  
그 누가 가서주길 앉아서 기다렸다면  
이 땅엔 영영 봄이 오지 않았으리  
아직도 문명의 막바지로 남아있었으리

쓸모없다 버림받던  
돌 하나 나무 한대 한줄기 내물조차  
제 고향 살찌우는 재부로 안아올린  
이 고장 사람들의 심장을 헤쳐보라

거기엔 누구보다 세차게 높뛰고있으리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품어안아 열과 정을 주시던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그 뜻이

그 불같은 사랑의 열기로 감싸안아  
산은 산마다 보물산 보배산  
들은 들마다 기쁨진 옥야  
덧없이 흘러가던 물도 보화로 되었으니

정녕 황금산은 창성에만 있다더나  
산이면 어디서나 황금을 따내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념원  
꽃피나는 곳이면 어디나 황금산!

그 참다운 진리의 또 한송이 꽃으로  
새 세기 첫 기슭에 아름답게 피어나  
질은 향기 풍기는  
너 자강도의 자랑 화평땅아

원수님의 높으신 뜻 한마음 받들어  
내 조국을 살기 좋은 선경으로 펼쳐자고  
창성의 부름에 선참으로 화답하며  
두메라 북변에서 온 나라를 부르누나

# 현실은 보다 예리한 붓대를 요구한다

— 지난해 하반기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두고 —

김 학

공화국창건 65돐 경축광장의 환희로 더 질푸르려진 내 조국의 하늘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기념 열광의 축포로 더욱 황홀해진 이 나라의 강산이였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로 나라의 위력이 백배로 강화된 지난 한해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이 나라의 충직한 군대와 인민과 함께 우리 작가들은 지난해의 후반기를 비상한 창작전투로 수놓아왔다.

## 위인에게는 철학이 있다

철학성은 문학의 고유한 속성이다. 문학은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철학성은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 위대한 철학가이기때문이며 수령을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는 수령형상문학이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인간학중의 인간학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수령형상창작원리에 대한 옳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소설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비상한 열의를 발휘하여 주체문학사에 특기할 뚜렷한 흔적을 남기였다.

《맑은 시내 흐르는 곳》(강철), 《해빛삼천리》(허문길)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이 대표적이며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처음으로 감동깊이 형상한 단편소설 《우리의 계승》(윤정길), 《감사》(윤경찬), 《12월의 그이》(황용남)들이 창작발표된것은 참으로 커다란 성과이다.

소설들은 시대적배경과 주제적내용, 구체적인 형상수법이 각이함에도 수령형상문학의 생리에 맞게

수령의 위대한 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적해명으로 작품의 풍격을 비상히 높이고있다.

단편소설 《맑은 시내 흐르는 곳》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력사적사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하지만 소설은 그것으로 독자들의 심혼을 끌어당기는것이 아니다.

바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회세의 철학가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인생관에 매혹되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비쏟아지는 천리전선길을 헤치시며 전선사령부를 찾으신것은 전쟁 제1계단 4차작전에서 나타난 일부 편향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고 전전선에 걸쳐 차후작전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령님의 심중에 무겁게 매여달리는 짐은 이 전쟁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전선사령부 참모장 강건의 정신적불안정이였고 무엇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했다.

소설은 무기나 작전보다도 그것을 쥐고 수행해야 할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먼저 보시는 수령님의 심원한 주체의 전쟁관, 위인의 철학세계에 다면적인 형상적력점을 찍으면서 주제를 깊이있게 해명해나갔다.

종전보다 탄력을 잃고있는 전선동부의 일부 작전들, 최근 작전에서 나타난 일부 결함들에 대한 엄한 비판, 빨찌산출신 지휘관들의 가슴아픈 희생등으로 하여 의기소침해있는 강건을 데리고 그의 고향 상주가 가까운 문경고개까지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혁명을 하는 길에 어찌 힘들 때가 없고 피로울 때가 없겠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면서 용약 일떠서야 하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은 결코 지리적개념만이 아니요. 고향은 혁명가의 첫 언약이 깊이 새겨진 마음속의 별파도 같은 그런것이요. 그것을 잃으면 안되오. 명심하오. 그가 아무리 총명하고 숨씨있는 일꾼이라 해도 가슴속에 그 별이 없다면 그는 벌써 혁명가이기를 그만둔 사람이라는것을…》

사랑과 증오, 고향과 조국, 인간성과 증오에 앞서 사랑으로 하는 전쟁, 항토를 안고 지키는 조국, 인간애로 승리하는 혁명... 참으로 그 어떤 고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심원한 인생관, 위인의 철학세계이다.

이 심오한 철학이 생경한 론리가 아니라 풍만한 감성으로 안겨오는것은 소설이 고향의 의미를 두고 펼쳐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와 강건의 성격변화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있게 묘사하면서 특히 민족성이 짙은 민족명절인 류두날세부로 형상전반을 정서적으로 채색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단편소설 《해빛삼천리》역시 짙은 민족적정서속에 우리 수령님의 동포애, 민족애를 심오한 형상으로 보여준 철학성이 짙은 작품이다.

거의 반세기동안이나 고향, 고국을 등지고 해외에서 살아온 교포기업가 최금호, 적들의 끈질긴 방해책동을 완강히 물리치고 고향을 찾아 조국에 왔건만 방문기일도 채 되기 전에, 더우기 것처럼 뵈고싶어하던 어버이수령님과과의 접견요청이 실현된 시각에 와서 불현듯 조국을 떠나겠다는것은 무슨 사연인가. 소설은 극적기대를 주면서 감정을 한껏 축적시켜오다가 우리 수령님의 대해같은 동포애와 민족애, 비범한 철학적지론의 명쾌한 해명으로 절정을 장식하고있다.

돈밖에 모르고 살아온 한생, 혈육도 조국도 외면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다보니 조국번영에 한 톨도 기여하지 못한것을 후회하며 죄책하는 최금호에게 그것이 굳이 죄라면 실수라고 하자고 하시면서 한없는 도량으로 용어리진 그의 속을 후련히 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비범한 민족관은 최금호가 남조선땅에 투자한 기업을 거두겠다고 할 때 남녘도 내 땅, 내 나라 한 조상의 땅이라고, 남녘의 동포들도 나의 혈육, 나의 겨레라고 우리 속을 크게 가지자고, 겨레와 조국을 통체로 안고살아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밀막으시는데서 참으로 감동깊게 드러나고 있다.

소설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저택의 정원에서 몸소 가꾸시는 콩밭에 대한 세부는 주제와 잘 밀착되어 작품의 철학성을 정서적으로 안받침하고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알고 수령을 충심으로 받들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창작 발표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이 바로 이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수령형상문학의 예술적풍격을 참으로 높은 지위에 올려

세웠다.

단편소설 《우리의 계승》은 우리의 진정한 계승은 사랑과 믿음속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는 심오한 문제성을 전 세대들에 대한 새 세대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원한 철학세계속에서 감명깊이 해명함으로써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심과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소설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위대한 전환기의 시점에서 우리 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합법칙성을 심오한 형상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가 자못 크다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 《감사》는 한 조선인민군 중대장의 처벌이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로 되기까지의 극적발전과정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철학적사색과 친리혜안의 예지의 심오한 발전과정으로 가슴뜨겁게 보여주면서 우리 원수님의 위대성을 소리높이 구가한 작품이다.

특히 단편소설 《12월의 그이》는 되새겨볼수록 가슴아픈 대국상의 나날을 소재로 하여 우리의 그리움의 철학을 심오히 밝힌 원수님 형상의 특출한 작품이다.

세계의 정치가들이여! 눈물을 알라! 눈물을 안으라! 이것이 작품의 사상적주장이다.

이러한 무게있는 주장은 바로 《...나는 저 눈물을 안고 혁명을 할것이며 저 눈물로 한평생 가슴을 적시며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이을것입니다.》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하고 심원한 정치철학에서 뿜어져나온것이라는것을 소설은 높은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엄높은 영상을 위대한 정치가로서만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으로 잘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인간학적성격을 보장하는데서 시사적인 모범을 보여준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의 일단을 형상한 단편소설 《고향》(엄성영)이 품위있게 창작발표되어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 우리 주체문학의 변함없는 충정을 웅변으로 시위하였다.

우의 작품들에서 본바와 같이 수령형상문학의 철학성은 철두철미 수령의 비범한 철학세계에서 찾아야 한다.

## 예술적형상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사상적각오가 좋고 욕망이 크다 하더라도 생활을 예술적으로 가공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

하다면 시대가 요구하고 인민이 좋아하는 명작을 창작할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의 창작정형이 시사하는 한측면이다. 세련된 예술적기교가 활용된 작품은 일정하게 성공하였고 구태의연한 창작방법에 매여달린 작품은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단편소설 《큰 주먹》(최종하)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어찌보면 장편에서나 취급할수 있는 큰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감명깊게 읽히우는것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극단한 개인주의와 탐욕으로 이루어진 오합지졸무리들의 허장성세를 힘의 상징인 주먹으로 비유하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작으나》 큰 주먹, 《크나》 작은 주먹과의 대결로 형상적사색을 몰아간데 중요한 비결이 있다. 그리고 인민군대와 《국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의 심각한 인생체험속에서 력사의 진리를 도출해내는 기발한 형상수법을 재치있게 활용한것도 경험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비유는 곧 형상이라는 말이 있다. 잘된 비유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고 풍부한 서정이 있다. 서정과 진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있으면 문학이다.

단편소설 《노래는 남는다》(류영기)는 참다운 삶을 아름다운 노래에 비유하여 영생의 진리를 읊조린 서정시와 같은 작품이다. 연연한 정서와 예리한 극성으로 총만된 하나의 잘된 담시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노래 《사랑하는 내 고향》을 매개로 하여 내무성협주단 지휘자청년과 내무성반탁국 반탐일군처녀와의 사랑관계를 맺어놓고 치밀한 감정조직으로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은 영생한다는 진리를 흥미진진하게 밝혀놓았다.

소설은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기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고결한 조국애에 대해 오래동안 사색하게 하는 작품이다.

단편소설 《어머니의 품속에서》(석남진)는 우리 생활에서 지극히 평범하여 레사롭게 생각되는 가지가지의 미담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 작품으로서 그 어떤 특별한 예술적기교가 없는 듯 하다. 하지만 마치 작품의 생활세계속에서 독자 자신이 숨쉬며 사는듯이 친근하게 끌려들어가며 나중에는 주인공과 함께 (이 땅의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키워주는 조선로동당, 그 품속에 안겨 네가 자랐고 이 엄마도 자랐구나. 그 품속에서 이 땅에 행복의 화원이 만발했구나. 아, 고마운 당이여! 위대한 어머니시여!)라고 격정에 넘쳐 웨치게

된다.

평범하고 레사로운 우리 생활속에 비낀 사회주의의 혜택, 고마운 당의 손길을 예민하게 감수하고 생활그대로의 방식으로 구수하게 이야기를 펼친것은 결코 예술적기교와 떼어놓고 말할수 없다. 참다운 기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이밖에도 일정한 부족점은 있지만 단편소설들인 《고향의 백양나무》(리순호), 《나는 탄부의 안해이다》(김성희), 《내 고향의 풍경》(송혜경), 《그날처럼...》(오광천), 《나의 아버지》(홍남수)와 같은 작품들은 주제탐구에서의 적극성은 물론 도식과 경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모대김과 일정한 예술적형상능력이 눈에 뜨이게 엿보이는것으로 해서 이후 전망이 기대된다.

하지만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작품들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형상수법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작가는 력사와 시대생활의 본질을 기계적인 전달이 아니라 감성적인 견인력으로 드러내보여야 한다. 그러자면 결정적으로 예술적형상능력을 최첨단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워야 한다.

또한 예술적기교앞에 진지한 생활체험이 있다.

기교는 그 어떤 재간이기 전에 생활이 주는 어쩔수 없는 론리이다. 이것을 망각할 때 작품형상에서는 불협화음이 울리고 진실성이 파괴된다.

단편소설 《샘물은 땅속에서 솟는다》(안명국)와 《시대가 주는 이름》(박동철), 《인연》(김철순)이 그러한 교훈을 주고있으며 《침묵》(김달수)은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물론 과거의 시대적분위기도 살아나지 못하였고 형상론리, 생활론리가 희박해졌다.

다음으로 과학환상소설 《밝은 앞날》(엄호삼)과 실화문학 《사랑의 대지》(리성식)가 발표된것은 우리 소설가들의 다방면적인 창작활동을 시사해 주고있으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비약하는 백두산대국의 전성기에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젊음으로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우리 작가들의 퇴성치는 붓대를 요구하고있다. 무딘 붓대를 가지고서는 시대의 벽찬 현실을 바로 형상할수 없고 위대한 변혁을 노래할수 없으며 수령결사옹위의 서리발을 세울수 없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붓대동지임을 부디 잊지 말고 붓대포의 퇴성을 더 크게 울려야 한다. 현실은 보다 예리한 붓대를 요구한다.

# 세포비서의 심장

류 민 호

넓은 장내에  
폭풍같은 갈채도 찾아들고  
온몸이 그대로 귀가 되어  
그이를 우러르는 시각

장내를 흔들어라  
심장을 흔들어라  
사랑에 젖고  
뜨거움으로 가득찬 원수님의 음성 들으며  
나는 생각했노라

한생을 깨우치고  
만대를 가르치며  
가슴에 새겨주는 마디마디  
주옥같은 삶의 진리여서

절로 머리 숙어지노라  
내 당원들을 어떻게 이끌었던가  
내 마음을 먼저 주었던가  
내 진정을 깡그리 바쳤던가

성스러운 당의 뜻을 받드는  
당세포비서 이 한마음  
사랑과 정에 사는 어머니가 된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으랴

정녕 머리 숙어지노라  
천만심장을 울려주는

사랑의 메아리  
그이만이 지닌 열정의 불

그런 불 그런 열과 정이라면  
얼었던 가슴도 녹이리  
돌아섰던 마음도 되돌리리  
식어가던 심장의 피도 끓게 하리

내 머리에 이젠 흰서리 내리건만  
어버이믿음의 손길에 이끌려  
홍안의 시절로 돌아가는듯  
오늘에야 진정 첫걸음 떼는듯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품에서  
하늘같이 무한대한  
태양같이 영원불멸할  
참다운 인간사랑 동지애의 세계를 알며

나날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내 나라는  
그이를 모신 일심의 대가정  
나의 인생도 한떨기의 꽃으로 피어  
오, 사랑의 그 화원에 향기를 더해주리라

이 나라 인민들 모두 그이를 닮아  
동지애로 뜨겁게 우애로 더 억세여지리  
우리 사는 이 땅은  
사회주의화원으로 더 아름다워지리니  
오늘의 이 마음으로 내 살리라

# 우리 대의원

윤 희

그는 우리 옆집에서 산다  
그는 우리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  
출근길도 함께 걷고  
휴식날 명절날 우리와 함께  
웃놀이도 장기도 함께 하는 허물없는 사람

겉보기가 속보기란 말이

그를 두고 하는 말인듯  
남보다 값진 옷차림은 아니어도  
하얀 목달개 윤기흐르는 신발  
그의 마음 말해주는듯

인민반에선 나이가 어려도  
좌상처럼 존대받고



직장에선 없어서는 안될 사람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어 찾고  
어려움 함께 나누고싶어 찾는 그

별들만이 아는 밤길  
얼마나 많이도 걸었던가  
이웃마을 영예군인의 보양을 위해  
약재 구하러 다녀온 밤길은 백리도 지척  
하여 그는 영예군인의 전우며 말형

때로는 앓는 부모들을 대신해  
학부형 회의에도 참가하고  
탁아소의 온돌도 수리해주고  
유치원의 놀이감도 수리해주는것  
그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두고 사람들 고맙다고 인사하면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어쩔줄 모른다  
오직 한마음 원수님을 받드는  
그의 행동은 말없는 선동!  
그의 위치는 대오의 앞장!

당정책관철에선  
대오의 기수며 나팔수가 된 사람  
인민을 위한 일에선  
초불이 되고 뿌리가 된 사람  
그의 삶은 인민을 위한 삶

아, 그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이로 높이 모신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의 대의원!

## 천리마동상앞을 지나며

### 최 향 실

이른아침  
일터로 나갈 때도 나는  
천리마동상 너를 보며  
그앞을 지나고

별뜨는 저녁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나는  
천리마동상 너를 보며  
네 앞을 지난다

하루에 천리를 달려 반세기 넘는 세월  
오늘도 활기에 넘쳐  
펼친 나래엔 기적의 폭풍이 일고  
날리는 갈기엔 비약의 열풍이 인다

청동의 나래를 펼치고  
네굽을 안고나는 천리마여  
너의 기수가 높이 추켜든것은  
당중앙위원회 붉은편지

그 편지 가슴마다 품고  
천리마의 기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웠나니

반세기 넘는 세월  
우리 수령님 손길아래 태어난  
천리마여 너의 모습에서 나는 본다  
오늘 우리 원수님 마련해주신 과학기술통마

나는 본다 천리마여  
내가 한껏 펼친 청동의 나래는  
새 세기 하늘가에 우리 원수님 펼쳐주신  
과학기술통마의 나래

천리마여 너의 기수가  
창공높이 추켜든 붉은편지는  
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설계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한껏 나래를 펼치고 가자  
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리상  
강성국가건설의 그날 향해  
비약의 나래 활짝 펼친 과학기술의 통마여

이제 사람들은 보게 되리라  
과학기술로 모든 꿈 이루어진 전설의 나라에서  
원수님의 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며  
한껏 나래펼친 과학기술통마의 모습을!

# 나의 안해여

리명학

새날이 밝아오면  
어깨나란히 일터로 가고  
하루일 끝난 저녁이면  
어깨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로동자부부

로동속에 맺어진 사랑  
로동으로 더욱 깊어진 정으로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했소  
모범가정의 혁신자남편  
화목한 가정의 살뜰한 안해라고

로동과 모범  
혁신자부부란 말은  
우릴 두고 생겨난 말 같다고  
이웃들이 칭찬하던 그 나날은 어제런듯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시절의 부부

어느덧 세월은 흘러  
그대 안해여  
청춘시절의 모습은  
한철의 꽃인듯 하여도  
그대는 언제나 내 마음속의 꽃

이제 세월은 흘러  
머리에 흰서리 없고

청춘시절은 흘러간 지난날의 추억으로 되어도  
로동자부부  
혁신자부부의 부름만은 변함없으리니

바치는것이 행복인듯  
남편과 자식과 가정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사람  
또한 걱정은 얼마나 많고  
또한 사랑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안해여  
그대가 곁에 있으면  
기쁨은 배로 커지고 어려움은 줄어들어  
내 마음속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 집사람》 그 주인공은 그대!

그대의 젊은 시절의 모습  
세월이 앓아갔다고 말하지 마오  
행복한 가정  
름름한 자식들의 모습 이웃들의 칭찬에  
그대의 모습 아름답게 비껴있거니

혁명에는 한쪽수레바퀴  
생활에는 행복의 원예사로  
원수님의 리상을 꽃피우는 그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로동자부부로 살기요

가사

## 아가야 너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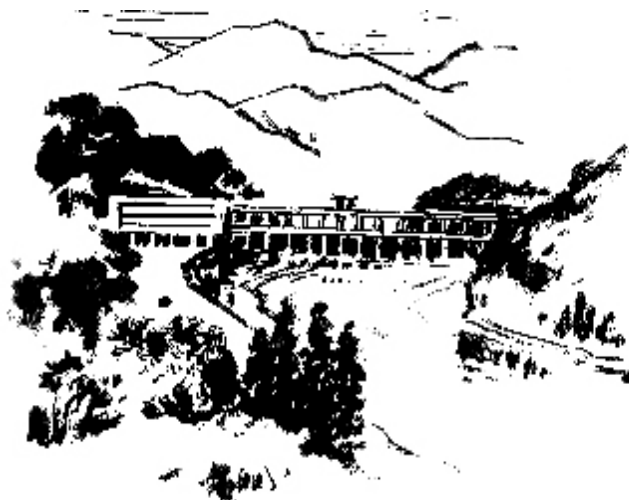
원영옥

포근한 요람속에 잠든 아가야  
너를 보는 어머니 생각도 깊어  
이 땅의 미래인 네가 귀중해  
이밤도 건설장의 불빛 밝아라  
아가야 너를 위해 조국은 잠 못든단다

황홀한 새집들은 더 높이 솟고  
향기론 꽃들은 더 활짝 핀단다  
이 땅의 미래인 네가 귀중해

조국은 더 큰 행복 설계한단다  
아가야 너를 위해 조국은 부강떨친다

이제 크면 아가야 알게 되리라  
너를 키운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이 땅의 미래인 네가 귀중해  
사랑을 다해가는 우리 어머니  
아가야 잊지 말아 조국의 고마운 은정



# 덕지강의 주인들

한 철 순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아버이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속에 온 나라 천만군민이 새로운 주체100년대 첫해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하려고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던 2012년 12월 12일이였다.

뾰족뾰족한 모양을 가진 우중충하면서도 날카로운 산줄기들을 옆에 끼고 덕지강으로 흘러가는 수동천은 신발등도 못 적시게 물이 줄어들었다.

바닥의 약간 낮은 곳을 따라 지졸지졸 흐르는 물은 넘어날듯 사품쳐흐르던 대홍수가 언제 있었던가고 말하는듯싶었다. 줄어든 물량을 내려다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덕지강중소형계단식발전소건설려단 참모장 전영남은 가슴속으로 은근히 차오르는 불안을 어찌지 못하고있었다.

이제 며칠만 다그어대면 마지막 11호발전소의 물길굴을 판통시키게 된다. 그다음엔 인차 송전선공사를 하고 전기를 생산해야겠는데 겨울철 갈수기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있는것이다. 현재 가동하고있는 4호와 6호도 물이 적어 생산량을 높이지 못하고있었다.

요즘 전영남참모장은 긴장하면서도 짜릿한 흥분속에서 마지막전투를 지휘하고있었다.

11개 발전소의 물길굴들을 마지막 11호로 판통시키는 작업과 현재 가동중인 4호와 6호의 운영정상화, 2호와 7호의 발전기와 변압기설치, 새로 놓아야 할 8호, 9호, 10호, 11호의 발전기타빈제작, 송전선공사의 완공...

할일은 아직도 많지만 승산이 확고히 내다보이는 건설인것이다.

(물량만 많으면 모든게 문제없겠는데...)

전영남은 입술을 짹 깨물며 자전거발디디개를 씨영씨영 내려밟았다. 그 모습을 보면 신여섯살이라

는 지숙한 나이가 아니라 퍼그나 젊은 30대의 청년처럼 패기와 정열이 느껴진다.

그가 11호발전소 물길건설장에 이르니 여느때같으면 벌써 착암기소리와 함께 압축기운전공들이 분주히 움직이고있을 작업장이 별로 조용했다.

직속대대 성내돌격대 참모장 주상철이 다가왔다.

《려단참모장동지! 야단났습니다. 정전이 되어 굴진작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전영남은 손맥이 풀렸다. 무엇인가 쿵 하고 뇌리를 치는것을 느꼈다. 방금 오면서 강바닥을 보고 가슴을 압박하던 불안이 현실로 펼쳐진것이다.

국선을 쓰지 않고 4호와 6호에서 생산된 전기로 압축기를 돌려 굴진작업을 하던 그들이였다.

《배전소 소장동지에게서 방금전에 전화가 왔는데 4호발전소 변압기가 타버리는 바람에 6호 혼자 돌리다니 주파수가 떨어진답니다.》

《뭐? 4호변압기가 탔다고?》

전영남은 가슴이 철렁하여 급히 사무실에 들어가 전화로 배전소 소장인 김정국을 찾았다.

4호에서 김정국소장이 전화를 받았다.

《아! 소장동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 말도 마십시오.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내 이제 탄광기계지배인을 우에 제기해서 혼살을 내주겠습니다. 전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김정국소장의 격분에 찬 목소리가 수화기의 공명판을 드렁드렁 울리였다.

《알겠소. 책임문제는 후에 토론하고 변압기를 수리할 방도부터 찾아야겠소. 내 오후에 그리로 가겠으니 지휘부성원들을 다 부르시오. 리철기술참모동문 반도체려자기연구를 중지하고 협의회에 참가하라고 하오.》

전화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니 돌격대원들이 군데군데 모여 담배를 피우고있는것이 보였다. 그는 가슴이 답답해나서 목단추를 끌러놓았다. 비록 능률은 나지 않지만 수굴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수무책으로 가만 앉아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전영남참모장은 말없이 수굴정대와 함마를 둘러메고 막장으로 향하였다. 그러자 주상철이 다가왔다.

《참모장동지!...》

《상철동무! 우리가 오늘까지 만오천메터의 물길굴을 뚫으며 언제한번 조건이 만족돼서 일해본 적이 있소? 이런 난관이야 밥먹듯 해온 우리가 아닌가?》

려단참모장을 바라보는 주상철의 길쭉한 얼굴에 자책의 빛이 짙게 어렸다.

《제가 그만... 나약해진것 같습니다...》

그때 가까이 다가온 수동탄광돌격대 참모장 정광남이 말하였다.

《참모장동지! 제 이제 대원들을 돌격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영남은 당장 뛰어가려는 정광남을 붙잡았다.

《가만, 대원들을 부르지 마오. 우리가 앞장에서 나가면 그들은 부르지 않아도 따라올거요. 지금은 좀 쉬라고 하고... 자, 그럼 동문 저쪽 맞굴에서 작업을 하라구.》

그리고는 굴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두 돌격대의 지휘관들인 정광남이와 주상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짙게 차올랐다. 언제보나 군말없이 전투지휘를 하면서 려단에서 주는 과업을 제때에 집행하는 그들이었다. 원래 11호발전소에는 다른 대대가 동원되어있었는데 탄광에서 다른 문제때문에 철수시키는 바람에 직속성내돌격대가 자진하여 맡았고 한달전에 2호발전소를 완공한 정광남이네 돌격대가 지원하러 왔던것이다.

막장에 이른 전영남참모장은 주상철에게 말했다.

《자, 정대를 대오. 내가 때리겠소.》

그러나 주상철은 그의 손에서 함마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제가 때리겠습니다. 그래도 함마질이야 젊은 제가 낫겠지요?》

《허, 내가 나이먹었다고 다된줄 아나?》

수십년간 탄광막장생활에서 그리고 십수년의 돌격대참모장으로 일하면서 대원들과 교락을 함께 해온 전영남이 함마질에 얼마만큼 솜씨있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있는 주상철은 시무룩이 웃으며 정대를 잡았다.

《자, 단단히 잡으라구, 100개요. 하나, 두-울, 세-엣...》

전영남은 함마를 휘둘러 정대를 조기기 시작했다. 원을 크게 그리며 돌았다가 함마가 머리에 올라서는 순간 힘을 모아 정대를 때리는 동작은 땀시있으면서도 정확하였고 지어는 우아해보이기가까지 하였다.

《서른, 서른하나...》

그때 손에 수굴정대와 함마들을 든 대원들이 달려왔다. 전영남은 함마를 휘두르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돌격대원들은 어느새 자기 위치들을 차지하고 함마질을 시작했다.

《획!-쨍! 획!-쨍!》

여기저기서 함마로 정대를 때리는 소리가 울려왔다. 전영남은 잠시 함마질을 멈추고 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문대며 미더운 눈길로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온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 내세우고싶은 돌격대원들이었다. 비오나 눈오나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피땀을 바쳐 묵묵히 일해온 저들이었다. 웬일인지 그의 눈앞에는 4호발전소를 완공하고 준공식도 하지 못한채 철수해간 고원탄광돌격대원들의 모습이 아프게 떠올랐다.

고난의 그 시기 온 나라의 강들을 락원의 강, 전기강으로 만들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200여리 덕지강 굽이굽이에 중소형발전소들을 계단식으로 일떠세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온 그들이었던가!...

발전소건설이 너무 오랜 시일을 끌고있다는니, 언제 전기덕을 보게 될지 막연하다는니 하는 일부 사람들의 시비질속에 도에서 검열차로 내려왔던 일군이 마침내 고원탄광돌격대를 해산하고 철수시켜버리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보장하게 될 석탄도 제대로 캐지 못하면서 탄부가 발전소건설에 동원된것이 옳지 않다는것이였다.

전영남은 억이 막혀 견딜수가 없었다. 준공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돌격대원들을 철수시키는 그 일군의 처사가 리해되지 않았다.

《당신은 저 동무들이 어떤 때, 어떻게 물길굴을 뚫고 발전소를 세웠는지 알기나 하는가? 고난의 행군때 그야말로 한치한치를 맨주먹으로, 피와 땀으로 물길굴을 뚫고 발전소를 일떠세웠다. 그런데 이 발전소건설을 위해서는 땀 한방울도 흘려보지 않고 이런 발전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던 당신이 시비군들의 말만 듣고 준공을 앞둔 돌격대원들을 철수시키다니... 당신도 량심이 있다면 생각을 좀 해보라. 눈물을 흘리며 흠어져가는 돌격대원들을 보라!...》

그는 가슴을 팡팡 두드리며 이렇게 소리치고싶은것을 가파스로 참았다. 성격이 불같은 그 역시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걱정을 삭이자니

깨물은 입술에선 피가 솟아어나왔다. 그러나 아직은… 할말이 없었다. 발전소들의 물길굴을 마무리 지어 연결하지 못하였고 아직은 전기의 덕을 인민들에게 주지 못하기때문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잠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운 그는 더 참지 못하고 새벽 4시에 자전거를 타고 읍에서 50리나 떨어져있는 4호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갔다.

려단참모장이 눈보라속을 뚫고 이른새벽에 나타나자 대원들은 그를 붙들고 모두가 울었다. 아침식사를 마주하고앉아 로보용술도 한잔씩 부어주는 전영남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떨렸다. 전영남은 피로운 어조로 한마디했다.

《동무들! 탄광에 돌아가면 발전소건설의 나날들을 잊지 마오. 이제 덕지강계단식발전소가 다 완공되어 불야경이 펼쳐지는 그날 수동땅 인민들이 그리고 조국이 동무들의 유훈을 알아줄거요.》

그리고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

발전소건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제일 손맥이 풀릴 때는 일부 일군들의 비난과 물리해였고 무관심이었다. 그러나 풍력발전소보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더 과악있다고, 이 길밖에 없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의 길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군 한 그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함마를 휘두르던 대원들이 점점 험뎌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교대별로 일해도 함마질은 역시 중로동이 아닐수 없었다. 전영남은 자기도 온몸이 나른해움을 느끼며 잠시 휴식하자고 소리쳤다. 수건으로 얼굴과 목덜미의 땀을 닦으며 무슨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생각을 굴려보았다. 맥을 놓고 여기저기 앉아 험뎌거리는 돌격대원들을 보느라니 눈이 쓰러왔다. 웬만 한 장정들도 쓰러지게 만드는 중로동이다. 바로 이때 수굴정대를 갈기 위해 굴밖으로 나갔던 주상철이 큰 일이라도 난듯 달려왔다.

《참모장동지! 책임비서동지가 오셨습니다. 모두 밖으로 빨리 나오랍니다. 빨리, 빨리요.》

전영남은 눈이 둥그래졌다. 건설장에 오면 먼저 막장으로부터 들어오던 책임비서였기때문이다.

(무슨 일일가.)

전영남이 대원들과 함께 서둘러 밖으로 나가니 책임비서 심석철이 전에없이 흥분된 얼굴로 다가왔다.

《참모장동무! 빨리 가서 텔레비존을 봅시다. 지금 기쁜 소식이 방영되고있소.》

《예?!》

전영남은 대원들과 함께 병실로 달려들어갔다. 텔레비존에서는 낮익은 방송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운반로케트〈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운반로케트〈은하-3〉은 주체101(2012)년 12월 12일 9시 49분 46초에 평안북도 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7초만인 9시 59분 13초에〈광명성-3〉호 2호기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

순간 전영남은 너무도 벅찬 환희에 심장이 똑 뛰는것만 같았다.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만세!〈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성공 만세!—》하는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대원들도 만세를 부르며 열싸안고 돌아갔다.

심석철책임비서가 전영남에게 다가와 어깨를 꼭 잡았다. 말은 하지 않아도 책임비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있는 전영남은 목멘 소리로 말하였다.

《책임비서동지! 우리가 이겼군요.》

《이겼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백두산대국의 패승이요. 어버이장군님께서 오늘의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감정이 풍부한 책임비서의 목소리도 갈리었다.

주민들의 생활과 탄광들의 생산 그리고 탄부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애쓰는 속에서도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이기에 스스로 발전소건설려단 정치위원이 되어 밀어주고있는 그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물길행군을 하던 때의 일이다. 일부 책임일군들이 발전소건설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현상을 보면 추궁하기 전에 자기가 앞장에 서서 일군들을 데리고 물길행군을 한다.

물길굴에 허리치는 찬물을 헤치면서 걸어가는 행군은 조련치 않았다. 그 행군을 하고 나오면 일군들모두가 땅속에 뿌려간 돌격대원들의 보이지 않는 피땀의 무게를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을 가다듬군 하는것이였다.

일부 사람들이 발전소건설을 못미더워하면서 로력랑비요, 시간랑비요 할 때마다 우리가 잘살자면 고난의 행군시기 침수되어버린 탄밭을 찾는것이 기본이며 그러자면 발전소를 세워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에 구애되지 말고 생산을 팡팡 내밀수 있게 되어야 한다면서 돌격대원들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책임비서였다. …

그때 그들에게로 돌격대의 두 지휘관들이 다가왔다.

《책임비서동지! 참모장동지! 우린 오늘의 이 기쁨을 안고 마지막판통을 보름이 아니라 한주일안으로 기어이 앞당기겠습니다.》

전영남은 신심에 넘쳐하는 그들의 어깨를 와락 끌어당겼다.



《흙소, 우리도 힘을 내서 판통을 앞당기자구.》

책임비서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주며 힘을 준다.

《동무들을 믿겠소.》

그 시각부터 돌격대원들은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수굴로 천공을 시작하였다. 막장안에는 그야말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그날 오후 전영남참모장은 4호발전소 변압기수리를 위해 현장으로 나갔다. 지휘부성원들을 비롯해서 협의회대상들이 다 모였는데 모두가 위성발사 성공에 대한 보도를 들은 뒤라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있었다.

《자,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이 변압기를 빨리 살려야 마지막판통을 보장할수 있소. 지금 11호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수굴작업을 하고있소.…》

전영남의 말에 배전소 김정국소장이 입을 열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이 변압기를 수리하는 동안 랑정사업소에 있는 560크바변압기를 4호에 설치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절연유가 삼백키로로그램은 있어야 합니다.》

전영남은 궁경하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전문생산공장이나 수리기관에 가지 않고 자체로 변압기관것을 수리하자면 막대한 자재와 시간, 로력이 요구된다.

철심을 들어내고 타버린 동선을 다시 감고 건조시킨 다음 변압기기름을 정제해서 넣는 작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배전소운영과 자재부원 박원철이 입을 열었다.

《제일 곤란한것은 기름을 해결할 방도가 당장 없는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주겠다는데도 없고…》

전력계통에 쓰이는 자재는 가지수가 많고 값이 비싸기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구해오기가 조련치 않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목소리는 벌써부터 걱정에 잠겨있었다.

《그러면… 6호발전소 차단기에 넣자고 했던 기름을 먼저 쓰면 어떨소?》

전영남의 기대어린 물음에 김정국이 대답했다.

《그 기름은 질이 좋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글쎄요.… 변압기의 기름은 좋은것이여야 하는데… 당장 해결방도가…》

《지금 돌격대원들은 수굴로 한치한치 뚫고나가고있소. 소장동무도 오늘보도를 들었겠지?》

좌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영남은 격해진 마음을 지그시 누르며 가라앉은 어조로 계속했다.

《우리가 지난 기간에 무엇이 있어서 하고 또 좋은것만 골라 써보았소? 걸러서도 써보고 줄여서도

써보고… 현물이 있는데 왜 방도가 없겠소? 내 생각에는 우선 기름려과기에 몇번 굴려 내압실험을 해보고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거요, 어떨소?》

기술참모 리철이 성급히 일어섰다.

《제 생각에는 려과하는것보다 끓이는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분도 날아나고 불순물도 제거됩니다.》

《그러자면 삼백키로로그램을 한번에 끓일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큰 가마가 있소?》

김정국이 리철을 곧바로 쳐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언제나 팽철한 리철을 유지하면서 타산하는 실무가였다. 리철은 대답을 못하고 주뚱거렸다. 순간이 지나자 그는 환성을 질렀다.

《아, 방도가 있습니다. 탄차바가지가 어떻습니까? 용량이 한톤짜리이니가 얼마든지 될수 있습니다.》

《그건 안되오. 탄차바닥에 탄가루가 있겠는데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럼 새 탄차는 어떨소?》

전영남이 반문했다.

《새것이면야 일없지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좋소, 그건 내가 알아보겠소.》

협의회가 끝난 다음 타버린 변압기를 차에 싣고 돌아오는 전영남의 마음은 무거웠다. 위성발사소식에 누구나 흥분하고 격동되어있는 때에 김정국소장을 비롯한 일부 일군들만은 그렇지 못한것 같아 불만스러웠다. 고원탄광 발전소의 변압기를 교체할 때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던가!…

집체만큼 큰 어마어마한 변압기를 분리하지 않고 철심만 통채로 들어내고 그안의 기름을 퍼내는 어려운 작업에 앞장서서 바چه뜨로 퍼내며 일했던 그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그길로 탄광기계공장을 찾아갔던 전영남은 실망을 안고 돌아섰다. 새 탄차는 한대도 없었다. 사실 그들도 전압이 약해 쇠물을 녹이지 못하고있었다. 탄차바퀴와 축소재들을 부어내려고 전원을 넣었다가 4호변압기를 태워먹는 결과를 빚어낸 그들이였다.

안타까이 자재상사와 탄광들을 찾아다니다가 빈손으로 배전소로 올라가던 그는 눈을 홑떴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탄차 한대가 배전소마당에 서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법석거리고있었던것이다. 가까이 가보니 김정국소장이 탄차안에 들어가 구석구석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있었다.

《아니? 이걸 어디서 났소?》

《좀전에 탄광기계지배인이 이걸 신고왔더군요. 새지 않는걸 구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모양입니다. 자기때문에 변압기를 태웠는데 가만있으면 되겠는가고 하면서…》

《그렇소? 그 사람이 소장동무에게서 혼썰나기가 싫었던 모양이구만, 응?... 하하.》

그의 룡에 주위에 즐거운 웃음이 터져올랐다.

김정국의 얼굴에 자책이 어렸다.

《참모장동지! 미안합니다. 우주정복의 패승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는 때에 머리 크게 앓아서 조건타발만 하고있었으니... 어지러운 바닥은 이렇게 씻어내면 되는걸...》

《사람두 참.》

전영남은 김정국의 가슴을 툭 쳤다. 김정국이나 탄광기계지배인이나 다 얼마나 좋은 일꾼들인가!

시대의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줄 아는 이런 일꾼들이 많아 발전소건설이 앞당겨지고있다!...

그는 잠시 그들의 일손을 거들어주다가 지휘부로 걸음을 옮기었다. 그날은 12월 12일이였다.

×

드디어 마지막판통의 순간이 다가왔다.

천공구멍들에는 화약이 만장약되어있었다. 11호 발전소건설장에는 아침부터 긴장과 흥분이 떠돌았다. 아침일찍기 현장에 나가 작업준비상태를 지휘하고있는 전영남의 가슴은 몹시 설레였다.

웬만해서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좀처럼 자신을 다잡기 힘들었다. 수동탄광돌격대 정광남참모장이 다가와 발파준비가 끝났다고 보고했다.

그때 마침 책임비서의 승용차가 다가왔다.

전영남이 다가가 인사하자 차에서 내리던 심석철 책임비서는 발전소 여기저기를 감회어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빙긋 웃었다.

《참모장동무! 마지막판통인데 너무 조용해서 섭섭하지 않소?》

전영남이도 싱긋이 웃었다. 어제 저녁에 사업보고를 하면서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였다. 지금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주를 정복하고 세상을 들썩하니 하고있는데 이까짓 물길굴이나 판통하고 소문을 낸다는게 몇적기 그지 없었던것이다.

책임비서는 미더운 눈길로 전영남을 쳐다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전영남이 정광남에게 지시했다.

《점화!》

그러자 정광남이 신호수에게 신호했다. 순간 굴 안에서 《팡!》하는 심빼기발파평음이 먼저 터져 나왔다. 뒤이어 24발의 발파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팡!— 팡!— 짜—팡!》

평음이 사라지기도 전에 《만세!—》의 우렁찬 함성이 터져올랐다. 서로서로 열싸안고 돌아가는

대원들의 얼굴마다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전영남참모장도 어글어글한 두눈에서 샘솟듯 하는 눈물을 씻을념 하지 않고 환성을 올리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시작된 발전소건설의 사연많은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언뜻언뜻 지나갔다. 먹을것이 없다고 맥을 놓고 주저앉은 탄부들을 찾아다니며 《일어서라,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일깨워주면서 한명한명 일떠세워 돌격대를 못던 일, 카바이드가 없으면 등잔불을 켜고 수굴정대로 암벽을 까내면서 굴진을 내밀던 일, 경성에자공장에 애자를 실으러 갈 때 진달래 피는 봄날에 마천령을 넘어갔다가 눈덮인 령길을 넘어오면서 지쳐내리는 자동차의 바퀴 밑에 서슴없이 몸을 던지던 일...

그렇게 힘들게 4호발전소를 완공하던 날 비물에 밥을 비벼먹던 일...

전영남은 가지가지의 잊을수 없는 일들을 추억하면서 수동천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강물은 바닥이 드러나게 말라있었지만 낮은 굽의 얼음장 밑으로 얼지 않은 물이 흐르고있었다.

등뒤에서 누군가 손을 어깨우에 올려놓는 바람에 돌아보니 책임비서가 서있었다. 서로 마주보는 눈길에는 무언의 뜻깊은 말이 오고갔다.

(수고했소, 참모장동무!...)

(고맙습니다. 우리 시비군들에게 본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이겼지... 승리자들은 실천으로 말하는 법이지....)

《한대 주오.》

담배를 그닥 즐기지 않는 책임비서가 흥분할 때마다 한대씩 태우곤 한다는것을 잘 아는 전영남은 담배를 내밀며 입을 열었다.

《이젠 물길굴을 완공했으니 지체없이 송전선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임비서는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미더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나를 창조하고 모두가 기뻐할 때에도 다음전투를 작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전영남이다. 고원탄광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굴진공, 채탄공을 거쳐 탄광부원으로, 함남지구석탄총국 부원, 파장... 오늘은 함남지구탄광연합기업소 부지배인으로 일해오면서 수십년간을 석탄생산에 바쳐온 일꾼이였다.

석탄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그였기에 고난의 행군시기에 침수된 여러 탄광들의 탄발을 되찾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그리도 아글타글 애써온것이 아닌가! 약간 길쭉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두눈, 긴 코날과 빠른 하판에는 날카로움과 완강한 정열이 보인다. 머리카락도 이제는 반백이 되었고 맏아들이 장가들게 된 나이였지만 주저도 동요도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달리는 그였다.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할수 있지. 아

직 설치 못한 3개 발전소의 발전설비들도 그렇게 송전선공사도 그대... 선을 늘여야 할 구간이 80여리가 된다고 했지?»

《예, 그렇지만 돌격대원들이 신심에 넘쳐있으니 문제없습니다. 단숨에 해제끼겠습니다.》

《그대, 하기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단숨에...》

그들은 찬바람부는 강가를 거닐며 앞일을 토의했다.

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

새해 2013년을 맞으면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전영남참모장은 신심에 넘쳐 송전선공사를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공사량은 방대하였다. 수동읍에서 1호발전소가 있는 직동까지 80여리였는데 산밭을 타고 선을 늘여야 했다. 콘크리트전주대만도 수천대를 세워야 하고 선은 10만여메터를 늘여야 했다. 거기에다 수만알의 애자설치, 완목고정, 벌줄늘이기... 400~600메터나 되는 산마루에 1톤씩이나 나가는 콘크리트전주대를 날라 올려가는 일은 정말 험치 않았다. 이 모든것을 국가적인 지원없이 자체로 한다는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전영남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일을 밀고나갔다. 현재 4호와 2호사이의 송전선은 완공되었으니 1호, 6호, 7호의 전기를 한선에 태워 읍까지 끌어오는것이 급선무였다. 그 시운전이 어떻게 될것인가, 미흡한 점은 없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며 그는 리철기술참모의 집으로 향했다. 반도체러자기연구를 하고있는 그가 앓는다는 말을 들은것이다. 마을길에 들어서던 전영남은 배전소 선로반장 박원길이 성난 기색으로 마주오는것을 보고 멈춰섰다.

《참모장동지! 전기도적을 붙잡았습니다.》

《전기도적이라니?》

《가뜩이나 물이 작아 전기생산을 많이 하지 못하고있는데 몰래 코걸이를 해서 전기불을 본단 말입니다.》

선로반장은 격분에 차서 부르짖었다.

《그게 누구요?》

선로반장은 이 마을의 리명준이라는 사람인데 발전소건설을 제일 못미더워하면서도 정작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덕은 제일먼저 보려고 한다면서 조서를 씌웠다고 하였다. 전영남은 득의양양해서 웨치는 그에게서 위반조서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단속내용이 적혀있었고 단속된 사람의 도장이 시뻘겋게 찍혀있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전영남의 마음은 좋지 않았다.

그 빨간 도장이 웬일인지 자기를 원망하는것 같이 느껴졌다.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주민세대에 공급해주었다라면 이런 범죄 아닌 범죄가 제기되었겠는가? 국가의 법을 어긴것은 잘못이지만 불을 보겠다는 그자체야 너무도 옹당한것이 아닌가.

전영남은 종이장을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다. 선로반장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내가 건사하겠소. 그리고 그 사람은 잘 타일러주고 용서해주시다. 우리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면 이런 일도 없을게요. 전기는 눈썹만큼 생산해놓고 그걸 좀 썼다고 큰 범죄자를 붙잡은것처럼 떠들면 되겠소? 아마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을거요.》

그러자 선로반장의 얼굴에 자책이 어렸다.

《웁습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서 그랬다던지...》

《됐소, 우리 어서빨리 발전소들을 완공해서 인민들이 전기를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자구.》

그리고는 돌아서서 리철의 집으로 향하였다. 리철은 독감으로 앓아누워서도 반도체러자기연구를 멈추지 않고있었다. 반도체러자기는 발전기가 첫시동을 걸 때 필요되는 전기마당을 얻기 위해 따로 설치하는 러자변압기대신 반도체로 간단히 얻게 하는 장치로서 아직은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들에 없는 전혀 새로운것이였다.

들고갔던 약과 식료품들을 꺼내놓고 지금은 병치로부터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나서 밖을 나와 집으로 향하였다. 마침 돼지물을 주고있던 안해 방금숙이 반겨맞아주었다. 전영남은 돼지우리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60키로는 넘어보이는 살진 돼지가 방금 준 물을 찹찹거리며 먹어대고있었다.

《아니? 당신 오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돼지우릴 다 들여다보구?》

《허, 당신이 힘들게 기른걸 벌써 몇마리나 돌격대원들에게 먹였는데 한번도 보지 않으면 내가 미안하지 않소?》

안해는 남편을 밍지 않게 흘겨보며 말했다.

《흥, 당신이 또 돼지가 다 큰줄 아는것 같구만요. 그러나 이번엔 안돼요. 말이 결혼식준비를 해야겠어요.》

전영남은 아무 대꾸도 없이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쌍 남편의 뒤통라지를 해오며 세 아들을 키우느라 꾀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는 안해였다. 사람들은 안해를 두고 나이보다 펍 젊어보인다고 말하지만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살은 숨기지 못했다. 방금숙은 남편이 아무말없이 담배만 피우자 예민한 감각으로 물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며칠후에 송전선공사를 해야했는데 애자가 좀 모자라는구만. 그걸 사오자니... 아, 됐소. 돼지는 당신이 정성들여 기른건데 처분권이야 당신한테

데 있지.》

전영남은 담배불을 비벼끄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방금숙은 남편옆에 앉으며 말했다.

《저… 총일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제가 몰랐군요. 저 돼지를 팔아서 애자 사오는데 보태자요. 결혼식에 쓸 이불이랑 옷이랑은 아직 날자가 좀 있으니 제 어떻게든 마련하겠어요.》

전영남은 숟가락을 들다말고 굳어졌다. 그의 눈에 뜨거운 애정이 한가득 실렸다.

《여보! 그게 정말이요?》

《나도 돌격대 명예대원이 아닌가요.》

《허허, 그래그래. 명예대원이지. 여보! 고맙소.》

전영남은 안해의 두손을 다정히 잡아주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녀성의 자그마한 손에 얼마나 큰 힘이 실려있는가 하는 노래가사가 생각났다.

그래! 우리 조선녀성들이 얼마나 억세고도 아름다운가! 남편을 내세우고 자식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며 뒤에서 떠밀어주고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이 나라의 녀인들!

전영남은 점심식사를 마치자 인차 발전소로 올라갔다. 무부하시운전을 오후 2시에 하기로 계획했던것이다.

《시험준비가 끝났습니다.》

김정국소장이 전영남을 반겨맞으며 말하였다.

《그럼 시작합시다.》

정각 2시에 변압기차단기가 투입되자 봉!—하는 전류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아니, 별로 크지 않은 그 소리가 전영남에게는 무척 크게 들리왔을 뿐이다.

1초! 2초!… 1분! 2분!…

숨막히는 긴장한 순간이 흐르고있었다. 전영남의 이마우에는 어느새 깨알같은 땀방울들이 뽀질뽀질 내뿜었다. 그의 옆에 서있는 발전소지배인 정광준의 얼굴에도 긴장이 가득 어렸다.

전영남의 온몸의 신경은 칼끝처럼 곤두서서 전화기에로 쏠리고있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실패라면 폭발을 동반하는 엄청난 사고이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과연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날것인가?… 10분… 20분… 책상우에 놓인 재떨이에는 담배꽂초가 쌓이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타드는 담배불이 따라왔으나 그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길게 타들어 굵새모양으로 구부러진 재가 툭툭 떨어지는것도 그는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드디어 한시간이 되었다. 긴장한 자세로 서있던 김정국이 희열에 넘친 어조로 소리쳤다.

《성공! 성공입니다.》

그러나 전영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조금만 더… 그리고 각 탄광들에 기대를 만부하로 돌리라고 하오.》

또 시간이 흘렀다. 2시간… 3시간… 그때 전화기가 요란히 울렸다. 전영남은 가슴속에서 돌덩이가 툭 떨어지는것 같은감을 느끼며 급히 손을 뻗쳐 송수화기를 들었다.

《아! 발전소입니까? 지금 주민사택들에 불이 환하게 왔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수동탄광입니다. 모든 기계들이 왕왕 돌아갑니다. 전압도 정상입니다. 압축기가 바람을 팡팡 생산해서 막장들에 보내고있습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전영남은 갑자기 코마루가 시큰해오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와 얼굴을 숙이였다. 시운전의 세시간이 자기가 살아온 권여섯해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전영남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슴이 터질듯 궁지와 행복으로 부풀어올랐다.

세개 발전소의 전기로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 나머지 다 돌려 생산하면 수동땅은 그야말로 전기가 풍족하게 될것이다.

김정국소장과 정광준 발전소지배인이 가까이 다가와 참모장의 팔을 잡았다.

《참모장동지! 이젠 신심이 생깁니다.》

전영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두손을 짹그려잡았다.

《이젠 됐소. 수고들 했소. 동무들을 축하하오.》

세사람은 서로 와락 끌어안았다. 발전소건설의 초기부터 산을 다스리고 강을 길들여온 사나이들의 큰 심장이 서로 맞비비며 세차게 들뛰였다.

×

송전선공사준비때문에 뛰어다니던 전영남은 어느날 러단지휘부로 나오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들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우리의 존엄높은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이기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면서 천만부당한 《제재》소동을 악랄하게 벌리는데 대하여 방송원은 격분에 찬 목소리로 규탄하고있었다.

전영남참모장은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불끈 틀어쥐었다.

(이놈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좋다! 어디 한번 맞서보자. 이제 네놈들은 전면대결전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그는 급히 사무실에 들어와 지휘부성원들을 불렀다. 지휘부성원들의 얼굴에도 긴장이 어렸다.



《동무들! 방금 보도를 다 들었을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송전선공사도 단순히 전기선공사가 아니라 원썬미제와 그 추종세력에게 백두산대국의 본패를 보여주는 조국수호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자체의 힘과 기술로 적들의 〈제재〉와 봉쇄를 깃부셔야 합니다. 난 그래서 열흘후부터 하게 된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하며 한주일안으로 와닥닥 끝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지휘부성원들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참모장동지!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전영남은 그들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구체적인 분담안을 짰다. 그는 지휘부 시공과장 리병호와 배전소장 김정국, 선로반장 박원길을 데리고 현장으로 나갔다. 그가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발전소지배인 정광준이 돌격대원들과 함께 준비작업을 하느라 법석대고있었다. 방송선전차에서는 경제선동의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한톤짜리 콘크리트전주대를 목도로 메올리는 사람들, 대형번압기밑에 통나무를 깔고 견인차로 끌어당기는 사람들, 선을 늘이는 대원들... 한쪽에서는 이미 세운 전주대에 수동식권양기를 설치하고 전주대를 2단, 3단으로 끌어올리는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전영남은 산고지우로 전주대를 메올리는 돌격대원들잠에 끼워 힘을 쓰고있었다. 《영차.》, 《영차.》하며 기세좋게 오르던 사람들이 경사가 급하고 눈덮인 곳에서 속도가 떨어지더니 헛발을 디디며 넘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거운 전주대가 얼음길 위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아래에는 또 다른 조가 목도를 메고 올라오고있었다. 만약 저것이 그냥 내려쏘리면... 저 돌격대원들이... 전영남은 소름이 짹 돌아나는것을 느꼈다. 《비켜라!-》하고 소리치며 달려갔다. 순간 그는 누군가 휙 몸을 날려 지쳐내리는 전주대에도 몸을 던지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전주대를 안고 지쳐내리다가 어느새 두발을 길옆의 나무쥘에 들이박았다.

전주대가 떨어졌다. 전영남은 급히 그리로 달려가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송전선돌격대 양경환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전주대에 긁히웠는지 피가 흘러내렸고 나무쥘에 틀어박았던 다리에는 푸릿푸릿한 멍이 새겨졌다. 전영남은 몸을 떨었다.

《죽자고 그래?》하고 소리쳤으나 목구멍에는 뜨거운것이 짹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머리에 봉대를 싸매고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양경환이 도리머리했다.

《오늘 아침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딸애가 〈아버지! 〈제재〉라는게 뭐나요?〉하고 물었습니다.... 저런 철부지에게가

지... 글썄... 여기에 내가 무슨 대답을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목도채에 어깨를 들이밀며 말하였다.

《자, 동무들, 전투를 계속합시다. 미국놈들이 기절하게 말ियो.》

그의 말에 힘과 용기를 되찾은 대원들이 왁 달라붙어 무거운 전주대를 건듯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한치한치 경사지를 뚫기 시작했다. 누군가 구호를 웨쳤다.

《동무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계신다. 자, 앞으로!》

《미국놈들에게 본패를 보여주자!》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잘사는 길이다. 체힘을 믿고 앞으로!》

확성기를 든 당위원회 선전일군이 령마루우에 올라왔다. 힘찬 노래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동무들아 언제든지 경각성 높이자

우리의 눈앞엔 미제가 있다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침략자

전쟁을 짓어대며 발광을 한다

송전선공사장에는 멸적의 기상이 폭풍쳤다.

여기저기서 와와 떠들며 용을 쓰는 소리가 골안을 드렁드렁 울렸다. 날이 어두워지자 두대의 자동차불빛이 작업장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전주대에 올라간 대원들의 얼굴마다 적개심이 번뜩인다.

미제는 우리의 철천지원썬

대대손손 풀수에 사무친 원썬

증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량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그렇다! 조선이 얼마나 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있는지, 백두산천출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행복이 어떤것인지, 한다면 무조건 하고야마는 조선의 배짱과 존엄이 어떤것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이름없는 산봉우리에도 력력히 새겨지고있었다. 드디어 마지막전주대가 일어서고 송전선이 늘어졌다. 이제 남은것은 국선을 자르고 자체의 전기선을 련결하는것이다.

전영남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밤 9시가 거의 가까와오고있었다. 말그대로 가장 책임적이고 가장 긴장한 순간이 눈앞에 박두해오고있다. 전력공업성과 도송배전부에 약속한 시간은 30분간이다.

만약 1분이라도 초과하면 막대한 후파가 초래되



기때문에 긴장해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전영남은 선로반장 박원길기와 발전소지배인 정광준의 손을 짹 잡으며 강조하였다.

《시간은 30분간이요.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자, 시작하기요.》

더우기 심중한것은 철길전차선우로 가로질러간 선을 자르기때문에 제때에 철수해야 하는것이다.

박원길이가 잘라낸 선들이 전차선우에 드리우기 바쁘게 밑에서 대기하고있던 대원들이 그것을 잡아당겨 철수했다. 또 한선이 떨어져내렸을 때 갑자기 저쪽산굽이쪽에서 《뽕!—》하는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

전영남은 금시 심장이 후두둑 뛰는것을 느끼며 두눈을 크게 폈다. 술진 눈섭이 이마우에서 꿈틀했다. 아니? 시간이 아직 안되었는데… 벌써 전기를 넣었는가… 뇌리속에서 빛발치는 생각은 한순간… 그는 달려가며 소리쳤다.

《동무들! 기차가 온다. 모두 손을 놓으라—》

그러나 그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대원들은 그냥 선을 잡아당긴다. 감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아!…

환각이었다. 대원들은 여전히 선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370여미터나 되는 긴 선을 당기니 시간이 걸리는것이었다.

그때 굽인돌이에 나타난 기관차가 또다시 기적을 울리며 질풍같이 달려왔다. 경악해서 기관차를 쳐다보던 그는 허 하고 김빠진 소리를 냈다. 기관차는 내연기관차였다. 그때야 정전으로 기관차가 펄수 없다는것을 비로소 느낀 그는 환각에 빠졌던 자기를 보고 피식 웃었다. 드디어 선이 다 련결되었다. 승용차를 타고 달려온 책임비서가 방송차에로다가가더니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다.

《동무들! 지금 읍내 모든 구역에 불이 환하게 왔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 춤을 추고있습니다. 읍내인민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 《만세!—》의 웨침소리가 산골짜기에 저런저런 울려퍼졌다. 서로 안고 돌아가는 돌격대원들과 지휘관들의 얼굴마다 긍지와 환희가 가득 어렸다. 책임비서와 함께 온 차들에 갈라탄 대원들은 수동읍이 한눈에 보이는 굽인돌이에서 약속이나 한듯이 내렸다. 산골짜기를 따라 길게 뻗은 읍지구에 불야경이 펼쳐졌다. 오른쪽당반마을에도 불빛이 환한게 마치 층층계단을 이룬 아빠트들을 편상시킨다. 읍중심도로 좌우에는 파란 가로등들이 환하게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대원들의 얼굴마다 무엇이라 적어말하기 어려운 표정들이 각이하게 어렸다.

아! 얼마나 간고하게, 얼마나 고심참담하게 건설해온 발전소의 불빛인가! 대원들과 함께 서서 불야경을 바라보는 전영남의 감회는 류달랐다. 발전소

를 건설하느라 그가 겪어온 모진 시련과 애로와 난관은 과연 그 얼마…

책임비서가 전영남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환영사업을 크게 조직할가 하다가 동무의 마음을 알기때문에 그만두었소.》

《책임비서동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요란한 환영의식보다 저렇게 실지 덕을 보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가 더 기쁩니다. 이제 수력발전소건설자들의 남다른 행복인가 봅니다.》

《그래, 인민들이 좋아하면 그만이지.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면 기뻐하실거요.… 자, 이제 들어가자구.》

《먼저 들어가십시오. 전 좀 견고싶습니다.》

책임비서는 그의 마음이 헤아려져 고개를 끄덕이였다. 전영남은 수동천방축을 따라 천천히 걸기 시작하였다. 오늘 밤에는 아마 잠을 잘것 같지 못했다. 불빛이 환한 거리를 걸으며 이밤 이렇게 새우고싶었다.

방금전에 책임비서가 한 말이 가슴을 더욱 설레이게 해주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면 기뻐하실거요.》

지금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어디에 계실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전영남은 두주먹을 짹 움켜쥐며 가슴을 한껏 부풀리었다.

(그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뻐하시게… 오직 그날만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자!)

그는 힘있게 발걸음을 내짚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밝게 웃고있었다.

## 벽 시

### 나의 기쁨

리 동 수

직포공 나의 기쁨은

내가 짜낸 곱고고운 천

그것으로 새옷 해입고 밝게 웃는

귀여운 어린이

행복에 겨워 웃음짓는 그의 어머니

직포공 나의 행복은

내가 짠 천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우리의 마을 우리의 거리

꽃물결 흐르는 내 조국의 모습이어라!

# 주인공을 리상화하지 않고 진실하고 참되게!

김 청 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소설의 주인공은 현실에 실지 있는 인간이어야 하고 사람들결에서 늘 같이 숨쉬고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안겨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우리의 일부 소설이 친숙감이 덜하고 사람의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인물이 대체로 리상화되어있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소설은 마땅히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을 초월한 인물을 꾸며내면 인간과 생활을 리상화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지적하시였다.

작가라면 누구나 자기 주인공을 사랑한다. 주인공을 선정함에 있어서, 또 주인공을 형상함에 있어서 누구나 공감하고 따라배울수 있는 훌륭한 전형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작가는 참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 그런 나머지 주인공의 형상이 지나치게 리상화되어 현실에서 가장 가까이 숨쉬고 사고하는 산 인간이 아니라 누구나 선뜻 다가서기 힘들고 그저 높이만 바라보이는 주인공으로 형상하는 경향까지 종종 보인다.

주인공에게 심혈을 집중하는것은 옳으나 그 방향이 기울어져 주인공을 리상화하는데로 나가는것은 하나의 편향이며 그것은 작품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는것과 동시에 문학의 중요한 기능인 사상교양적기능을 떨어뜨린다.

장편소설 《하늘이 개인다》(김유권 작)는 주인공형상에서의 지나친 리상화를 극복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형상에서의 미화분식을 막고 진실성을 보장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하늘이 개인다》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늘의 첫 영웅비행사들의 위훈과 생활을 그리고있다.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영웅한 우리 매들은 《하늘의 요새》라고 자처하던 미제의 전략폭격기 《B-29》를 보기 좋게 격추하고 프로펠라식추격기로 적들의 신형분사식전투기 《F-80》을 비롯한 수많은 적기들을 격파하여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기록을 세웠다.

소설은 비행기 4기로 한 편대를 지어 싸운 김기옥영웅편대의 투쟁과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씌여졌다. 김기옥영웅의 편대는 전쟁이 일어난지 20일만에 편대성원 4명중 3명이 공화국영웅으로 자라난 참으로 보기 드문 편대이다.

이러한 력사적사실과 함께 소설의 형상대상이 누구나 쉽게 체험할수 없는 비행사생활이라는 조건이

첨부되면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생활이 저도 모르게 리상화되고 결국 형상이 미화분식될수 있는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이 소설창작에서 작가는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에 근거하여 주인공의 형상과정을 철저히 성격발전과정이 되게 주도해나감으로써 하늘의 영웅들이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가깝고 친근한 전우로, 생활과 투쟁의 영원한 벗으로 되게 하였다.

소설에 씌여진바 그대로 타고난 비행사도 없으며 타고난 영웅도 없다.

하늘은 단순한 허공이 아닌 까닭에 비행사들에게는 땅위의 병사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의 정신육체적준비가 요구되며 기술장비문제, 지식습득문제를 비롯하여 참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시종 영긴다. 보통 평범한 인간이 하늘을 신비의 세계로 느낄 때 바로 그 보통사람들가운데서 선발된 비행사들은 신비의 세계속을 종횡으로 누비며 생사를 판가름하는 혈전을 벌리는것이다.

작가는 이로부터 영웅 김기옥의 형상을 보통사람의 소박한 첫걸음으로 진실하게 묘사하기 시작하여 두걸음, 세걸음으로 나아갔으며 그 형상선에서 시종일관 탈선하지 않으면서 영웅적인 삶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너무도 가난한탓에 나이 스물에 이르러서야 고학으로 중학을 졸업한 김기옥, 가난한 산골마을 소학교의 교사로 아이들의 글눈을 띄워주느라 애쓰던 동정심많은 청년으로부터 항일선렬들을 따라 조국과 인민을 몸바쳐 사랑하는 정신적높이에 오른 자랑스러운 이 나라 젊은이-김기옥!

그는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였다.

그는 침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닌 내성적인 청년이였다. 꾸준한 노력, 강한 인내성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행기술과 리론을 자기것으로 깡그리 소화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시각에 병사에게 가장 필요한 결단성, 판단성이 부족하였다. 비행사에게 있어서 침착성, 인내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결단성, 판단성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비행사들앞에 날아든 적은 어떤 적인가.

우선 너비 43미터, 길이가 30미터나 되는 거물로서 무려 9톤에 달하는 폭탄을 싣고다닌다는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일컬으는 《B-29》가 있다. 또한 미공군에 새로 배비된 분사식전투폭격기 《F-80》은 시속 935키로메터로서 기록적인 속도를 낸다. 그놈의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F-80》이 하늘을 쫓 때에는 아찔러운 소리가 난

다고 하여 《썩썩기》로 불리운다.

이러한 거물급의 적비행기와 1:1도 아니고 2:4로, 2:8로, 1:10으로, 나중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달려드는 놈들과 4기의 추격기로 맞서야 하는 우리 비행사들이다.

이런 전투정황속에서 침착성과 인내성만으로 어찌 적을 타승하겠는가.

김기옥은 생사를 순간에 판가리하는 류레없는 공중전을 한차례 또 한차례 거듭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투시하기 시작한다.

《B-29》를 향하여 운몰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자기 비행기동체로 《B-29》를 육박해돌진한 대대장의 희생에서 받은 정신적충격, 《F-80》의 기압적인 속도에 놀라 피동에 빠져 가파로운 산굽이에 기대어 방어만 하던 자신의 나약한 행동에 대한 타매, 《F-80》의 약점을 알고 그를 찌르기 위한 고도의 기술전법을 익히면서도 그 마음을 툭 터놓지 못하고 혼자서만 애쓰다가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는 어설픈 성격적약점을 가지고있는 주인공 김기옥이다.

그 과정에 귀중한 비행기를 마삼먹고 비행중 지쳐분을 받은 김기옥에게 재생의 나래, 원썬격멸의 새 나래를 달아주신분은 우리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선작전비행대장 리활로부터 김기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어떤 불리한 정황에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의 약한 고리를 때려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김기옥의 결함보다도 그의 지향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며 김기옥에게 항공대지휘부 대기비행기 12호를 수여하도록 참으로 은정깊은 사랑을 베푸신다.

김기옥은 나래를 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을 받아안은 전사에게는 무서울것도 주저할것도 없었던것이다.

그는 편대를 이끌고 하늘에 날아올라 가증스러운 적기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돌입하기도 하고 놀

라운 기술전법으로 내려쫓히고 선회하는 등 침착성과 인내력, 결단성과 과단성을 결합하여 전쟁이 일어난지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F-80》과 《B-29》를 5대나 떨군다.

한때 지나친 침착성과 나약성으로 하여 사랑하는 처녀의 의혹을 받기도 하던 그, 원칙을 벗어난 무른 인정으로 마땅히 비판하고 다잡아세워야 할 한 비행사의 잘못을 스치며 뼈아픈 후회도 하게 되는 주인공.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치는 주인공이었기에 그가 한때, 한때 쏘아떨구는 위훈이 그토록 값비싼것이고 그가 받아안은 공화국영웅칭호도 그토록 빛나는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주인공을 형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리상화한것이 아니라 긍정면도 있고 부족점도 있는 산 인간으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현실의 평범한 인간으로 진실하게 그리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구나 쉬이 오르지 못하는 하늘을 날며 독자대중의 심장속에 곧바로 육박해든 소설의 주인공-김기옥의 형상은 참되고 진실하다.

대체로 력사에 기록되고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영웅들을 원형으로 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 영웅이라는 칭호에 현혹되어 주인공의 성격을 리상화하는 편향이 있게 된다. 이 소설은 이러한 편향을 완전히 극복하고 현실속의 산 인간을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는, 누구에게나 참되고 진실한 주인공으로 되게 하였다.

장편소설 《하늘이 개인다》는 주인공에 대한 리상화, 현실에 대한 미화분식을 극복하고 형상의 진실성을 살리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작가의 탐구와 실력이 잘 느껴지는 작품으로서 독자대중속에 널리 애독되고있다.

작가들은 주인공을 리상화하지 않고 인민대중속에 친숙하고 사랑받는 원형인물들로 작품에 전형화, 일반화하는데서 많은 경험들을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백 시 .....

## 미래앞에 우리가 서있다

### 조영일

먼 후날 후회하는 삶에는  
땃땃한 오늘이 없고  
먼 후날 후회없는 삶에는  
땃땃한 오늘이 있다

한메터의 천을 짜도  
원수님 받드는 충정의 마음으로  
더욱 부강해질 조국의 모습 비끼도록  
먼 후날에도 후회없는 오늘을 수놓자  
그 미래앞에 우리가 서있다!

## 절약은 애국

### 박정애

흔하디 흔한  
실 한오리라도  
버리지 말고 아끼자  
그것도 더없이 귀중한  
나라의 재산

금싸래기처럼  
진주보석처럼  
귀중히 여기고 아끼면  
인민의 옷감은 더 늘어나리  
오, 절약은 애국!

## 소 개

# 소베트작가 쏘프로노브와 희곡 《계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문학만이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생활인식의 믿음직한 수단으로, 문화정서적수양의 친근한 벗으로 될수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줄것인가.

장기성을 띠는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이 물음에 그 어느 시대이든 대답을 주어야 한다.

쏘베트시대의 혁명위업계승문제를 감동깊게 형상한 이전 쏘련의 희곡 《계승》이 좋은 실례로 된다.

희곡 《계승》은 1969년에 쏘베트작가 쏘프로노브가 창작하였다.

아나톨리 올라지미로비치 쏘프로노브는 이전 쏘련의 명성높은 극작가이며 시인이다.

그는 돈까자크의 집안에서 태어나 로동을 하면서 독학으로 문학공부를 하고 공장문학소조원을 거쳐 직업적작가로 되었다.

그는 공장에서 로동을 하던 1920년대부터 문학창작활동을 벌렸다. 쏘도전쟁시기에 그는 종군하면서 피어린 전투현장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써냈고 전후에는 어느 한 잡지사의 책임주필로 활동하면서도 다방면적인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창작성과로 사회주의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쏘프로노브는 시도 쓰고 희곡도 창작한 재능있는 작가였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로서는 《시와 노래》(1950), 《서정시집》(1982)을 비롯한 시집들과 운문소설 《시대의 깊은 곳으로》(1978—1983) 등이 있다.

쏘프로노브가 문단에서 명성을 떨치게 된 주요원인은 그가 시대성이 강하고 음악적인 정서가 흘러 넘치는 훌륭한 극작품들을 많이 내놓은데 있다.

대표적인 희곡작품들은 《모스크바성격》(1948), 《식모》(1959), 《계승》(1969), 《태풍》(1972), 《시효》(1981) 등이며 그의 전체 희곡유산은 50여편에 달한다.

희곡 《계승》은 그의 작가적개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작품이다.

3막으로 된 작품은 비교적 전개된 화폭에서 혁명위업의 계승과 관련한 절박한 시대적문제를 다루고있다.

이 시대적문제의 강렬한 주장은 주요인물인 와르와라의 아들 싸샤의 대사에서 두드러지게 울려나오고있다.

퇴역장령 네도세킨의 손자이기도 한 싸샤는 한때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몰리해하고 부화한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갔었다.

그후 군대에 입대하여 군무생활을 성실히 하는 과정에 싸샤는 지난 시기 자기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며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붉은별훈장까지 수여받게 된다.

군사복무기간 참된 군인의 모습을 간직한 싸샤는 훈장을 수여받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올라온 기회에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군사복무기간에 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제가 선참으로 찾아온것은 어머니한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아닙니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전 할아버지한테 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로요! 맨 먼저 할아버지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제가 왜 할아버지한테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할아버지가 이 땅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신분이기때문입니다....

《한때 저는 아버지면 다라고 생각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었으니 좋은삶든 아버지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고요. 그러나 저에게 넋을 주신분은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작품은 혁명하는 시대 청년들, 새 세대들의 정신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혁명위업계승의 필연성을 감동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당시는 물론 세월이 지난 뒤에도 좋은 영향을 안겨주었으며 예술영화로까지 각색되어 진한 여운을 남기였다.

리 종 국

# 자동수예기앞에서

주 경

사름사름...

너는 무엇을 수놓아가니  
너에게 프로그램만 넣어주면  
갖가지 아름다운 문양들을  
구두마다 새겨가는  
내 사랑 자동수예기야

맵시있는 녀자구두엔  
봄나비 활짝 나래를 펴고  
아이들의 깜찍한 구두마다엔  
빨사슴 토끼들이  
저저마다 제 모습 뽐내누나

어디 보자  
다시 보자  
구두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아  
나래를 편 벌나비야  
재롱피우는 애기곰아

너희들은 모르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구두를 안겨주시려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

몸소 무게를 알아보시고  
장식도 잘하라고 하신 어버이 그 사랑을

그날에 너희들은 태어났거니  
도안가들이 착상한  
장식도안의 종이우에서 아닌  
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안은 뜨거운 심장에서

사름사름 자동수예기야  
나는 너의 모습에서  
갖가지 모양의 구두들이  
하나의 자동흐름선을 타고 꽃물결처럼 흐를  
무인화된 공장의 래일을 본다

아, 너는  
과학기술의 패권으로  
매대마다 상품을 가득가득 쌓아갈 때  
강성국가의 새봄을 꽃피울수 있음을  
이 가슴에 새겨주며  
새해진군길에 나선 인민들의 가슴속에  
봄날의 화원을 펼쳐가고있어라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3호 (루계 제797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3(2014)년 3월 1일

발 행 주체103(2014)년 3월 5일

7-46041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